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2009년 5·6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2009년 5·6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5 May 2009

1주차
05.06-05.10

1. 대내정세 — 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2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6

2주차
05.11-05.17

1. 대내정세 — 20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28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북·러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37

3주차
05.18-05.24

1. 대내정세 — 40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50
가. 북·미 관계 나. 북·일 관계
다.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53

4주차
05.25-05.31

1. 대내정세 — 5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70
가. 유엔 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81

인쇄 : 2009년 7월 발행 : 2009년 7월

발행처 : 통일연구원 발행인 :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 북한연구실 편집간사 : 권혜진 연구원

등록 : 제2-02361호(97.4.23) 주소 :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 두일디자인 2285-0936

(비매품)

6 June 2009

1주차 06.01-06.07

1. 대내정세 — 8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00
가. 유엔 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3. 대남정세 — 105

2주차 06.08-06.14

1. 대내정세 — 10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16
가. 유엔 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123

3주차 06.15-06.21

1. 대내정세 — 12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40
가. 유엔 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145

4주차 06.22-06.28

1. 대내정세 — 150
가. 정치 관련 나. 경제 관련
다. 군사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58
가. 유엔 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163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5.06-05.10

5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희천시 산업시설 현지지도(5/9,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희천시에 있는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청년 전기연합기업소, 희천정밀기계공장 등을 현지지도했다고 북한 언론매체들이 9일 보도
- 희천에는 군수시설이 밀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수산업을 책임진 전병호 노동당 군수공업부장이 수행해 눈길을 끌었으며 장성택 노동당 행정 부장과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도 수행원에 포함

- 김정일, 제10215군부대 대학 시찰(5/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10215군부대 대학을 시찰했다고 보도, 방송은 “김정일 동지가 제10215군부대 대학을 시찰했다”며 “(김 위원장은) 학장의 안내를 받으며 김일성 전 국가주석의 현지지도사적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 등을 돌아봤다”고 보도
- 통신은 또 “김정일 동지는 군사연구실을 돌아보며 교육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깨달아 알아냄)했다”며 “원리교육과 동작교육을 실속 있게 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학생들을 높은 군사지식과 지휘능력을 소유한 유능한 지휘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물교육과 직관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부연
- 시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김기남 비서와 국방위원회 장성택 당중앙위원, 인민군 이명수 대장 등이 동행

나. 정치 관련

- 北대남해외공작기구, 정찰총국으로 통합(5/10, 연합)

- 북한이 각종 대남, 해외 공작업무를 하는 노동당 35호실과 작전부를 노동당에서 떼어내 인민무력부의 정찰국으로 통합, ‘정찰총국’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알려짐.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10일 이같이 전하고 정찰총국장

- 엔 상장(중장) 또는 대장급의 현역 장성이 임명됐다고 소개
- 경찰총국은 인민무력부 산하 기구이지만 오랜 기간 노동당 작전부장을 맡아온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전해짐. 이에 따라 북한 군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됐으며, 경찰총국은 총정치국, 총참모부와 함께 북한 군부의 3대 실세기구의 하나로 급부상
 - 이번 개편 과정에서 35호실, 작전부와 함께 노동당의 3대 대남, 해외 비밀공작기구중 하나였던 대외연락부는 대외교류국으로 축소돼 내각에 배속되고 강관주 대외연락부장도 국장으로 직급이 강등된 것으로 알려짐. 강관주가 지난 3월 선출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빠진 것도 이때문인 것으로 전해짐. 그러나 대외교류국은 대외연락부의 대남 공작 및 조총련 업무를 전부 그대로 관장한 채 내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소식통은 “대외교류국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직보체계도 유지하고 있으나,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 이후 국정 전반을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총괄하고 있는 만큼 장 부장이 보고받고 있다”고 소개, 이러한 개편 결과 종래 노동당 소속이던 4개 대남 미 해외 부서 중 남북회담 등 대남 정책을 공개적으로 수행하는 통일전선부만 노동당에 남게 되었음.

● 조평통, 진보통일운동세력 탄압 비난(5/9, 조평통 서기국 보도)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9일 ‘서기국 보도’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한 단체들을 공익활동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 등을 가리켜 “시민사회단체들과 통일애국세력을 거세말살”하려는 “탄압수법들”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평통 서기국 보도는 또 ‘친북좌익 척결’을 내세우는 국민행동본부의 애국기동단 발족에 대해서도 “진보통일운동 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

● 조평통, 남북대화, 논의 여지 없다(5/9, 조평통 대변인 담화)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한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북한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전면부정, 전면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를 공공연히 중상모독하고 노골적으로 부정해 나선 조건에서 북남사이의 대화에 대해

서는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고 언급

- 조평통은 9일 ‘대변인 담화’에서 제성호 인권대사의 ‘탈북자 정착촌 건설’ 발언과 허철 평화외교기획단장의 방미시 탈북자 및 현대아산 직원 억류 문제 협의 등을 들어 “리명박 패당이 우리의 거둬지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
- 담화에서 북한은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로서 애당초 인권문제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

● 범민련 북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석방 촉구(5/8, 범민련 북측본부 성명)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는 8일 경찰청과 국정원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규재 의장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 “통일애국세력을 완전히 숙청해 버리려는 전면적인 탄압책동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남측의 각 계층이 이 의장에 대한 석방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적십자, 南이산가족행사 비난(5/8,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통일부가 4월 주최한 ‘2009 이산가족 초청행사’를 “북남관계 악화의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광대극”이라고 비난하며 이산가족들에게 반정부 투쟁을 선동
- 적십자회 대변인은 “6.15이후 활발히 진행돼오던 북남 사이의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이 전면 차단되고 최악의 국면에 처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책동 때문”이라고 주장
- 그는 “남조선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은 사태를 바로 보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책동에 미쳐날뛰는 리명박 패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선동

● 北, 대북 적대 美와 대화 무용(5/8, 북한 외무성 대변인 입장 발표)

-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8일 오바마 미 행정부의 100일간의 정책동향을 본 결과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선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우리는 이미 밝힌 대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적대시하는 상대와 마주 앉았됐자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최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 누구의 주의를 끌어 대화나 해보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입장 발표에서 “현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두고 ‘도전’이니 ‘도발’이니 하면서 엉당한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하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우리 제도에 대하여 ‘폭정’이니 ‘불량배 정권’이니 하는 등 전 정권이 일삼던 적대적인 험담들을 그대로 받아 외우고 있다”고 비난
- 그는 또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난 3월 ‘키리졸브’와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해 북한의 “안전을 심히 위협”했으며, “평화적 위성발사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 가 제재를 실동에 옮김으로써 우리의 국방공업을 물리적으로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

● 北관변단체들, 잇달아 대남 비난(5/7, 연합)

- 북한이 각종 단체들을 잇달아 동원, 대남 비난을 강화, 북한의 ‘조선인권연구협회’는 7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남한 정부가 5.1 노동절 기념행사 및 용산참사 100일 집회를 강제 진압했다면서 “야만적 폭압”이라고 비난하고 남한 사회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또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도 7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핵심간부에 대한 법원의 이적단체 규정과 실형 선고를 비난하면서 석방을 촉구

● 北, 광명성2호, 위성관측·관제시험 정상 진행(5/7,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광명성2호’의 정상궤도 진입을 재차 강조하면서 “위성관측과 관제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
- 대변인은 7일 광명성2호 발사 한 달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위성에서 보내오는 각종 계측자료들을 수신 분석했다”며 “지상관제초소에서 보내는 조종구령에 따라 위성의 동작상태를 변화시키고 지상의 여러 지역에 전개되어있는 중계통신초소에서 위성을 통한 중계통신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됐

다”고 설명

- 대변인은 “이미 공개된 470MHz로 지구에 전송하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선율과 위성자료에 대한 관측을 통해 그리고 지상에 전개된 궤도추적탐지기를 비롯한 측정수단들에 의해 우리의 위성이 정확히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주장
- 그는 “운반 로켓과 위성에는 궤도측정과 자료전송을 위하여 원격측정장치와 궤도측정장치를 비롯한 측정 및 송신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에는 궤도추적탐지기와 원격수신장치를 비롯한 측정수단들을 전개했다”고 소개
- 대변인은 “이번에 진행된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의 발사를 통해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초기에 계획한 종합적인 위성발사관제체계 수립과 위성 궤도진입, 위성에 의한 시험통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함으로써 평화적 우주개발활동에서 큰 걸음을 내디디게 됐다”고 자평

● **조선신보, PSI 전면참여시 남북관계 파국(5/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7일 ‘남조선의 PSI 전면참가 동족대결 책동으로 규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남조선이 현 정세 속에서 PSI(확산방지구상)에 전면참가를 선언한다면 북남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발표가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에서 안보리의 장성명 채택일로 미뤄졌다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 “발표 시기의 변경은 PSI가 북남관계에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남조선 당국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

● **北, 150일 전투 돌입, 결의모임·선전화 개시(5/6,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6일 “강성대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제끼기 위한 150일 전투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결의모임이 5일 당창건 기념탑 광장에서 진행됐다”고 보도
- 방송은 “모임에서는 이용철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가 150일 전투목표를 제기했다”며 “이어 이한준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와 방연범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 1강철직장 초급청년동맹 비서, 박일혁 사리원시 미곡협동

농당 청년작업반장, 한영림 김책공업종합대학 청년동맹위원회 비서, 이군철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1비서가 토론했다”고 보도

- 이와 함께 방송은 “전당 전국 전민을 150일 전투에 힘있게 고무 추동하고 여러 점의 선전화들이 나왔다”며 “당 출판사와 만수대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에서 선전화들을 창작해 내놓았다”고 설명

● 北, 핵보유국 인정 관련 외신보도 소개(5/6,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6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공인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각국 언론이 이를 “널리 보도”하고 있다고 외신보도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핵보유국으로 공인받으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을 반영
- 방송은 특히 인도 신문 ‘스테이즈미’가 ‘조선(북한)은 새로운 핵보유국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북한이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보다 큰 지렛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소개

다. 경제 관련

● 北, 고구려 역사알기 등 모바일게임 광고(5/8, 연합)

- 북한의 해외 대상 상품홍보 웹사이트 ‘조선엑스포닷컴(www.chosunexpo.com)’이 다양한 새로운 휴대전화용 모바일 게임을 광고
- 이 사이트는 지난 2월 말에도 카드, 로또, 릴, 보드, 퍼즐 등 다양한 온라인 게임을 개발했다면서 남한에서 유행하는 고스톱이나 로또 게임을 비롯해 릴 게임(돌아가는 그림을 맞추면 점수를 얻는 게임)인 ‘태왕사신기’ 등을 소개하고 한때 남한에서 유행했으나 불법 사행성 오락으로 규정된 ‘바다이야기’ 게임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 사이트는 평양 주재 외국대사관에 인터넷망을 공급하는 조선북권합영회사가 평양에서 제작·운영하는 것으로, 북한의 수출용 상품을 우리말,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소개
- 사이트에 소개된 ‘고구려 역사 알기’게임은 왕대(왕조) 설명, 영토통합, 국토수호 등 3개의 보조 게임으로 이뤄졌고 게임별로 임무를 완수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며 좌우키와 선택키만으로 게임을 할 수 있음. '왕대 설명'은 고구려 33대 왕들을 찾는 게임이며, '영토 통합' 게임은 임무를 완수하면 고구려에 통합된 13개 속국들의 이름과 영토를 보여주고 '국토 수호'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키는 게임임.

- 이 사이트는 또 4명이 돌아가며 2명씩 고스톱을 치는 '맞고'를 비롯해 테트리스를 하면서 오목을 두는 '알밤 때리기', 1970년대 일본의 인기 만화영화를 본뜬 '인조인간 캐산', 자동차 경주인 '모험 레이스', 북한 해수욕장 송도원에서 다이빙을 하는 '물에 뛰어들기', 금강산 특산물을 찾는 '금강산관광 길에서' 등의 게임도 선보였음.
- 이들 게임은 남한이나 해외동포 휴대전화 사용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이트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 게임들을 이용 또는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음.

● WHO, 北에 신종플루 치료제 제공(5/8,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에 인플루엔자A(H1N1, 신종플루)의 발생에 대비해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제공, WHO 제네바 본부의 스티븐 라우어 공보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전화통화에서 WHO가 72개 개발도상국에 총 240만 명 분의 타미플루를 제공키로 함에 따라 북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하고 지원량은 "비상시에 대비한 목적에 충족할 만한 분량"이라고 밝힘.
- 대북 지원용 타미플루는 5월 5일 스위스와 미국, 두바이 등 세 곳에서 선적돼 이미 운송되고 있다고 RFA는 8일 보도

● 北, 최초의 '실내 축구 경기장' 건설 계획(5/5, 연합)

- 북한이 북한 최초의 실내 축구 경기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북한의 박길우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밝힘.
- 박 부위원장은 5일부터 8일까지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리는 제9차 '5.21건축축전' 개막식 참석 후 조선중앙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축전은 각 도, 시, 군 소재지 형성계획(도시계획)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처음 건설되게 되는 실내 축구 경기장, 골조형 무보식 살림집과 양강도 안의 철도역 건물들에 대한 설계형상 모집을 위주로 하면서 과학논문 발표회, 건축설계 프로그램 및 다매체 편집물 창작경연 등으로 진행되게 된다"고 소개

라. 군사 관련

● 北, 砲사격·전투기 출격 2~6배 증가(5/9, 조선일보)

- 북한군이 올 들어 잇단 대남 강경 성명을 발표하며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백령도·연평도 인근 등 서해 북부지역에서 해안포를 비롯한 각종 포 사격과 전투기 훈련 횟수를 지난해에 비해 2~6배가량 늘린 것으로 8일 밝혀짐. 북한 경비정이 2~3월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세 차례나 침범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짐.
- 해병대 등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1월 17일 '전면 대결태세 진입' 성명을 발표한 뒤 서북 지역의 해안과 섬에 배치된 구경 76.2mm 및 130mm 해안포, 152mm 곡사포 등의 실사격 훈련을 강화, 연평도 오른쪽 북쪽의 대수압도 인근에서는 올 들어 현재까지 19회에 걸쳐 1000여 발의 포사격 훈련을 했으며, 포탄이 해상에 떨어지면서 생겨난 대형 물기둥도 관측됐다고 해병대 관계자는 전언, 해병대 관계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해안포 사격훈련이 최대 2배가량 늘었고 대부분 갯도 밖으로 노출돼 있어 언제든지 사격할 수 있는 상태"라고 언급

● 北, 미사일 시험장 건설 서둘러 건설(5/6, 연합)

- 북한이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새 장거리 미사일 시험장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완공 시기가 예상보다 수개월 앞당겨질 전망, 또 북한이 지난 2006년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차량 및 사람이 활발히 움직이는 등 핵실험 준비 징후를 보이고 있어 관계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소식통은 6일 "북한이 최근 동창리 시험장에 장비와 인력을 종전보다 많이 투입해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초 금년 말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수개월 앞당겨질 것 같다"고 언급, 북한은 8년 전 동창리 시험장 건설을 시작해 2008년 9월까지 80%의 공정을 보였음.
- 동창리 시험장은 북한이 지난달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시험장보다 훨씬 크고 현대화된 설비를 갖추고 있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용 우주발사체를 모두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조동혁, 아시아레슬링서 금메달 획득(5/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레슬링 선수들이 최근 태국에서 열린 2009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따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 북한의 조동혁은 자유형 60kg급 경기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양경일은 자유형 55kg급 경기에서, 한금옥은 여자 51kg급 경기에서 각각 2위에 올랐음. 양춘성은 자유형 66kg급 경기에서, 김원모와 김금철은 고전형(그레코로만형) 55kg급과 66kg급 경기에서, 최정복은 여자 55kg급 경기에서 각각 3위를 차지

- **北, 평북 초장리서 석굴암 유적 발굴(5/9, 조선신보)**
 - 평안북도 광산군 초장리에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석굴암 유적이 발굴됐다고 조선신보가 9일 보도
 - 조선신보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석굴암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새로 발굴된 석굴암은 평북 광산군 초장리 소재지에서 동북쪽으로 3km정도 떨어진 통경산 기슭의 야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어 일명 ‘통경산 석굴암’으로 불린다고 설명
 -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장철만 연구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통경산 석굴암은 지금까지 알려진 남반부의 경주 석굴암이나 군위 석굴암에 비해 외부 생김새가 특별히 크고 웅장하며 기묘해 학계의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호주 국제현대미술전에 北작품 첫 전시

- **호주 국제현대미술전에 北작품 첫 전시(5/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미술작품들이 오는 12월 호주에서 열리는 국제 현대 미술전시회에 처음으로 전시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12월 호주 브리스번의 퀸즐랜드 아트 갤러리에서 3년마다 열리는 ‘제6회 아시아·태평양 트리엔날레 컨템포러리 아트’에 처음 참가하며, 현재 전시 작품 선정에 대한 논의가 전시 기획측과 북한 당국간 순조롭게 진행 중임.

- 북한 작품 전시 기획자인 영국출신의 니컬러스 보너는 “북한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등 북한과 인연이 깊은 데다 평소 북한의 현대 미술작품들도 다소 수집한 경험을 살려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며 “이번 전시회에는 남한의 작가도 초청돼 남북한의 현대 미술을 비교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

● **평양시 막걸리·감주 경연(5/6, 조선중앙통신)**

- 평양시 막걸리·감주 경연이 5일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이번 경연에는 선발된 20여개의 단체와 공장, 가정주부가 참가해 쌀, 찹쌀, 강냉이, 밀 막걸리와 쌀과 국수를 씻은 물로 담근 감주 등 100여 가지의 음료를 출품

● **北, 신종플루 방역 강화, 아직 감염자 없어(5/6,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선 아직 인플루엔자A(H1N1,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북한 당국은 “고도의 경계태세를 가지고 방역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북한 국가비상방역위원회의 박명수 부위원장은 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 특히 발생지역들에서 오는 인원들에 대한 검병(檢病)을 국경지역에서부터 철저히 진행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격리시켜 확진될 때까지 의학적 감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
- 북한 보건 당국은 또 TV와 출판물을 통해 각국의 신종 플루 발생경위와 상황 등을 신속히 알리고 신종 플루에 대한 상식과 예방법을 홍보하며 주민들에 대한 검병을 매일 실시하고 있고, 일반 감기와 신종 플루를 감별하기 위한 진단체계를 만들고 “중앙으로부터 하부 말단까지” 전염병 발생 통보체계를 세워놓았다고 박 부위원장은 설명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푸틴, 6자회담으로 복귀 촉구(5/10, 연합뉴스)

-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북한문제에 대해 침착한 대응과 함께 군비경쟁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고 경고, 푸틴 총리는 방일에 앞서 10일 일본 언론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 복귀를 당사국에 촉구
- 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고조되거나 지역 불안정을 촉발, 혹은 군비경쟁으로 치달을 경우 명백한 잘못이 될 것”이라면서 “6자회담 과정에서 이룬 긍정적인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 그는 “우리가 감정이나 절차의 재개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6자회담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보즈워스, 러시아 방문일정 취소(5/8, 미국무부)

-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을 순방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8일 밝힘.
-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즈워스 대표를 제외한 다른 대표단 멤버들은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음.
- 앞서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 대표단이 12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기적인 일”이라면서 “성 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가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밝혔음.

● 보즈워스, 北핵실험시 응분의 대가(5/8, 연합뉴스)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8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 북한과 양자 및 다자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다룰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 6자회담 참가국들을 순방중인 보즈워스 대표는 8일 서울 종로구 도림동 외

- 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북한에 회담복귀를 촉구
- 보즈워스 대표는 “유 장관과 북한과의 협상 및 6자회담을 평가하고 (사태를) 진전시킬 수 있는 가능한 조치들에 대해 유용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우리의 견해는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
 - 이어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과의 대화는 무용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오바마 대통령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왔다”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갖고 있다고 해석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中, 곧 대북특사 파견, 6자회담 시동(5/7, 연합)

- 중국은 5개월간 중단됐던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만간 평양에 ‘장관급’ 특사를 파견,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7일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의 한 고위 외교관은 최근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대북특사를 파견할 계획임을 밝힘.
- 중국은 북한이 4월 5일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이후 한 달 동안의 냉각기가 지남에 따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시동을 걸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소개
- 중국은 대북 특사로 정식 외교부 라인보다는 당의 중앙대외연락부 채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언, 이와 관련, 지난 1월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던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이 대북 특사로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미국측의 성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한국과 미국측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소개
- 한편 중국은 일본이 6자회담에서 본 주제가 아닌 자국민 피랍 문제 등을 자꾸 거론해 북한측을 자극함으로써 회담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내심 불만인 것으로 알려짐.

나. 북·미 관계

● 미국무부, 北과 양자대화 용의(5/9,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8일 다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6자회담 참가국 순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힘.
- 우드 부대변인은 “6자회담이 여전히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중심에 있지만 다자협상 과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데 서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 그는 “다자회담을 강화한다는 것이 북미 양자대화의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언급
- 우드 부대변인은 6자회담이 초기 이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회담 복귀를 계속해서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 북미 양자대화를 시도하겠지만 6자회담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강력히 시사
- 그는 “중요한 것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이며 “북한에 협상복귀가 북한에 도움이 되며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계속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

● 北에 갈 계획없다, 딱 자른 클린턴(5/9, 조선일보)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련 질문을 받았음. 클린턴 장관은 이에 대해 “그것은 세르게이(라브로프 장관의 이름)가 북한에서 한 일이다. 그는 나의 (평양) 출장을 추진했지만 나는 북한에 갈 계획이 없다”고 답변, 클린턴 장관은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이 지역에 파견 중”이라며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함.
- 한편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7일 대북 에너지 지원용으로 책정된 예산 9500만 달러와 핵 시설 불능화에 필요한 3450만 달러 등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 세출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미국 여기자들을 억류 중인 것을 이유로 이를 삭감하면

서,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고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면 삭감한 예산을 복원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힘.

다. 북·중 관계

● 中대표단, 우의탑 현화(5/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중조우호협회 대표단과 중국 지방정부 대표단, 중국 길림성 인민정부 대표단이 10일 우의탑에 현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중조우호협회 대표단은 해당부문 일꾼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

라. 기타 외교 관계

● 北·페루, 외무장관 회담(5/10, 조선중앙방송)

- 페루를 방문 중인 북한 정부 대표단 단장인 박의춘 외무상이 7일 리마에서 호세 안토니오 가르시아 페루 외무장관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0일 보도
- 양측은 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문제와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방송은 보도
- 북측에서 대표단 관계자와 페루 주재 북한대사가, 페루측에서 외무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회담에 참가했다고 방송은 소개

● 박의춘 외무상, 페루 대통령 예방(5/8, 조선중앙방송)

- 페루를 방문 중인 박의춘 외무상이 6일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고 조선중앙방송이 8일 보도

● 北·쿠바 외교장관회담, 협조합의서 체결(5/6, 조선중앙통신)

- 비동맹운동(NAM) 조정위원회 각료급회의 참석을 위해 쿠바를 방문한 박의춘 외무상이 4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상호 관심사가 되는

- 국제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양측은 회담을 마친 뒤 양측 ‘외무성 사이의 협조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통신은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 **北김영남, 남아공·짐바브웨 순방 출발(5/6,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짐바브웨를 순방하기 위해 6일 특별기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대표단에는 리용남 무역상과 김형준 외무성 부상도 포함

3) 대남정세

● **개성공단, 보건위생교육 실시(5/8, 연합)**

-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공단 입주기업 법인장 10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위생 및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힘. 6일 진행된 보건위생 교육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사무관이 참석, 식품을 매개로 한 질환의 증상과 예방법, 공단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공중위생 관리 강화 방안 등을 강의했다고 관리위는 소개
- 이 교육은 4월 개성공단 한 업체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대거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복통을 앓은 이후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정부 당국자는 소개

● **정부, 對北지원단체 월드비전 방북승인(5/8, 연합)**

- 정부가 민간단체 방북을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인 월드비전이 정부 승인을 받아 9~12일 평양을 방문
- 통일부 당국자는 8일 “월드비전 대표단 4명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고 소개한 뒤 “정부는 민간단체의 방북과 관련, 사안의 시급성, 방문 목적, 대상 등을 고려,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 월드비전은 평양과 평안북도 정주, 황해남도 배천 등지에서 씨감자 사업장 모니터링 등을 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짐.

● 北, 개성공단 2차 접촉 빨리 응하라(5/6, 연합)

-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에서의 2차 남북 접촉을 재촉하는 내용의 문건을 우리 측에 보내온 것으로 6일 확인됨.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 개성공단 관리 주체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4일쯤 2차 남북 접촉에 관한 석 장의 문건을 보내왔다”며 “남측이 빨리 접촉에 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란 식의 내용”이라고 소개
- 북한은 4월 21일 1차 남북 접촉 때 개성공단의 북측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2차 접촉 날짜는 남한이 가급적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했었음.
- 통일부 관계자는 “2차 접촉 날짜와 의제 등을 확정해 북한에 통보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2차 접촉에 관한 남북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대북 소식통은 “공단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들이 6일 개성에 갔지만 북측 대표들이 평양에 있어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소개
- 정부는 이날로 개성공단에 38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44)씨 문제를 2차 접촉 때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2차 접촉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北, 南기업에 '쌀 사 달라' 요청(5/6, 연합)

- 최근 북한이 대북 사업을 하는 남한 기업들에 “쌀을 사 달라”고 부탁할 만큼 식량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6일 알려짐.
-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 2~3곳이 최근 ‘돈을 줄 테니 쌀 좀 사달라’는 북측 부탁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 그러나 북한이 지불하겠다는 액수가 국제 쌀 시세(톤당 1100달러)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실제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중국에서 식량을 살 경우 국제 시세의 11~15% 가격만 지불하고 있음. 당국자는 “북한이 러시아 쌀을 사달라고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미질(米質)을 요구한다고 한다. 이는 꼭 쌀을 먹어야 할 계층에서 못 먹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설명
-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 소식지에서 “4월 들어 평양에서도 식량 배급이 제대로 안 된다”고 했고 대북 소식통은 “군대와 당 간부까지 굶고 있다는 소문이 많다”고 소개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작년 11월~올해

10월 178만6000 톤의 식량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할 상황인데도 (지난 3월) 미국의 식량 지원을 거부했다”며 “4월부터 식량 배급이 절반으로 줄고 있다”고 밝혔다.

05.11-05.17

5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북·러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美전문가들이 보는 北 김정운 후계 구도(5/13,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북한전문가들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운의 후계자 내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실제 김정운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느냐는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
 - 방송은 “미국 전문가들은 과거에 정운씨가 나이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탓에 그의 승계 문제는 불투명하다고 무시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며 켄 코스 해군분석센터연구소 해외지도자 연구이사 등의 견해를 소개
 -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도 코스 이사의 진단에 동의하면서 ‘150일 전투’와 5.1절 기념행사 등은 “모두 김정운이 후계자로서 업적 쌓기에 나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
 - 이들은 그러나 앞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건재 기간과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향후 역할을 꼽음.
- 北, 보안기구 대상 김정운 후계 알려(5/12, NK지식인연대 홈페이지)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삼남 김정운(25)에 대한 특별강연회가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간부들을 대상으로 열렸다고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1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
 - 이 단체는 “현지 통신원의 정보”를 인용해 4월18일 량강도 보안국(도 경찰 총국) 회의실에서 군, 구역의 보안서장들과 보위부장들을 대상으로 열린 강연회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영명하신 김정운 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이뤄졌다고 소개
 - 이 단체 통신원은 “특별강연회 참가자들은 도 보안국장이 강연회의 제목을 발표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만세를 불렀다”고 전하고 강연자는 김정운의 “혁명적” 가계와 그의 학력과 “혁명활동 약력”을 소개했다고

전언, 강연자는 또 “김정은 대장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장군님(김정일)의 선군영도를 보좌하고 있다. 장군님의 탁월한 영군술을 높은 경지에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계시는 또 한분의 선군영장을 모신 것은 대대로 수령 복, 장군 복을 지닌 우리 민족의 긍지이고 자랑이다”고 말했다고 통신원은 소개

● 北, 김정은 후계 업적쌓기 본격 시동(5/11,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삼남 김정은(25)이 새로 시작된 ‘150일 전투’를 주도하는 등 후계자로서 업적쌓기에 본격 나선 것으로 알려짐.
-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5월 1월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관찰을 포함해 김 위원장의 각종 공개활동에 빠짐없이 수행, 후계자로서 “수령을 보좌하고 받드는 혁명 활동” 행보를 이어가면서 미래에 내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업적쌓기’에 박차
- 정통한 소식통들은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을 위해 이달부터 시작한 새로운 속도전인 ‘150일전투’와 전례없이 성대하게 치른 5.1절(국제노동절) 기념행사와 고 김일성 주석의 97회 생일기념 ‘축포야회’가 김정은의 ‘작품’이라고 소개

나. 정치 관련

● 對南 교류협력 총괄 최승철 처형설(5/19, 연합)

- 남한의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의 대남사업을 사실상 총괄했던 최승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 수석 부부장이 ‘대남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작년에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짐. 대북 소식통은 18일 “표면적인 이유는 남북교류 과정상의 개인 비리지만 실제로는 남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오판’과 남측의 햇볕정책이 북한사회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북한 당국이) 책임을 묻은 것”이라고 설명
- 이 소식통은 “최 부부장은 내부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의 남한과 관계 진전을 강력히 밀어붙였고 10.4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일선에서 지휘했으나 남한의 정권교체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정책판단 실

책 등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 희생양이 돼버렸다”고 해석

- 다른 대북 소식통도 최 부부장이 처형당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실제 북한이 최 부부장에게 씌운 가장 큰 죄목은 북한 사회 전반에 대남 의존도를 키우고 대남 환상을 심어준 것”이라고 설명하고 “북한 내부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대남분야 종사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기도 하다”고 해석
- 남한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북한에서 그의 모습은 사라졌으며, 황해도 의 한 ‘닭공장(대형 양계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난 1월 초 남쪽에 전해지기도 했으나 그때는 이미 처형당한 뒤였던 것으로 이번에 밝혀짐.

● 北, 5·18맞아 반미, 반정부 투쟁 선동(5/18,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18일 ‘반미, 반파쇼 투쟁사에 아로새겨진 영웅적 항쟁’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의 민주화,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반미, 반파쇼 항쟁”인데 “지금도 외세와 매국노들에 의해” 남한 주민들이 “민주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미 자주화 투쟁”을 벌이고 “반역 무리들의 외세의존 책동”을 분쇄해야 한다고 선동
- 우리민족끼리도 ‘광주의 피의 교훈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광주 학살만행의 장본인’이라는 등의 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남한 주민들은 미국이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임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반미 투쟁”을 부추김.
- 평양방송은 5.18민주화운동이 “좌절”됐지만 “미제의 식민지 파쇼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남한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크게 고무 추동한 인민적 대중봉기”였다고 소개

● 北, 남남갈등 적극 조장(5/17, 조선일보)

- 북한이 최근 대남 관련 기구와 담당자들에게 6·15 및 10·4 남북공동선언 수용을 둘러싼 ‘남남(南南) 갈등’을 적극 조장토록 지시했다고 베이징의 정통한 북한 소식통이 17일 밝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탈북한 한 노동당 간부는 “북한(대남) 당국으로부터 ‘남한 내부의’ 혁명역량을 보유한 민주세력과 6·15 및 10·4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을 지원해 북남관계를 개선시

- 키는 것을 대중투쟁의 목표로 삼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
- 이 간부는 특히 "북한 당국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며 남한의 총선·대선이 있는 2012년에 (남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통일역량을 강화해 나가라'고도 지시했다"고 소개
-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6월 15~10월 4일까지 '민족공동선언 이행 운동' 등 다양한 통일운동을 남과 북, 해외에서 동시에 추진하되 "남한에서는 6·15 선언을 지지하는 정당·단체·인사들과 연계해 반(反)이명박정권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소개

● 北, 美, 대화 원하면 적대정책 바꿔야(5/17,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7일 '미국의 삼살개 노릇이 그리도 좋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시 "응분의 대가"를 언급하는데 대해 "미국의 손탁(손아귀)에 쥐어사는 리명박 패당이 횡설수설한다고 해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단 결심하고 선포한 것을 변경할 우리 공화국(북한)이 아니다"고 주장
- 신문은 "미국의 현 행정부는 이처럼 대화의 간판을 내걸고 그 막 뒤에서 우리나라를 힘으로 압살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고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됨이 없이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이어 "미국이 진심으로 조미대화를 원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

● 北, 李국방장관 발언에 파멸·죽음으로 응전(5/16, 조선평화옹호전국위원회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방송)

- 북한 조선평화옹호전국위원회는 최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제3야전군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전해야 한다고 장병들을 독려한 것과 관련,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맹비난, 위원회는 "얼마 전 국방부 장관이 있지도 않은 우리측의 도발에 대해 거론하면서 당장 전투가 일어나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고 비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위원회 대변인은 “리명박정부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가 극도로 침체한 때에 호전광들이 또 다시 우리를 겨냥해 늘어놓은 전쟁폭언과 무모한 불장난 소동은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려는 지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책동”이라고 규정하고 “리명박정부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거래의 지향에 공공연히 역행해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기 위해 발악한다면 돌아갈 것은 파멸과 죽음 뿐”이라며 “호전광들은 동족대결에 환장한 나머지 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날뛰고 있다”고 경고

● 北, 제재발동은 선전포고(5/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자주적 대를 틀어쥐고 대조선 제재 모략책동을 제압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발동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그에 강경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주장
- 신문은 유엔 안보리의 사죄를 재차 요구하면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공화국(북한)은 이미 선언한 대로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포함한 추가적인 자위적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국제상품전람회 폐막, 대부분 중국업체(5/15, 조선중앙통신; 5/16, 조선신보)

- 평양에서 5월 11일 개막한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14일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통신은 이 전람회에 참가한 업체들 사이에 “적극적인 경제거래 활동이 진행”됐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밝히지 않음.
- 전람회에는 중국, 러시아, 독일, 말레이시아, 시리아, 스웨덴,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의 200여개 회사와 단체들이 참가했으며, 공작기계, 전기 및 전자 설비, 운전기재,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일용품, 식료품 등 1만5천700여종 6만5천700여점의 상품이 전시됐다고 통신은 소개

- 중국산 냉·온풍기와 호주산 쇠고기, 북한산 수산물가공품 등이 인기를 끌었다고 조선신보가 16일 보도, 북한 업체 중에서 처음 전람회에 참가한 수채봉수출수산합작회사는 동해산 수산물 가공제품들을 출품해 호평을 받았으며 “제품거래를 요구하는 회사들의 상담, 면담 요청이 설 새 없이 들어왔다”고 동기명(42) 사장의 말을 인용해 신문은 보도
- 이번 전람회에는 북한의 60개 회사와 해외 17개국의 167개 회사가 참여해 모두 6만5천여점의 상품을 전시했으며 ‘북중친선의 해’인 올해 전람회 참가 중국 기업만 100개가 넘어 따로 중국관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짐.
- 오는 9월2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가을철상품전람회는 봄철 전람회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별써 이집트의 오라스콤 등 대기업들이 참가 신청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北, 흡원료 흡음판 공연장에 설치(5/15, 조선신보)

- 북한의 정향기술교류사가 흡을 원료로 한 흡음판을 개발, 대형 공연장에 설치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5일 소개
- 2007년 3월 설립된 전자재 전문 정향기술교류사의 칠감, 방수재, 보온재, 흡음판 등 전자재들은 평양대극장, 동평양대극장, 대동문영화관과 옥류관, 청류관 등 식당의 개축공사에도 사용되었음. 북한의 ‘노력영웅’ 겸 ‘인민과학자’인 정종근(65) 사장은 “회사는 새 제품 개발 연구의 중심에 원료의 국산화, 최고의 질적 담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며 “회사의 제품들이 해외에서도 호평 받으리라 믿고 있다”고 답변

● 北, 150일전투 독려 경제선동 활동 강화(5/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지금 조선(북한)에서 150일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는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기 위한 경제선동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중앙예술단체인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국립연극단 등이 ‘중앙예술단체 예술인경제선동대’를 구성해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에서 생산 독려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
- 또 만수대예술단, 영화 및 방송음악단을 비롯한 예술단체 예술인들은 금성 트랙터(트랙터)공장과 2.8비날론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 비료연합기업소 등을 돌면서 현장 경제선동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

- 北, 70일전투처럼 150일전투 달성 촉구(5/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150일 전투에서 새로운 대고조 진군속도를 창조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새로 시작한 속도전인 '150일 전투'에서 지난 1970년대 '70일 전투' 등을 계승해 "새로운 대고조 진군 속도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새로운 대고조 진군 속도를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지휘성원 들인 우리 일군(간부)들이 당의 기초축성 시기 일군들처럼 150일 전투를 본 때있게 조직지휘하여야 한다"며 "당의 기초축성 시기 일군들은 70일 전투 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고 강조

- 北, 올해 첫 벼 모내기(5/13,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증산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평안남 도의 평원군 원화협동농장과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에서 올해 첫 벼 모내가 시작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

- 北, 모내기 사업 총동원령(5/11,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11일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올해 모내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온 나라가 모내기 전투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야 한다"며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노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하고 농사일에서는 네 일, 내 일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신문은 "농사는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이라며 "전력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의 기관, 기업소들과 일꾼들은 농사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모내기 전투에 필요한 전력과 영농물자를 최우선으로 무조건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과학기술자들이 발전에 큰 몫 수행(5/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의 발사를 비롯한 북한 과학기술자들의 성과를 들며 "해방 후 빈터 우(위)에서 출발한 조선(북한)의 과학기술은 오늘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3대 기둥의 하

나”라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

- 통신은 북한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100% 자체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가 지금 자기 궤도에서 정상가동을 하고 있다”고 거듭 ‘정상가동’을 주장하며 “이것은 우리나라 우주응용과학기술의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라고 주장

● **亞역도선수권서 금1, 은8, 동8 획득(5/17, 조선중앙통신)**

- 제21차 아시아 여자역도선수권대회와 제40차 아시아남자역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금1, 은8, 동8개의 메달을 따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58kg급의 박현숙은 인상과 용상, 종합 등 3개의 은메달을 획득

● **北, 해외 신종플루 지속에 방역 강화(5/17,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7일 “국가비상방역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돌림감기 바이러스가 아직 우리나라에 전파되지 않은 조건에서 이 바이러스의 침습을 막기 위한 사업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
- 방송은 “비행장, 무역항 등에 측정장치를 설치해 여행자들과 식료품들에 대한 검역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격리시켜 확진될 때까지 의학적 감시를 해서 이 병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
- 평양방송도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갖추고 과학연구를 심화시키며 돼지를 기르는 단위들에서 수의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

● **北의료진, 재미동포 의사들과 공동수술(5/12, 조선신보)**

- 제11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4~5일)에 참가한 재미교포 의학자들이 북한 의료진과 공동 수술을 진행했다고 조선신보가 12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재미조선인의학자대표단 관계자들은 6-8일 평양의 학대학병원에서 기술협의회와 공동 수술을 진행
- 신문은 이어 북한 의사들과 재미교포 의학자들이 여러가지 기술 문제와 북한의 의학발전 문제들에 대해 협의했다고 소개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美, 北 6자회담 복귀가 목표(5/12,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12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문제 검토와 관련,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결과적으로 북한 방문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그 목표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켈리 대변인은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우리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라면 북한과 직접 대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면서 방북 검토의 목표가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앞서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도쿄에서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현지 기자들과 만나 “방북이 미국에 의해 완전히 좌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수 주간에 걸쳐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보즈워스, 6자회담 위기상황 아니다(5/12,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2일 북한이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핵무장 위협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6자회담이 위기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라고 언급, 6자회담 참가국들을 순방중인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제외한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 모두는 현 상황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주장, 북한이 향후 실시하겠다고 위협하는 핵실험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만이 현재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다”라며 미국은 6자회담 틀 내의 대북 직접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

나. 북·미 관계

● 美, 北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우려 또 제기(5/18, 연합)

- 미국 정부 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최근 다시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 18일 미 의회에 따르면 ODNI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량파괴무기 및 첨단무기와 관련된 기술 획득 보고서 (Unclassified Report to Congress on the Acquisition of Technology Relating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 Covering 1 January to 31 December 2008)’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론
- 보고서는 2008년 한 해 동안 북한의 핵관련 활동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의 일부를 불능화했지만, 우리는 적어도 과거에 북한이 우라늄농축 능력을 추구했다고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밝힘.

● 스웨덴 대사, 北억류 美여기자들 면담(5/15, 미국무부)

-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15일 북한에 억류중인 2명의 미국 여기자들을 만났다고 미 국무부가 소개,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미국을 대신해 15일 억류중인 2명의 미국인 기자들을 만났다”고 전언, 그는 “스웨덴 대사는 앞서 3월 30일 이들을 만난 바 있다”고 말했다.
- 북한이 이들 2명의 여기자 면담을 허용한 것은 3월 30일 이후 거의 7주 만에 처음임. 북한은 3월 말 면담 후 그동안 거듭된 미국과 스웨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허용하지 않았음.

● 美, 北, 개성공단 경솔행동 도움 안돼(5/15, 미국무부)

- 미국은 15일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기존 계약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난,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북한의 이런 경솔한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나쁜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고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고 “미국은 모든 당사국들

의 이익인 남북한 간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 北 억류 美여기자 1명 건강 안 좋아(5/1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중 1명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 방송은 “두 명의 여기자 중 한명이 지병으로 의약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의약품을 전달했지만 의약품이 여기자에게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

● 美, 北 여기자 재판 우려(5/14, 미국무부)

- 미 국무부는 14일 북한이 미국적 여기자 2명에 대해 재판을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미국적 기자들의 신변을 걱정하고 있으며, 그들이 미국에 있는 가족 품에 조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여기자들의 안전과 석방을 위해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그들의 석방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밝힘.

- 하지만 켈리 대변인은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고위급 인사를 북한에 파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 시점에서 누구를 평양에 보내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

● 北, 美여기자들 6월4일 재판(5/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해당기관의 기소에 따라 6월 4일 미국기자들을 재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적용 혐의나 두 여기자의 상태 등 더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음.

● 北, 교향악단 미국공연 계속 추진 요청(5/12,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 뉴욕의 북한대표부 관계자들이 최근 프레드 캐리어 코리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을 계속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캐리어 부회장이 1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힘.

- 캐리어 부회장은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이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반발해 또 다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는 등 정치적 기류가 악화됐다”며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방문은 악단 관계자 뿐 아니라 (북한) 정부 고위 관리들의 방문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 등 여러 면에서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

● 美의회, 北우라늄농축 지원금지법 발의(5/12, 연합)

- 북한과 이란, 시리아로에 대한 우라늄 농축 시설, 기술 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11일 확인됨.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소위 위원장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5월 6일 ‘2009 국제 우라늄 추출 및 가공통제법안’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

● 美국방장관, 北, 전쟁간주 위협은 수사(5/11, 미국방부)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남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방침을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위협발언은 수사에 불과하다고 밝힘. 게이츠 장관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최근 몇 주에 걸쳐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수사들에 대해 솔직히 놀랍고 혼란스럽다”면서 “북한은 이런 식의 수사를 통해 전보다 더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해왔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PSI 참여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내가 생각하기로는 수사로 본다”고 언급

● 北, 유엔서 美의 대북방송 비난(5/11, 조선중앙방송)

- 유엔 본부에서 5월 4일 열린 ‘유엔 공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새롭고 공정한 국제 공보통신 질서” 수립을 주장하면서 특히 미국이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북한의 체제전복을 사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보도

- 북한 대표는 이 회의에서 “오늘 일부 나라들이 공보기술과 수단을 독점하고 다른 나라들에 저들의 가치관과 생활풍조를 전파시킬 뿐 아니라 왜곡된 정보를 유포시키면서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고 체제 전복을 사촉(사주)”하

고 있다면서 “우리 공화국(북한)과 아시아 나라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그 대표적 실례”라고 주장

● **조선신보, 美에 북미대결관계 청산의지 입증 요구(5/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1일 ‘오바마 정권 대조선 외교의 첫 단추’ 제목의 기사에서 오바마 미 행정부에 대해 “대조선(대북) 외교의 새 접근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넓은 대결관계를 청산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조선측이 인정할 조건에서만” 양자든 다자든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6자회담 등 “기존의 외교틀이 허물어진 조건”에서 대화 재개를 위해선 “우선 외교협상의 동기를 확인하고 그 목적을 정해야 한다”며 “더우기 조미(북미)와 같은 교전 쌍방의 경우, 무엇을 논의하고 무슨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서로 모른 채 마주앉을 수 없다”고 주장

다. 북·중 관계

● **北·中 친선도시대회 개최(5/1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과 중국은 12일 평양에서 ‘조(북)·중 친선도시대회’를 열고 교류와 협조,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양국 도시들 간의 결연을 늘려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대회에서 “친선 도, 성, 시들 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 여러 도시들이 친선관계를 맺고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
- 보도문은 “친선도시들이 앞으로도 호혜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뜻 깊은 ‘조·중 친선의 해’를 빛내는데 적극 이바지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도문은 강조
- 대회에는 전영진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와 조선 도시연맹 대표들, 중국의 도시들과 친선관계를 맺고 있는 황해남도, 강원도, 평안남도, 라선·남포·함흥·청진시와 평양시 만경대구역 대표들, 방북한 중·조 우호협회 대표단과 중국 장쑤·산둥·쓰촨성, 상하이·지린·훙춘·창춘시 대표들과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 대사가 참가

● 中 엔벤자치주 안투현, 북한 변경관광 허용(5/12, 흑룡강신문)

-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의 단둥과 투먼에 이어 엔벤자치주 안투현도 북한 변경관광이 허용되었음. 중국 당국은 6월부터 안투현과 북한 삼지연을 연결하는 쌍목봉 관광통상구를 개통, 중국인들이 북한 변경 관광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흑룡강신문이 12일 보도
- 안투현은 창바이산(백두산) 주봉 및 천지와 20km 거리에 있고 삼지연과도 불과 35km 떨어져 있으며 쌍목봉 통로는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 통로로서 이번 변경관광 허용으로 중국 관광객들은 비자 발급 없이도 북한쪽 백두산을 관광할 수 있게 됨.

라. 북·일 관계

● 北, 日 아소 총리 비난(5/14, 노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은 14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이달 초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체코와 독일을 방문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 문제 등을 거론한 데 대해 “정치시녀의 구걸청탁” 등으로 비난
- 노동신문은 ‘창피를 모르는 정치시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아소 총리의 “이번 유럽 행각은 구걸행각, 청탁외교”라며 그가 “지금처럼 앞뒤를 가려 보지 못하고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에 환장하여 돌아치다가는 (단명한 전 총리인) 아베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 민주조선도 ‘만화에 호가의 망측한 추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아베의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아소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日방위성, 北 미사일 장거리화 진전(5/14, 교도통신)

-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미사일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검증”이라고 평가하면서 사거리 연장이 이뤄졌다고 분석
- 14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사거리는 3천km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의 명중 정밀도 향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 그러나 이 로켓이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림.
- 자료에 따르면 방위성은 북한이 지난달 5일 오전 11시30분 액체연료를 사

용해 발사한 로켓은 대포동 2호 또는 그 개량형으로 보고 있으며 외견상 3단식으로 보이지만 3단의 경우 추진장치가 장착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음.

- 1단계 추진체는 오전 11시37분께 아키타(秋田)현 앞 300km 해상에 낙하했고, 2단계 이후는 일본 도후쿠(東北) 지역 상공을 통과해 11시46분께 북한의 발사 시설에서 3천km 이상 떨어진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방위성은 분석, 미국 정부는 2단계와 3단계가 분리되었다고 분석했지만 일본 방위성 보고서는 일본이 확보한 자료로는 분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

마. 북·러 관계

● 러 맥주회사, 北대동강맥주와 협력 강화(5/17, 조선신보)

- 러시아의 대표적인 맥주회사인 발티카의 올레그 알료힌 중국 총괄사장은 “앞으로 발티카 맥주회사에 관심을 가지는 조선(북한)측 맥주공장들과 협조를 깊이 할 것”이라며 “특히 이미 전부터 협조경험이 있는 대동강맥주공장과 적극적인 협력을 더 활성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17일 보도
- 5월 14일 끝난 제12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발티카 맥주회사 대표단의 단장으로 참가했던 알료힌 사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발티카 맥주회사는 근면하고 성실한 조선의 벗들과 친선과 우정, 호상협조의 관계가 더욱 더 발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
-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대동강맥주공장의 기술자들은 지난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두 차례 발티카 공장에서 맥주제조 기술을 연수, 발티카측은 2003년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와 모스크바에서 북한 무역성과 발티카 맥주 공급문제를 논의해 2006년 대북 수출에 합의했으며 2007년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

바. 기타 외교 관계

● 北·이란 친선주간 행사 개최(5/14, 조선중앙통신)

- 고 김일성 주석과 이란의 이슬람교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만남 20주년을 기념하는 ‘조선(북한)·이란 친선주간’에 즈음해 기념집회와 영화

감상회가 14일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친선주간에 즈음해 머르테자 머로디온 북한주재 이란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서 기념식수를 진행

● 北보안성, 짐바브웨 내무부와 협력합의서 조인(5/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보안성(한국의 경찰청)과 짐바브웨 내무부가 14일 평양 만수대의 사당에서 양측 사이의 협조합의서에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그러나 통신은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조인식에서는 북측의 주상성 인민보안상과 짐바브웨의 캄보 캠프벨 두기쉬모하디 내무장관이 서명

● 北학생들, 영어 배우려 캐나다인 가정서 홈스테이(5/14, 자유아시아방송)

- 영어를 배우기 위해 캐나다에 파견된 북한 학생들이 캐나다인 가정에서 기숙하면서 캐나다 교육기관이 마련한 영어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캐나다 민간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4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의 민간단체 ELIC(English language Institute in China)는 4월말 캐나다 인으로 구성된 5~6명의 영어 원어민 교사단을 북한에 파견, 3주 일정으로 평양에 있는 대학 교수와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법과 영어회화를 가르치도록 했음.
- 대북 지원을 하는 미국의 한 단체도 올해부터 북한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확대, “평양의 학생들에게 실용영어를 교육하기 위해 파견 교사를 증원하고 교육 기간도 연장한다”고 말했으나 단체 이름을 밝히기는 거부함.
- 영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영어 원어민 교사 파견지원 사업을 당초 지난해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말 북한측의 요청에 따라 2010년까지 연장기로 하고 파견 교사의 수도 늘렸음.
- 또 캐나다의 비정부기구 게인(GAIN:Global Aid Network)도 지난 2005년 이후 중단됐던 영어 원어민 교사 파견사업을 북측과 합의에 따라 올해 다시 시작, 평양금성학원의 컴퓨터 수재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을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북한에 보낼 예정

- 양형섭, 미얀마대표단과 담화(5/13, 조선중앙통신)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우 마웅 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얀마 외무부 대표단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미얀마 대표단장은 양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

- 北·브라질 외무장관 회담 (5/13, 연합)
 - 북한 박의춘 외무상과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이 브라질리아에서 회담을 갖고 통상 확대를 포함한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했다고 일간 폴라 데 상파울루 등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 박 외무상은 11일 브라질리아에서 아모링 장관과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통상 확대 외에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및 핵개발 계획, 인권 문제 등도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소개
 - 박 외무상의 방문은 브라질이 지난해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한 뒤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평양 주재 브라질 대사관은 오는 29일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초대 대사에는 아르날도 카힐료가 임명됐음.

- 北여자축구 대표선수 2명, 독일서 훈련중(5/12,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
 - 북한 청소년 여자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 2명이 독일의 한 여자 프로축구팀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12일 보도, 신문은 15세인 북한의 전명화와 김은향 선수가 5월 8일 독일에 도착한 뒤 1주일 일정으로 여자프로축구 1부 리그 'FFC 투르빈네 포츠담'에서 훈련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외국에서 훈련하는 북한 최초의 최고 축구선수들"이라고 밝힘.

- 北김영남,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5/11, 조선중앙통신; 5/16, 조선중앙방송)
 -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0일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 양측은 남아공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시킬 데 대하여서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싱가포르 방문

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6일 보도, 리룡남 무역상, 김형준 외무성 부상 등도 함께 귀국, 공항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대표단을 맞이함.

3 대남정세

● 유모씨, 개성 자남산여관에 억류(5/18, 연합)

-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가 개성시내 자남산여관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짐. 대북소식통은 “지난 16일 확인한 결과 유 씨가 개성공단 인근 자남산여관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초 억류 장소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건물에서 언제 옮겨졌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소개
- 이와 관련,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 씨의 신상에 대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나 현대아산을 통해 정부가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개성인근 지역에 있고 건강이나 안전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힘.

● 남북 18일 회담 제의, 北 응답 없어 무산(5/17, 통일부)

- 정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북측에 제의한 18일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보임.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오늘 밤 10시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서 “18일 회담이 열리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힘.

● 인천서 北에 보낼 우유·분유 출항식 개최(5/15, 연합)

- 남북평화재단과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는 15일 인천항 1부두에서 출항식을 갖고 우유와 분유를 실은 배를 북한으로 보냄. 이날 인천~남포간 정기선에 실어 보낸 우유 2만팩(개당 200ml)과 분유 500캔(캔당 800g)은 16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앞으로 도착할 예정

● 北, “새 법규 못받겠으면 나가도 무방”(5/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5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 임대값과 토지 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힘.

- 통지문은 이어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지문은 이러한 조치들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 통지문은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하고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제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변져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
- 우리 정부가 제2차 남북 개성접촉의 의제로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씨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북측 통지문은 “부당한 문제”라거나 “의제 밖의 문제”라고 거부 입장을 밝힘. 통지문은 유씨에 대해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유씨 문제를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하는 것은 “실무접촉을 또 하나의 북남대결장으로 만들어 공업지구 사업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 행위”라고 주장
- 통지문은 “남측이 기어이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고 대결적 자세로 대답해 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이미 예고한 대로 협상을 통하여 논의하려던 입장을 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

● **아남제약, 北임산부·아동용 의약품 6억원 기증(5/13, 연합뉴스)**

- 아남제약(대표 백승흠, 백경흠)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6억1천만원어치의 항생제 등 의약품을 대북지원 단체인 민족사랑나눔(이사장 림인식 목사)에 기증, 민족사랑나눔측은 이들 의약품을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임산부와 어린이들에게 보낼 예정

05.18-05.24

5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일 관계
- 다.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함북 연사 '혁명전적지' 시찰(5/2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연사지구 혁명전적지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일제 말기 자신의 부모인 김일성, 김정숙이 두 차례 활동했다는 사지봉혁명전적지 등과 연사혁명사적관을 둘러본 뒤 “수령님(김일성)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이고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심화될수록 혁명전통교양은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며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혁명전통교양을 일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 홍석형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당비서, 장성택·박남기 당 부장, 리제강·리재일 당 1부부장이 김 위원장을 동행했고, 현지에서 박수길 함경북도 인민위원장, 박동일 연사군 당 책임비서 등이 김 위원장을 영접

● 김정일, 공군부대 시찰(5/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군 제814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김위원장은 부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종사들의 비행훈련을 참관한 뒤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말했으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밝히지 않음. 김위원장은 시찰을 마친 뒤 부대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했으며 이번 시찰에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현철해 리명수 대장 등이 수행

● 김정일, 함남 검덕광산 현지지도(5/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단천시의 검덕지구 광산들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김 위원장은 먼저 대흥청년영웅광산을 방문해 광산마을을 둘러봤으며, 북한 최대의 납·아연 생산지인 검덕광업연합기업소를 시찰하고 기술개건(改建) 상황과 생산 실태를 파악하고 룡양광산에서는 6월 5일 직접 갱에 들어가 채굴상황을 살펴봤다고 통신은 보도, 김 위

원장의 현지도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등이 수행

나. 정치 관련

● 北,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보도(5/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전 남조선대통령 노무현 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도에 의하면 전 남조선 대통령 노무현이 5월 23일 오전에 사망했다고 한다"며 "내외신들은 그의 사망동기를 검찰의 압박수사에 의한 심리적 부담과 연관시켜 보도하고 있다"고만 논평없이 짚막하게 보도

● 北, 개성 실무접촉 결렬 위기는 南탓(5/23, 통일신보; 5/24, 우리민족끼리)

- 통일신보는 최근호(5.23)에서 개성공단의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 재검토, 재협상"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결렬의 위기'에 직면한 것은 남측 보수당국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

- 24일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신문은 '대결분자들의 비열한 여론 날조행위'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측이 "현 북남관계와 남측기업들의 형편을 고려해 현정세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재협상의 기회를 남측에 제공"했으나 남측이 북한에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등 '의제 밖의 문제'로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해 왔다고 비난

- 신문은 남측의 유씨 문제 제기는 개성공단 사업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라며 "개성공업지구문제를 대화와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수 없게 만든 장본인은 남조선보수당국"로 이들이 "아무리 오그랑수(속임수)를 써도 개성공업지구 계약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

● 민주조선, 南, 개성공단 폐쇄 속셈 비난(5/23,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은 23일 '검은 속심이 깔린 여론조작놀음'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북측의 개성공단관련 조치들에 대해 남측이 "시비하는 여론조작 놀음을 매일같이 벌이고" 있다며 이는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기 위한

명분쌓기”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 신문은 “그러나 리명박 패당과 보수세력이 6.15(공동선언)의 산물인 북남 협력 사업들을 차단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개성공업지구까지 완전히 폐쇄해버린다면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
- 신문은 개성공단은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므로 북한이 관련 법규를 일방적으로 개정해 집행해도 되지만 “남측에 재협상 기회”를 주었는데 남측이 실무접촉에 응하지 않고 “반공화국 캠페니아(반북 캠페인) 소동을 벌이는 데만 급급”해 “협상을 통해 논의하려던 입장을 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지난 15일 공단관련 법규와 계약들에 대해 무효화를 선언하고 새로운 법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통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

● 北단체, 南노동계 반정부 투쟁 선동(5/23, 조선중앙방송: 직총중앙위 대변인 담화)

-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는 남한 정부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이 “정권 타도 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3일 보도
- 직총 중앙위 대변인은 22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명박 정부가 화물연대 광주 지부 제1지회장인 고(故) 박종태 씨를 추모하는 노동자들의 집회를 “불법 폭력시위”, “법질서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규정했다고 비난하고 남한 노동자들이 “정권 타도의 구호를 억세게 틀어쥐고 결판을 볼 때까지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할 것을 선동

● 北최태복, 對北 대결정책이 통일에 난관(5/23, 연합)

-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 비서는 22일 ‘무산지구전투 승리’ 70주년을 맞아 이 기념탑 교양마당에서 열린 중앙보고회에서 한·미·일 3국의 대북 대결정책으로 통일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북침이 이뤄진다면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
- 최 비서는 이날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할 것”이라며 “불굴의 정신력과 온갖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150일 전투를 힘있게 벌여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

의 해로 빛내자”라고 강조

- 보고회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등이 참석

● 北, 美 국방예산 증액 계획 비난(5/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미국의 변함없는 패권주의적 야심’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 2010회계연도 국방예산 증액 방침은 “미국에서 정권이 골백번 바뀌어도 ‘군사적 힘의 우위’에 기초한 미제의 세계제패 야망, 패권주의적 야심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은 미국 정부가 지난달 26일 의회에 제출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4% 늘어난 5천340억 달러로 책정한 사실을 비난
- 신문은 오바마 미국 행정부를 겨냥, “이전 행정부 시기에 강행 추진되던 침략적인 ‘반테러전’의 무대를 파키스탄 영내에로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고 이란의 평화적인 핵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압박 도수를 높이고 있으며, 북한을 비롯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위협 공갈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

● 北, 인터넷 활용 대외 홍보·선전(5/22, 연합)

- 북한이 최근 미국의 온라인 소셜네트워킹 사이트(SNS)인 ‘트위터’를 이용해 해외에서 조선중앙통신 영문기사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 140자 이내의 단문 메시지를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유무선 연동 미니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위터는 북한 뉴스 웹페이지(http://twitter.com/kcna_dprk)를 통해 중앙통신이 송고한 일부 영문기사들을 제공
- 컴퓨터처럼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가진 사용자는 트위터에 가입한 뒤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중앙통신의 영문기사 제목이 휴대전화로 제공
- 이 휴대전화용 웹페이지는 “공화국(북한)의 소식을 언제 어디서나 보려는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새로 개설됐으며 이곳에선 “매일 보도되는 조선중앙통신사의 중요 보도들을 비롯한 평양 소식을 볼 수 있다”고 우리민족끼

리는 말했으나 구체적인 이용방법이나 이용이 가능한 휴대전화 기종 등은 밝히지 않음.

● 北헌법, 국방위원장은 최고지도자 명기(5/22, 니혼게이자이신문)

- 북한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만에 개정한 헌법에서 김정일 노동당총서기가 겸직하는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명기하고 그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밝힘.
- 최근 북한을 방문한 환일본경제연구소(니가타시)의 미무라 미쓰히로(三村光弘) 연구주임 등이 북한의 연구자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새 헌법은 국방위원장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돼 있던 직무를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한다”로 개정
- 김 위원장의 소관인 국방위원회를 직접 지도할 뿐 아니라 입법, 행정, 사업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중요한 조약의 비준과 폐기, 특사, 비상사태 선언 등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임.

● 작가들에게도 150일전투 문학작품 주문(5/9, 문학신문)

- 북한이 새로 시작한 속도전인 ‘150일 전투’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모든 자원을 ‘150일 전투’에 집중하는 가운데 작가들에게도 이를 위한 문학작품의 대량생산을 주문
- 문학신문은 9일 ‘150일 전투’로 고무 추동하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라는 제목의 글에서 “150일 전투를 힘있게 벌릴 데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어 이를 “고무 추동하는 문학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알리는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숙명’, ‘봄향기’, ‘새벽산책’ 등의 작품이 창작되고 있다고 전하고 “강성대국 건설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담은 현실 주제”를 다룰 것을 제시

● 北, 150일전투에 총력, 주민통제 강화(제13호, 열린북한통신; 제297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이 새로 시작한 속도전인 ‘150일 전투’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150일 전투지원에 물자지원 등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대

북 소식지들이 잇따라 전언

-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의 온라인 소식지 ‘열린북한통신’은 최근 호(제13호)에서 북한 소식통을 인용, “150일 전투 시작 이후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오전 9시~정오 사이에는 거리 통행이 금지됐고, 장마당의 개장 시간도 오후 2시에서 4시로 늦춰졌다고 소개
- 소식지는 “주민 단속을 위해 보안일꾼들과 근로단체의 단속성원들이 거리마다 배치됐다”며 이들은 “오전에 거리를 순찰하면서 통행하는 사람들을 잡거나 시장 개·폐장 시간을 엄수하지 않는 이들을 단속한다”고 설명, 단속됐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강제로 모내기 전투장에 배치해 하루 또는 며칠 동안 강제노동을 하거나 며칠씩 동원되는 형에 처해짐.
- ‘오늘의 북한소식’ 제279호도 “7일 쫓겨모임을 시작으로 150일 전투가 본격 시작됐다”며 “전투기간 중앙당과 지방당의 간부들은 일제히 생산 현장에 파견된다”고 소개, 소식지는 “현장의 생산활동 정상화”가 간부 파견의 주요 목적이며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화를 거쳐 간부직을 내놓아야 하며 해당 단위의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전언

● 北, 南 반공영화 상영...모략책동(5/19, 연합)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문학예술분과위원회는 19일 남한에서 반공영화와 드라마가 대대적으로 제작·방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모략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
- 이 단체 대변인은 담화에서 “남조선에서는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헐뜯고 북남 사이의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는 반공영화와 TV극들이 대대적으로 제작, 방영되고 있다”며 “공화국 현실을 심히 왜곡한 외국영화들까지 상영되고 있다”고 말했으나 영화와 드라마의 구체적인 제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北, 美와 대화도, 문건도 많았지만(5/19 연합)

- 노동신문은 19일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적대시 정책”을 펼칠수록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은 미국이 북한에 의장성명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빨(공)은 우리한테 넘어갔다는 식으로 공갈”하고 있지만 이는 “사태 악화의 책임을 우리

에게 넘겨썩우기 위한 것”이며 “뿔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안고 있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美민간단체들, 대북지원사업 활발(5/23,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속에서도 대북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
- ‘월드비전’은 6월 3일부터 열흘간 방북해 최근 북한에 보낸 밀가루와 콩이 제대로 도착해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북한 당국과 사업계획을 논의할 계획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23일부터 6월 4일까지 방북, 개성과 사리원에 있는 병원의 낡은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술적 평가를 진행
- ‘머시 코’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 문제에 관계없이 지난 몇년 간 지원한 과수원과 양어장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GRS)’는 북한에 식량, 의료, 농업 분야의 지원을 계속하면서 최근 음악과 영어 분야로도 활동 반경을 넓혔다고 RFA는 소개
- GRS는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인 지난달 중순 평양에서 열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미국의 유명 음악단체 ‘캐스팅 크라운스’와 ‘애니 모세스 밴드’를 출연시켰으며, 베이징사무소를 통해 북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칠 강사를 모집하고 북한의 무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용 영어회화도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

● UNDP실무진 방북, 지원사업 재개 논의중(5/22,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개발계획(UNDP) 실무진 4명이 19일 방북, 2년째 중단된 대북 지원사업의 재개와 이를 위한 사무소 재설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
- UNDP의 스테판 듀자릭 대변인은 “현재 이들 4명이 평양의 임시사무소에서 머물며 북측 관계자들과 북한에서 재개하게 될 사업 내역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 직원과 북측 직원의 채용도 이미 공고했다”고 밝힘. 그는

평양의 UNDP 사무소는 내달 보수공사를 마치면 다시 문을 열지만 “UNDP의 대북사업이 언제 재개될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업 재개 시기는 실무진들이 가져온 북측과의 협의 결과를 다시 검토한 뒤 결정될 사안”이라고 언급

● 北, 휴대전화용 웹페이지 개설(5/22,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여명’이 “해내의 회원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최근 휴대전화용 웹페이지”를 새로 개설했다고 ‘우리민족끼리’가 보도
- 이 휴대전화용 웹페이지는 “공화국(북한)의 소식을 언제 어디서나 보려는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새로 개설됐으며 이곳에선 “매일 보도되는 조선중앙통신사의 중요 보도들을 비롯한 평양 소식을 볼 수 있다”고 우리민족끼리는 말했으나 구체적인 이용방법이나 이용이 가능한 휴대전화 기종 등은 밝히지 않음.

● 北, 차나무 대대적 재배 성공 주장(5/12, 민주조선)

- 북한이 차나무를 대대적으로 재배, 건강음료인 녹차의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고 민주조선이 12일 보도
- 신문은 “자연 지리적 특성으로 하여 차나무 재배를 할 수 없다고 하던 우리나라(북한)에서 대대적으로 그 재배를 실현하여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녹차를 생산”하게 됐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차 이름을 ‘은정차’로 부르도록 했다고 소개

라. 군사 관련

● 北, 동해안서 지대지미사일 발사 징후(5/22, 연합)

- 북한이 함경도 김책시 일원의 동해안에서 지대지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짐. 정부의 한 소식통은 22일 “북한이 2~3일 전 함경도 일원 동해안에 선박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이 포착됐으며 함경도 일원 동해안에 2~3일 전부터 이동식 발사대가 장착된 차량의 움직임이 분주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언급

- 소식통은 “현재 북한의 군사동향으로 미뤄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힘.
-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나 각종 포사격 훈련 때 통상적으로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동해안을 순시하다가 북한의 통신 내용을 감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일본의 해상보안청도 이날 북한이 함경북도 김책시 연안 약 130km 해역을 이달 30일까지 항해금지구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음.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생물다양성 보호사업 활발(5/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생물다양성 보호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소개, 통신은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 및 생태기술연구센터의 과학자들은 조선(북한)의 자연보호구들과 전국 각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그 다양성 평가 방법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소개
- 한편 “동물자원을 적극 보호 증식시킬 데 대한 국가정책”에 따라 국토환경보호성, 국가과학원, 조선자연보호연맹 등은 5~10년마다 정기적으로 동물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5.22)’에 즈음해 과학기술발표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통신은 소개

● 남북불교도, 日약탈 문화재 반환 합동법회(5/22, 조선중앙통신)

- 남북한 불자들이 22일 북한 평양시 대성산 광법사에서 ‘일제가 약탈해간 문화재 반환 촉구 북남불교도 합동법회’를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법회에는 남측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 등이, 북측에서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전국신도회가 참석했으며 공동발원문 봉독에 이어 반일 공동성명을 채택, 공동성명은 “일본이 조선 민족의 대일 원한과 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라”며 “무도한 독도 강탈책동과 군국주의 재침 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약탈해간 우리 민족 문화재들을 무조건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
- 중앙신도회는 이번 방북기간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있던 북관대첩비를

2005년 돌려받은 사례를 토대로 앞으로 문화재 반환운동의 전반적 방향과 남은 과제 등을 복측과 협의할 계획

● ‘세계컵’ 체조대회에서 큰 성과(5/21, 조선중앙방송)

- 북한 체조선수들이 영국에서 열린 ‘세계컵’ 체조대회에서 금1, 은1의 성적을 올리고 21일 귀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대회에서 김진혁은 남자 평행봉에서 금메달을, 리세광은 도마에서 은메달을 각각 따냄.

● 北, 광천 등 자연치료자원 총서 발간(5/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각종 휴양지와 광천, 치료용 감탕(진흙) 등에 관한 정보를 한 데 모은 3권짜리 도서 ‘조선자연치료자원총서’가 출판돼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장수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소개

- 도서에는 “광천, 치료용 감탕에 대한 역사적 개괄과 특성, 지역별 광천자원들의 위치와 성분분석 연구자료, 산천수 치료자원의 위생학적 및 건강장수학적 평가와 특성, 조선(북한) 기후의 계절별, 요소별, 지대별 특성과 기후 치료 자원의 특성에 따르는 기후요양지, 휴양지 설정과 그 의학적 평가” 등이 서술돼 있음.

● 북한에 정구 열풍(2009년 5월호, 조국)

- 잡지는 ‘정구장에서 느낀 군중 체육 분위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봄을 맞은 지금 평양체육관 곁에 꾸러진 야외 정구장은 정구를 치는 사람들로 흥성거린다”며 몇 년 전부터 정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

● 北, 봄철 약초·약용식물 재배 강조(5/12,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2일 ‘약초 자원을 적극 늘여나가자’라는 글에서 “약초 재배사업은 나라의 고려약(한약) 자원을 풍부히 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봄철 약초재배 사업을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소개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조선신보, 美에 ‘대담한 접근법’ 촉구(5/2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3일 ‘적대시 정책에 변화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의 악화된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면 “대담한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며 “뚜렷한 정책전환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
- 신문은 “오바마 정권은 6자회담의 기초를 허물어버린 채 조선(북한)이 핵억제력을 보다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내버려두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 외교는 “눈앞의 현실에 대한 임시방편이 있을 뿐 변화는 구호만으로 그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
- 신문은 북한의 정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 등을 거론, “변화를 제창하는 오바마 정권이 출범하였지만 조(북)·미 관계는 부시 정권 말기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무성 대변인이 비핵화 염원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단언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대담한 접근법의 채택이 불가피하다”며 “미국측에서 상당히 뚜렷한 정책전환 의지를 전달해야 조선(북한)측이 대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
- 또 “오바마 정권은 클린턴, 부시 시절의 대조선 정책에서 교훈을 찾을 뿐 아니라 새로운 높이에서의 대화의 기초를 마련해야 할 처지”라고 전제한 후 과거 클린턴 정부 시절에 ‘페리보고서’가 작성됐지만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조선이 핵무기를 가진 현 시점에서는 과거의 페리보고서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다”고 신문은 주장

● 美, 北, 도발적 행위 하지 말아야(5/22, 미 국무부)

- 이언 켈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켈리 대변인은 장기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이 투명하고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최상의 방법은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일로 믿고 있다”며 “우리의

인내심이 무한한 것은 아니지만,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접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또 켈리 대변인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열심히 뛰면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부언

● **北 핵불능화 안하면 한 푼도 없다(5/22, 조선일보)**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연일 북한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 장관은 20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약속한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단 1달러도 북한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 그녀는 국무부의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북한의 핵 불능화 작업 재개에 대비한 9800만달러의 대북 경제지원 예산안에 대한 질문과 관련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Brownback) 의원이 "이 돈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뇌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라"고 하자, 클린턴 장관은 "전적으로 그렇다는 점을 재차 확실히 밝힌다"고 답하며, 국무부의 대북 경제지원 예산은 북한이 행동을 바꿔 합의를 이행할 경우를 대비한 것일 뿐이라고 언급

● **오바마, 핵무기 위협 감소·제거 최우선(5/19, 연합)**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미국이 전세계 모든 국가와 함께 핵무기 위협 감소와 궁극적인 제거를 주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일"이라고 밝힘.
- 그는 "구체적이고 적절하며 검증가능한 조치를 취하면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이(핵 비확산)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 "우리는 구체적인 일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면서 "NPT를 소생시킬 수 있으며, 러시아와 협력해 핵무기 의존도를 계속 줄여나갈 수 있다"고 NPT 체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
- 이와 함께 그는 "CTBT도 진전시킬 수 있다"면서 "더 많은 일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 美합참의장, 北, 2차핵실험 준비여부 NCND(5/19, 연합)
 -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18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제2차 핵실험 문제에 우려를 표명, 그는 특히 “그가 핵실험들을 고려중이라는 보도가 있다”면서 “나는 이를 어느쪽으로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소위 ‘NCND’ 입장을 보임.

- 美, 北, 여기자 면담허용은 좋은 일이라 평가(5/18, 미 국무부)
 - 미국은 18일 북한이 억류중인 2명의 미국 여기자들과 북한주재 스웨덴 대사간의 면담을 허용한 일은 좋은 일이라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15일 억류중인 2명의 미국인 기자들을 스웨덴 대사가 면담토록 허용한 것에 대해 “확실히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

나. 북·일 관계

- 北, 日, 우경화 경계(5/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일본의 우익 사조를 경계한다’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에서 “보수적인 우익풍조가 범람하고 있다”며 이에 철저한 경계심을 가질 것을 강조
 - 통신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평화헌법 폐기 논의,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을 지적, “일본의 우경화의 위험성은 군국주의 부활에 있다”며 “일본 우익반동들의 군국주의적 야망은 동아시아를 훨씬 벗어나 세계적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

- 日, 대북 중고 탱크로리 수출업자 영장(5/19, 산케이신문)
 - 일본 효고(兵庫)현 경찰은 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될 수 있어 북한 등에 수출을 금지한 대형 탱크로리를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교토(京都)의 한 중고차 판매회사 대표(50)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9일 보도, 이 업자가 거래한 북한의 상사는 대량살상무기 등의 개발 우려가 있는 기업으로 분류돼 일본 경제산업성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조선백호7 무역회사’라고 신문은 소개

다. 기타 외교 관계

● 김영남, 印尼 의회대표단 면담(5/22,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중인 아궁 락소노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의회대표단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인도네시아 의회 대표단은 방북기간 만경대와 주체사상탑, 평양수예연구소,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을 참관

3 대남정세

● 北, 개성기업들에 경영실적 제출 독촉(5/22, 통일부)

- 북측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전년도 경영실적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짐. 북측 개성공단 관리 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최근 회계검증에 필요한 입주기업들의 경영실적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에 제출을 독촉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밝힘.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원래 개성공단 관련 규정에 따라 올해 3월 31일까지 투자액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 등 총 62개 업체가 전년도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중 3분의 1 정도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북측이 재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작년에도 상당수 업체들이 2007년도분 회계자료 제출을 미루다가 북측의 독촉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언

● 北, 방북·반출 선별허용에 강한 불만 표시(5/22,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은 장거리 로켓 발사 정국 이후 최근 방북하는 대북 인도지원 단체 관계자들에게 통일부가 방북과 대북 물자 반출을 엄격하게 선별 허용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실무자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어린이재단의 관계자는 22일 “북측에서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방북하고 반출하면 아예 민간 교류 자체를 닫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언, 또한 최근 금강산이 있는 고성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 관계자는 “우리 단체는

남북간 양돈 협력사업의 파트너가 아닌데도, 북측 관계자는 우리에게 대북 물자 반출 제한으로 인해 돼지사료가 안 들어온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언급

● 개성공단 일부업체 집단휴가 조치(5/21, 연합)

-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른 사업 불안으로 주문량이 줄어든 결과 최근 일부 기업의 경우 일감이 떨어지자 북측 근로자들을 집단휴가 보내는 등 경비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준 업체들은 기본급의 70%인 50달러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통상 임금의 절반 수준
-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개성공단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휴가를 보내는 방식으로 인건비 등을 절감하고 있고 북한 당국도 근로자들이 기본급의 70% 정도는 받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고 있다”며 “정작 문제는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

● 北, 개성공단 도로세척 초안 통보(5/21, 연합)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이 4월 말 개성공단 내 표석과 같은 도로시설물 파손 시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규정한 ‘개성공업지구 도로 관리 세척 초안’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21일 확인
- 총국이 통보한 ‘도로 관리 세척 초안’에 따르면 남측은 22종의 도로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표석의 경우 1만 달러, 꽃나무(가로수) 30달러 등의 벌금을 내야함.
- 또 무단 도로 차단(1천 달러), 안전대책 미비 도로 공사(500달러), 월별 도로 점검 불이행, 도로보호구역에 나무·자갈 방치와 주차장 아닌 지역서 휴식·세차(200달러), 무한궤도차 무단 운행(50달러), 도로 무단 보행(30달러) 등의 벌금을 규정, 이 밖에 도로 무단 보행이 3차례 적발될 경우 3배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 미납 땐 매일 10달러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남측의 의무조항으로는 매년 말 도로건설계획안·도로관리연보 제출, 도로 건설·보수에 필요한 인력·자재·자금 제때 보장, 계절별 관리규정 맞춰 도로 보수, 보도·자전거길 조성 도로 주변 식수·잔디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

- 음. 도로관리 세칙 초안은 44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시행세칙 초안을 통보한 것은 늘 지금까지 해 왔던 프로세스로 지난 15일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법규·계약 무효 통보와는 무관하다”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개성공단과 관련해 모두 14개의 시행세칙 초안을 우리에게 통보했고 그 중 10개는 이미 시행 중이며 나머지 4개는 협의 중”이라고 소개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5.25-05.31

5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별첨 1: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
[전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평북 남흥청년화학 시찰(5/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표적인 종합화학공장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평북 안주시)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 그는 기업소에서 2008년 5월부터 추진 중인 석탄 가스화공정을 둘러본 후 “기업소 앞에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가스화공정 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어 비료생산을 시작하는 것”이며 “농업생산의 필수적 조건의 하나인 비료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스화공사에 총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걸린 문제를 몸소 해결” 해주었다고 통신은 보도
 - 시찰에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박남기, 장성택이 동행
- 北권력기관들, 김정은 충성경쟁 가속(5/31, 연합)
 - 북한 군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 김정은의 후계구도 구축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과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등 북한 핵심 권력기관들 사이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은이 지난 1월 김 위원장의 ‘교시’에 따라 후계자로 내정된 후 북한 군부는 김정은의 후견인이자 김 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의 지휘아래 김정은의 후계구도 구축을 주도, 김정은은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 개최 수일전 국방위원회의 말단인 지도원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음.
 - 김정은은 특히 핵심 공안기관인 보위부 장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위부 간부들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 경쟁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1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정운은 5월 초 김정일 위원장의 평양 만경대구역 룡악산 인근의 보위부대학 시찰 때 우 부부장 등과 함께 수행, 또 보위부 간부들은 산하 연락소들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마약불법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거액의 자금을 김정은에게 직접 상납하기도

하며, 이 때문에 보위부 연락소 마약상들이 중국 단둥의 공안에 연행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노동당도 충성경쟁에 뛰어들어, 조직지도부의 지휘아래 일부 당세포들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후계자를 하루빨리 정해달라는 청원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문예부문에서는 김정운을 찬양하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의 노래도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 노래는 후계자 김정운에 대한 첫 찬양가요로 북한 최고의 작곡가라는 보천보전자악단의 이종오가 작사 작곡한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일 국방위원장 셋째 아들 별명은 젊은 대장(5/28, 마이니치신문; 한국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운(26)에게 ‘젊은 대장’이라는 칭호가 붙고 있다고 마이니치(毎日) 신문이 보도
- 이 신문에 따르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올해 들어 김정운을 지칭해 ‘젊은 대장’이라는 애칭을 자주 쓰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젊은 대장 좋아 좋아”, “젊은 대장이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 “젊은 대장에게서 이제 관록이 나온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다고 함. 북한 소식통은 “‘젊은 대장’은 김 위원장이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삼남의 애칭”이라며 “후계체제가 ‘젊은 대장’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
- 김정운은 자신의 형인 김정철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김정철은 노동당의 업무를, 김정운은 국방위원회의 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함.

나. 정치 관련

● **북한 전역서 핵실험성공 축하 군중대회 개최(5/30,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핵실험 성공을 축하하는 군중대회가 평안남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도 소재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0일 보도, 평남도에서는 안국태 인민위원장, 자강도에서는 박도춘 당 책임비서, 황남도에서는 김락희 책임비서, 황북도에서는 최룡해 책임비서, 강원도에서 리철봉 책임비서 등이 각각 참석

- 조평통, 북핵 韓·日 공조 비난(5/29, 조평통 서기국 보도;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9일 남한 정부가 북한 핵문제 대응에서 일본과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매국배족 행위”라면서 “천백배로 결산할 것”이라고 주장
 - 조평통 서기국은 ‘보도’를 통해 일본을 방문한 한승수 총리가 5월 22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북핵문제 대응에 공조키로 한 사실 등을 거론,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과 공모하여 동족대결을 일삼는 천추에 용납못할 친일사대 매국행위”라고 비난

- 민주조선, 사소한 충돌도 핵전쟁으로 변질것(5/28,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8일 ‘북침전쟁 도발의 전주곡’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와 유엔의 대북 제재 논의 등으로 “터질 듯한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곧 핵(核) 전쟁으로 변질 수 있다”고 보도
 - 신문은 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끝끝내 전쟁이 강요된다면 모든 군사적 잠재력을 총폭발시켜 침략자들을 일격에 쓸어버리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

- 수단대사에 리성목 임명(5/28, 조선중앙방송)
 - 리성목 수단 주재 북한대사가 5월 19일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내는 인사를 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
 - ※ 북한은 수단과 1969년 6월21일 수교

- 北, 장성택 형 등 10명 애국열사릉에 안치(5/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8일 정무원(현 내각) 부총리였던 김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형인 장성길 전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장 등 이미 사망한 공로자 10명의 유해를 남한의 국립묘지 격인 애국열사릉에 새로 안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이들 외에 립호군 전 노동당 작전부장, 노동당 부부장들인 박승수, 강길봉과 정송남 전 대외경제사업부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

장의 형인 양형만 전 국가과학원 교수, 서병곤 노동당출판사 논설원, 그리고 군부인물로 남상락 전 평양고사포사령관, 심명수 전 강건종합군관학교 교장 등이 포함

● **北신문, 한반도 긴장정세 주장(5/28, 민주조선; 노동신문)**

- 민주조선은 28일 ‘북침전쟁 도발의 전주곡’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와 남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등으로 “다치면 터질 듯한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곧 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다”고 주장
- 노동신문도 ‘노골적 위협, 계획적인 전쟁준비 책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주한미군이 유사시에 대비해 장병 가족을 비롯한 비전투 요원을 탈출시키는 ‘한반도소개 훈련(NEO)’을 이달 중순 실시한 것을 가리켜 “조선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에 놓여있는 때에 비전투원들의 탈출 훈련까지 벌여놓은 것은 명백히 새 전쟁도발의 전주곡”이라고 주장

● **유엔시, 정전협정 유효...구속력 있어(5/28, 유엔사령부)**

- 유엔군사령부는 28일 “정전협정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서명 당사국들에 현재도 유효하며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밝힘. 유엔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27일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통해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선언이 (해상)봉쇄를 금지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협정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힘.
- 유엔사는 이어 “정전협정은 지난 55년간 한반도에서 정전상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어 왔으며, 지역의 안정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평가

● **北, 中 접경지역 통제 대폭 강화(5/28, 연합)**

- 28일 대북 소식통 및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전후해 접경지역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 시작, 25일 2차 핵 실험을 전후해 통제를 더욱 강화
- 이로 인해 인편을 통한 북한 송금길이 막혀 북·중 무역이 위축되고 있으며

탈북을 위해 접경지역 군인들에게 건네는 '탈북비'도 크게 올랐다고 함.

- 탈북자나 한국의 친지들이 은밀하게 보내는 송금은 더더욱 어려워져 20%의 수수료를 건네는데도 돈을 전달해주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하고 있는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 일대 접경지역에는 탈북자들을 막기 위한 감시 카메라 수십 대가 북한 측에 의해 새로 설치

● 北, 2차핵실험 성공 경축 대회 평양서 개최(5/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6일 평양체육관에서 당·정·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핵실험 '성공'을 경축하는 평양시 군중대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대회에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비서,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림 서기장 등이 참석
- 최태복 비서는 연설에서 "이번 핵실험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 위협과 제재 압력 책동이 더욱 심해지는 조건에서 공화국의 최고 이익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일대 장거"라고 주장
- 행사에는 인민군, 과학자, 노동계급, 농업근로자 대표 등도 나서 연설을 했으며, 이들은 전체 당원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거세차게 일으킴으로써 2012년에 강성대국을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北, 정전협정 끝...군사적 타격하겠다(5/27,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 전면 참여가 "조선반도를 전쟁 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우리 선박에 대한 단속·검색 행위를 포함해 어떤 사소한 적대 행위도 즉시적이며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이날 성명에서 "전시(戰時)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 판문점대표부 성명은 "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종전 입장

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정전협정 당사자로서의 책임마저 쫓아버리면서(내버리면서) 괴뢰(남한)들을 PSI에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성명은 이어 “서해 우리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남한) 해군 함선 및 일반 선박의 안전 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 판문점대표부 성명은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으로 조선반도는 전쟁 상태로 되돌아가며 우리(북) 혁명 무력은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

● 北조평통, 전시 상응 실제행동으로 대응(5/27,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7일 남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전면참여 발표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우리는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조평통은 성명에서 “남조선 당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참가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선전포고를 해왔다”고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성명은 “우리의 선박을 감히 정선시키거나 단속, 검색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성한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어디에서든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

● 北, 수십년동안 제재속에 살고 있다(5/27,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은 27일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발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대조선 제재 정책은 썩은 닭알(달걀)로 바위치기”라고 호언
- 신문은 “미국의 대조선 제재정책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라며 “미국은 우리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해서 수십년전부터 경제제재와 봉쇄정책을 실시하고 우리의 경제발전을 악랄하게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고 맹비난, 신문은 “우리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를 문제해결의 전제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거부하고 있는 자기의 체질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달라질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

● 조선신보, 긴장고리 끊기 위해 대화·협상해야(5/2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6일 ‘핵억제력 강화 부추기는 제재소동’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압력의 도수를 높인다 해도 조선(북한)의 기존노선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며 “긴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주장
- 신문은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 “오히려 제재와 자위적 조치의 연쇄반응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외교의 새판짜기는 결국 미국의 몫”이라며 북한이 “대화를 검토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은 교전국 미국의 태도 변화”라고 강조
- 신문은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핵이 없는 세계’ 구상을 거론,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도 이 구상을 펼치려면 “기존의 강권의 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립과 긴장의 해소 여부는 미국의 새 정권이 조선에 대한 대담한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어떤가에 달려있다”고 거듭 미국의 “대담한 접근법”을 주문

● 노동신문, 美에 대처 전투동원 태세(5/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스스로 화를 청하는 호전적 망동’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의 무모한 선제공격 책동에 대처해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
- 신문은 F-22 비행대대의 일본과 괌 배치, 키 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거론, “최근 미국이 심상치 않은 반공화국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

● 김정일, 軍, 黨영도 없으면 반혁명도구화(5/25,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5일 ‘당의 영군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시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이고 주도적 역량이라고 하여 당의 영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이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발언들을

소개

- 김 위원장은 2001년 1월 북한군 지휘관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군대가 당의 영도를 받지 못하면 나아가 반혁명의 도구로 전락되고 만다”며 그 사례로 1973년 당시 칠레의 아옌데 정권의 붕괴를 들고 “반동들의 군사정변에 의하여 전복되게 된 것은 정권을 잡은 당이 군대를 장악하지 못하고 (군의) 중립화에 만족한 데 기본원인이 있었다”고 분석

● 노동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보낸 조전 1면에 게재(5/25,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노동신문은 25일 발행된 신문 1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보낸 조전을 실음. 신문은 또 5면에선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
- 조선중앙방송은 25일 아침 “(노동)신문은 김정일 동지께서 남조선 전 대통령 노무현의 유가족들에게 보내신 조전을 실었다”며 “신문은 5면에 전 남조선 대통령이 사망한 소식을 주었다”고 설명

다. 경제 관련

● 北핵실험에도 EU 지원사업 예정대로 진행 중(5/30,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EU)의 대북 지원사업 실무진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난 25일 방북, 6월 9일까지 2주일간 일정으로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 EU위원회의 크리스티안 호만 공보관은 “유럽지원협력기구에 소속된 실무진의 이번 방북은 북한에 지원하는 인도적 식량안보 사업을 매년 한차례 감시하고 평가하는 정례적 활동”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통보는 실무진이 방북한 이후에 받았다”고 언급, 그는 “북한의 핵실험이 EU의 인도적인 대북지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방북중인 실무진의 활동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
- 그러나 EU위원회에서 대북지원을 담당하는 실무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당장은 EU의 대북지원에 변화가 없겠지만 앞으로 위축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며 “EU가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 반대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도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EU와 북한간 정치적 환경이 대북 지원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소개

- RFA는 “EU의 자금을 지원받아 북한에서 인도적 식량안보 사업을 펼치고 있는 유럽의 비정부 기구들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민간차원의 기부금이 줄고 사업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변화를 겪고 있다”고 소개
- EU는 대북 사업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모두 3천500만유로(약 4천200만달러)의 지원금을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올해 할당된 지원금은 900만유로(약 1천만달러)임.

● 외국인 북한관광, 北핵실험에도 예정대로 진행 (5/2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6월로 예정된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관련 관광업체들이 밝힘. 스웨덴에서 북한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 ‘코리아 콘솔트’는 6월 2일 유럽인 수십명으로 구성된 관광단이 6박7일 일정으로 북한관광에 나선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 北, 시장서 음식판매 금지(제 280호, 오늘의 북한소식; 5/26, 좋은벗들)

-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당국이 5월 8일부터 북한 전역의 장마당(시장)에서 음식 판매를 금지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6일 주장
- 소식지는 “판매금지 물품에 음식이 추가됨에 따라 시장마다 상인들과 단속원 사이의 실랑이가 여느 때보다 더 자주 목격된다”며 “단속원들은 금지 상품을 회수하는 한편 최소 3천원에서 많게는 1만원까지 벌금을 물리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설명
- 소식지는 또 “국수 장사꾼들이 시장을 떠나 시골을 누비고 있다”며 “시장 매대에서 판매하던 장사꾼들은 장사가 잘 안되는 데다 당국의 잦은 단속을 피해 농촌 마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소개, 농촌에선 “농장원들이 옥수수가 있어도 전기가 없어 국수를 못만들기 때문에 시장보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고 소개

● 北, 개성공단 개발의지 불변(5/2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6일 ‘개성공업지구의 기초는 우리민족끼리 이념’이라는 기사

에서 남한에선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지만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원만히 추진시키려는 것은 북측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남측이 “대결”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남한 정부의 “적대행위” 속에서도 개성공단이 가동돼온 것은 “북측의 변함없는 개발의지의 표시이며 그 증거물”이라며 북한은 “당국 대화가 차단된 속에서도 남측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재협상의 마당을 마련하는 등 노력과 성의를 기울였다”고 주장
- 신문은 “다만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그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 이제는 그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고 말하고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중앙특구개발총국 통지문의 구절은 거꾸로 보면 6.15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

라. 군사 관련

● 北, 한미, 5월 200여회 공중정탐 주장(5/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국군과 미군이 이달에 200여 차례의 “공중정탐 행위”를 했다고 주장, 통신은 국군과 미군이 “각종 사명의 전략 및 전술정찰기들을 집중투입”해 국군은 90여 차례, 미군은 110여 차례 대북 공중정찰을 했다고 언급, 북한은 4월엔 170여 차례에 이른다고 주장했었음.

● 정보당국자, 北 ICBM 확실한 듯(5/30, 연합)

- 북한이 25일 2차 핵실험에 이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한·미 정보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30일 알려짐. 정보담당 핵심 당국자는 “최근 북한 평양 인근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화물열차 3량에 장거리 미사일 1기가 실려있는 것이 포착됐다”면서 “ICBM이 확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
- 당국자는 그러면서 “북측이 서둘러 발사 거치대를 설치할 경우 준비를 마치는 데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르면 다음달 중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

● 北, 동해서 신형 미사일 발사(5/30, 조선일보)

- 북한이 29일에도 동해상으로 신형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한 발을 발사,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29일 오후 6시 12분쯤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동해상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
-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 100~ 160km의 북한 독자 개발 신형 미사일이거나 최대 사정거리가 250여km인 구소련제 SA-5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언

● 北, 中 29분·美 24분전 핵실험 통보(5/27, 연합)

- 북한은 25일 핵실험을 하기 직전 중국에는 29분전, 미국에는 24분전에 핵실험 가능성을 각각 통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짐.
-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25일 오전 9시 54분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2차 핵실험을 하기 전 중국에는 오전 9시 25분께 통보했고, 미국에는 오전 9시 30분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핵실험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 정보당국자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에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시점은 핵실험을 불과 30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라며 “특히 북한이 전달한 내용이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었던 만큼 미국과 중국이 짧은 시간 이 정도의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곧바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는 분석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

● 北, 동해서 단거리 미사일 추가발사(5/27, 연합)

- 북한이 26일 밤 동해안에서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음.
-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26일 밤 9시 10분께 동해상에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정보당국에서 상황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언급
- 이와 관련,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함경남도 함흥시 이남 신상리의 포병부대에서 지대함 미사일 1발이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북한은 어제 그곳에서 지대함 2발을 발사한 바 있다”고 밝힘.

- 또 정부 관계자는 “당초 25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당일 낮 12시 8분 발사된 미사일은 발사 준비만 하고 실제 발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따라서 25일 2발, 26일 3발이 발사된 것”이라고 설명
- 이 관계자는 북한이 영변 핵재처리 시설의 재가동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이 재가동을 준비중이란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면서 “재처리시설 가동 징후인 크립톤 가스의 탐지 여부는 며칠 걸려야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北, 무수단리서 단거리미사일 발사(5/25, 연합)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낮 12시 8분께 무수단리에서 단거리 미사일 한발을 발사한 징후를 포착, 한.미 정보당국간 정밀 분석을 통해 발사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힘. 군 관계자는 “우리 군 C4I(지휘통신) 장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고신호가 포착됐다”면서 “이후 정밀분석을 거쳐 발사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언

● 北, 2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위력 강화(5/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5일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이 보도
- 통신은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98(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핵시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주장
- 통신은 “시험 결과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며 “핵시험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통신은 “이번 핵시험의 성공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150일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고 덧붙임.

마. 사회·문화 관련

● 北에 장애인 예술체육훈련센터 개소(5/30, 조선신보)

- 북한이 장애인들에게 예술과 체육을 가르치는 ‘대동강장애자문화센터’가 5월 초에 문을 열었다고 조선신보가 30일 보도,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흥동에 있는 이 센터엔 북한 전역의 특수학교 예술소조학생들이 3개월에 한번 씩 방문해 자신들의 기량을 평가받고 전문기량을 훈련, 이 센터에서는 성악과 무용, 기악, 탁구 등을 가르치며, 이를 위해 각종 악기와 음향설비, 탁구 기자재 등도 갖췄다. 앞으로 활쏘기와 사격, 역도 등을 가르치기 위한 시설도 갖춰나갈 계획, 또한 한증탕도 설치돼 있으며 교육 뿐 아니라 강습과 토론회 등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모임도 열 예정
- 조선신보는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 관계자가 “해외동포 단체인 재미등대복지회와 스위스 외무성 개발협조국 평양협조사무소 등의 협력에 사의”를 표시했다고 밝혀 이들 단체와 기구의 지원 사실을 공개

● 北, ‘풋살’ 소학교 전국체육대회 종목 채택(5/28, 조선신보)

- 북한이 미니축구인 ‘풋살’을 전국 소학교 체육학급경기 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 조선신보는 28일 “오는 9월 진행되는 제3차 전국소학교체육학급경기대회의 각 도별 선발경기가 한창”이라며 “올해부터는 소학교체육경기에도 풋살이 새 종목으로 도입돼 예선경기 단계에서 학생, 교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소개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안보리 제재논의 담보...내주 초 윤곽 나올 듯(5/30, 연합)

-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새로운 제재 조치 부과를 둘러싼 주요국 간의 의견 차이로 빠른 진전을 거두지 못함. 이에 따라 안보리 주요국이 조율한 제재 결의 초안의 윤곽은 다음 주

초에나 나올 것으로 보임.

-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P5)과 일본 및 한국은 29일(현지시간) 대사급 회의는 갖지 않은 채 실무급 회의를 가짐. 그러나 유엔의 한 외교관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에 각국이 본국과 협의를 해야하는 관계로 일단 주말을 넘기고 다음 주 초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
- 현재 안보리 주요국은 미·일이 내놓은 안 중 북핵 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2006년 10월 북핵 실험 직후 채택했던 1718호의 제재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새로운 제재 조치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논의 중인 새로운 제재 조치에는 북한의 금융계좌 동결,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여행 제한 대상 북한 인사 지정 및 항공기 운항 제한의 확대, 모든 무기로 금수품목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41조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어 비군사적 대응조치로 한정된 41조를 명시했지만 미·일의 이번 안은 41조를 명시한 것을 뺐으로써 무력사용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임.

● **美대표단, 한중일러 파견(5/30, 연합)**

-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표단을 한·중·일·러 등 6자 회담 참가국에 파견할 것으로 2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정부 합동 대표단을 이끌고 아시아 지역을 방문해 (북핵 실험과 관련한) 대응옵션과 접근방법을 해당 국가들과 직접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힘.
- 켈리 대변인은 합동 대표단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방부, 재무부의 관계당국자들이 포함된다고 밝힘.

● **차기 안보리의장국 터키, 대북결의 도출 협력(5/29, 연합)**

- 일본과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터키 정부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안 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29

일 밝힘. 터키 정부 역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행동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 안보리, 北 해외 금융계좌 동결 검토(5/29, 연합)

-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은 28일 오후(현지시간) 이번 사태 발생 후 3차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해외 금융계좌 동결 등 대북 제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P5+2 회의는 지난 26일 2차회의에서 결의안 초안에 포함될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한 뒤, 미.일이 중심이 돼 1차 초안을 마련
-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초안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은 어조로 비난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에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명시된 조치들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유엔 관계자들은 밝힘. 또한 기존 결의안의 제재 내용을 강화해 금수 무기 품목을 대량살상 무기뿐 아니라 모든 무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
- 특히 초안에는 북한의 해외 금융 계좌를 동결하는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와 함께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여행 제한 및 항공기 운항 제한의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 유엔 안보리 25일 소집(5/25, 연합)

-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 오후 8시(한국시간 26일 오전 5시)에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러시아 언론들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인용해 전언
-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도 24일 밤(뉴욕 현지시간) 성명을 발표, 안보리가 25일 오후 긴급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힘.

나. 북·미 관계

● 北억류 美여기자들, 가족과 통화(5/31,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이 지난 26일 미국의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
- 여기자들은 또 4월 15일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외교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직접 작성한 편지를 전달했으며, 이 편지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해졌다고 VOA는 보도, 편지에서 두 여기자는 “감옥이 아닌 곳에서 힘들지 않게 지내고 있다”면서 가족들이 보낸 의약품 등을 잘 전달받았으며, 식사를 잘하고 있고 식사 후에는 건물 밖으로 나가 바깥 공기를 쉴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소개

● 美관리, 南핵보유론에 美목표는 한반도 비핵화(5/3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한국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제기되는 핵보유론에 대해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윌리엄 토비 전 미 핵안보국 부국장도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실수”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하다”고 언급

● 美국방장관, 北 핵보유국 인정 불가(5/30, 연합)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북한이 핵확산 등의 움직임이 보일 경우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 경고
-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지만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힘. 그는 “우리는 우리의 우방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핵 등 여러가지 무기를 수출하는 북한의 행위는 미국과 그 우방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며 북한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 게이츠 장관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빈곤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는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자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핵 실험에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북한은 점점 고립되고 있으며 주민은 굶고 있다”고 지적하고 “(핵과 관련한) 우리의 대북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가 그것”이라고 강조

● 美상원, 6월 9, 10일께 북한 청문회 개최(5/3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책, 북핵 6자회담의 미래 등,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논의를 위해 6월 9, 10일 북한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 제111회 회기 들어 상원 외교위원회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지켜본다는 이유로 북한관련 청문회를 미뤄왔기 때문에 외교위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여에 본격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고 방송은 보도

● 美국무부, 北, 도발행위 중단해야(5/30, 연합)

- 이안 켈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일련의 보도에 대해 “북한은 호전적인 수사와 함께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요구, 켈리 대변인은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6자회담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힘.
- 켈리 대변인은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일깨워 주는 최상의 방법은 그들의 행동에 상응한 결과가 따르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

● 美, 北 핵실험 여부 결론 못내려(5/30, 연합)

- 미국은 북한이 주장한 핵실험 실시 및 성공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당국자는 “초기 분석 결과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북한이 핵장치를 폭발시켰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고 언급

● 美육참총장, 필요하면 北과 싸울 수도(5/29, 연합뉴스)

- 미국은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들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도 필요하다면 북한과 재래식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조지 케이지 미 육군 참모총장이 28일 밝혔.
- 그는 이어 현재 대테러전을 수행 중인 미 육군을 재래식 전투태세로 전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군이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90일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

● 백악관, 對北 금융제재 논의 확인(5/29,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28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항공기, 선박 운항 제한 등을 추진중임을 밝혔.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은행거래를 중단시킬 것 같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지난 며칠간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은행과 항공과 관련된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 기브스 대변인은 "중국이 그런 논의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그들의 대응은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변.
- 기브스 대변인은 또 최근 북한의 위협과 한미연합사의 감시 강화 조치 등과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상황들에 상당히 오랫동안 명백히 관여하며 상황들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고 밝혔.
- 그는 이어 "우리는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든 간에 취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허세와 위협을 통해 국제적 관심을 끌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지적

● 존스 美안보보좌관, 北 핵무기화 갈길 멀어(5/28, 연합뉴스)

- 제임스 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을 무기화하고, 이를 운반할 수단을 갖기에는 갈 길이 여전히 멀다"고 밝혔다.
- 존스 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그것 자체로는 미국의 안전과 안보에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다"면서 대신 "임박한 위협은 이런 기술을 다른 국가나 테러 조직과 같은 곳에 확산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가장 절박한 위협"이라고 언급
- 그는 핵을 무기화하고 운반수단을 북한이 보유할 가능성에 대해 "이는 최

악의 시나리오로, 우리는 막을 수 있기를 매우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
 -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거론하면서 “특히 중국이 이전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언

● 美, 北 대가 치르고 고립심화 경고(5/28, 연합)

- 미국 행정부는 27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 및 영변 재처리시설 재가동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키고 이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7일 아흐메드 아불 게이트 이집트 외무장관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는 한편 6자회담에서의 약속을 파기하는 선택을 했다”면서 “이런 행동에는 상응하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밝힘.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북한의 협상태이블 복귀를 촉구, 또 북한의 핵 위협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방위공약을 확고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혀 핵우산 제공방침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임을 강조

● 백악관, 北, 위협통해 관심 못얻어(5/28, 연합)

- 미국 백악관은 27일 정레브리핑에서 북한이 위협과 성가심을 통해 주목을 받으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결코 위협을 통해서서는 자신들이 ‘갈망’하는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힘.
 - 기브스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위협에 대해 “단지 자신들의 고립만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 기브스 대변인은 또 북한군 판문점대표부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무력화”를 선언한 것과 관련, “그들이 정전협정의 무효를 시도한 것이 대략 지난 15년간 이번이 다섯번째”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

● 美재무부, 추가 對北 금융제재 검토(5/26, 로이터통신)

- 26일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 재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 이 관계자는 북

한이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여전히 제한돼 있지만, 이 같이 제한된 접근 수단마저도 차단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미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 이 관계자는 “현재 이러한 문제를 놓고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방안(옵션)들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

● **오바마, 北 무모하게 국제사회에 도전**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와 관련,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힘.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해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언급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북한은 직접적이고 무모하게(recklessly) 국제 사회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어 “이런 행동들은 모든 국가의 중대한 근심”이라고 지적
-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협력해 왔고,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 향후 유엔 및 6자회담 참가국 간의 긴밀한 공조 방침을 밝힘.

다. 북·중 관계

● **中, 전인대 부위원장 방북 취소(5/29, 연합)**

- 중국은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불만의 표시로 천즈리(陳至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격) 부위원장의 북한 방문을 취소, 전인대 내 북한통인 천즈리 부위원장은 당초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초청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격 취소했다고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이 29일 밝힘.
- 천즈리 부위원장의 방북 취소는 중국이 지난 25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강경한 내용의 외교부 성명을 내고 최진수 주중 북한 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면서 더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라는 경고한 지 4일 만에 나온 것이어서 중국 측의 불만과 불쾌감의 정도를 나타냄.

● 시진핑, 北 상황악화 중지 요구(5/27, 연합)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은 27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북한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
- 시 부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중인 이상희 국방부장관과의 회동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와 협상의 장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회동에 참가한 소식통들이 밝힘.
- 시 부주석은 “북한의 핵 실험은 이런 중국의 원칙과 중국의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중국은 많은 우려와 함께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견결하게(강하게)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

● 中, 상하이·북한 민간여행 예정대로 시행(5/26, 신문신보)

- 북한의 핵실험에도 중국 상하이와 북한의 첫 민간 여행이 예정대로 진행, 신문신보(新聞晨報)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금려 여행사는 북한의 지하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겠다는 여행객이 없어 예정대로 27일부터 상하이와 북한간의 첫 민간인 관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 그러나 북한 여행객들은 휴대전화기와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망원경 등을 휴대할 수 없음.
- 북한 관광은 판문점과 남북군사분계선, 3.8선, 평양지하철, 천리마 동상 등을 관람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8~9월에는 ‘아리랑’ 관람도 가능하고 가을에는 금강산 관광도 포함됨.

● 中, 냉정대처 필요...北 비핵화해야(5/25, 연합)

- 중국은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짐. 또 이번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 중국측의 이같은 입장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동 이후 알려짐.

라. 북·러 관계

● 러시아, 북한 대사 소환해 유감 표명(5/27, 러시아 외무부)

- 러시아 외무부는 27일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핵실험 실시
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힘.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대사 소환 사실을 전하면서 김 대사에
게 역내 안보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에 북한이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힘.
-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핵실험 발사 당일인 25일 성명에서 “이번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러
시아는 이번 핵실험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
며 유감을 표시
-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는 비난 성명에 이어 26일에는 28~29일 평양
에서 예정된 북한과의 정부 간 통상경제 및 과학기술 위원회 무기 연기를
발표하는 등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
고 있음.

● 러시아, 우려 표명(5/25, 리아 노보스티 통신)

- 러시아 정부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소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리
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 핵실험 소식
은 우려를 낳을 만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며 어
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모든 정보를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마. 북·일 관계

● 北, 日의 대북 공격론에 日 전 영토 타격권 주장(5/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장송곡을 불러오는 무모한 적기지 공격론’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적기지 공격
론’에 대해 “재침책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재침 전쟁을 일으킨다면 천백배
의 보복의 불벼락을 안길 만반의 군사적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오늘날의 전쟁은 지난날의 전쟁과는 다르고 현대전에는 최첨단 과

학기술이 도입된 타격력이 강하고 타격거리가 긴 전쟁수단들이 많이 이용돼 현대전은 입체전이고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다”며 “일본의 재침에 대응한 강력한 반격이 가해지면 일본땅은 일대 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

● **日, 북한 자금세탁 차단 강화(5/27, 마이니치신문)**

- 일본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독자적인 추가 제재로 북한과 관계 있는 테러자금 동결·몰수와 자금세탁 차단을 위한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7일 보도
-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개 기업에 대한 자산동결을 결정한 만큼 북한의 테러 자금과 관련이 있는 단체나 개인으로 드러날 경우 신속하게 자산 동결 및 몰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의 핵심
- 동시에 일본 정부는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등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 중, 그러나 북한의 1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이미 전면 금지됐고, 수출액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압박 효과는 거의 없지만, 북한의 핵위협에 의연히 대응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해 이런 방안을 채택할 방침

● **日야소 총리, 적기지 공격론 옹호 논란(5/27, 아사히 신문)**

- 야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라 자민당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위대에 의한 적(敵)기지 공격론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 그는 지난 26일 밤 총리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정한 틀을 정한 뒤에는 법리상으로는 (적기지 공격은) 가능하다.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쇼와(昭和) 30년(1955년)대부터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 등이 27일 보도

바. 기타 외교 관계

● **EU 외교수장, 北핵실험 매우 우려(5/25, 연합)**

- 유럽연합(EU)의 외교장관 격인 베니타 페레로-발트너 대외정책 담당 집행 위원은 북한의 핵실험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함.

- 발트너 집행위원은 25일 방콕에서 북한 핵실험 보도를 접하고 “아직 (북한 핵실험 정확을) 확인하지 못해 매우 조심스럽지만,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은 “비난받아야 마땅할 일”이라며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 브라질, 北주재 대사관 업무 개시 연기(5/25, EFE 통신)

- 브라질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당초 5월 말로 예정된 평양 주재 대사관의 공식업무 개시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고 EFE 통신이 25일 보도,
- 한편 브라질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브라질은 북한의 핵실험을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밝힘. 이어 “브라질 정부는 북한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도 신속하게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

● 이란, 北과의 핵, 미사일 협력관계 없다(5/25, 연합뉴스)

- 북한이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25일 이란은 핵 또는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어떤 협력관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힘. 마무드 아마디 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의 핵실험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핵 또는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북한과 어떤 협조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원칙적으로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확산, 이용에 반대한다”고 강조

3) 대남정세

● PSI가입에도 남북 해사당국통신 정상진행(5/29, 통일부)

-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한 이후에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남북 해사당국간 소통 및 선박 운항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통일부가 29일 발표,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북측이 해사통신망을 통해 북측 선박의 남측 해역 신규운항 허가를 신청하는

등 남북해사당국간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이 PSI전면 참여 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면서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는 계속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부대변인은 또 북한 핵실험(25일) 이후 민간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지만 시급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자 반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제기아대책기구 등 5개의 인도지원단체가 북한으로 생필품을 반출할 예정”이라며 “인도지원 물자에 대한 반출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

● 對北 인도사업 기금지원 보류될 듯(5/27, 연합)

-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정부가 매년 해오던 국내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27일 알려짐.
- 정부 소식통은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이지만 핵실험을 계기로 악화된 대북 여론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라고 언급

● 정부, 개성·금강산 신변안전지침 마련(5/26, 통일부)

- 정부는 26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남북관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 ‘북측 인원과와의 접촉을 가급적 자제할 것’ 등을 포함한 체류인원 신변안전관리 지침을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보냈다고 밝혔다.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침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금강산 관광사업소를 중심으로 현지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정부와의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소개
- 이 부대변인은 이어 “(지침에는) 개성과 금강산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서 북한 측 인원과와의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반드시 접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언행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또한 현지에서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정해진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

● 정부, 개성공단 외 방북 전면유보(5/25, 통일부)

- 정부는 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실시와 관련, 후속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방문을 제외한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고려, 개성공단 이외 북한 지역 방문을 당분간 유보토록 할 방침”이라며 “내일(26일)부터 평양지역과 금강산 인근지역에 대한 방문을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 천 대변인은 “다만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인원의 방북은 내일 이후에도 허용할 것”이나 “정부는 개성공단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방북인원의 규모를 줄여 나가도록 권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첨부1: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 [전문]

전쟁도 평화도 아닌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정세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전적으로 정전협정은 안중에도 없이 교전일방인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고립압살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에 편승한 리명박역적패당의 발악적인 책동과 직결되어있다.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 바로 상전과 주구의 공모결탁으로 진행된 미국주도하의 '대량살상 무기확산방지구상'에 대한 리명박역적패당의 무모한 '전면참여' 책동이다. 원래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봉쇄와 날강도적 해상봉쇄를 노린 이 '구상'에 괴뢰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시도는 부쉬행정부때부터 끈질기게 추진되어왔다.

오바마를 비롯한 미국의 현 집권자들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을 '영원한 국제체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해대면서 남조선괴뢰들을 사촉하여 여기에 끌어들이었다.

이것은 국제법은 물론 교전대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된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명백한 부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와 굴종으로 체질화된 리명박역적패당은 상전의 요구에 맹종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전면참여'를 꺼리낌없이 자행하였다.

이로써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은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우리 혁명무력의 원칙적립장을 밝힌다.

1. 우리 혁명무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대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전면참여'를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이에 따라 평화적인 우리 선박에 대한 단속 검색행위를 포함하여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못할 침해로 락인하고 즉시적이며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다.

2. 미국의 현 집권자들이 대조선압살책동에 열이 뜬 나머지 국제법은 물론 정전협정 자체를 부정하다못해 협정조인당사자로서의 책임마저 쫓어버리면서 괴뢰들을 끝끝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끌어들이는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전협정이 구소력을 잃는다면 법적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행동으로 넘어가게 될것이다.

3. 당면하여 조선서해 우리의 서북쪽 령해에 있는 남측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지위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미제침략군과 괴뢰해군함선 및 일반 선박들의 인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제와 리명박 패당이 공정한 국제법 요구와 쌍방향의를 포기한 조건에서 우리만 그것을 리행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약육강식의 미국식 논리가 우리에게도 통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큰 오산은 없다.

우리도 필요하다면 주변대상을 단숨에 타고았거나 미국의 급소를 일격할 막강한 군사적 힘과 우리식의 타격방식이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일단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은 상상밖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2009년 5월 27일 12시 33분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6.01-06.07

6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평양음대 가극창작 지도(6/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원균명창 평양음악대학의 러시아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의 “창조사업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새벽 보도
 - 통신은 7일자 보도에서 김 위원장은 평양음악대학이 1958년 무대에 올렸던 ‘예브게니 오네긴’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다시 창조하고” 있는 것을 지도하고 “창조중에 있는 가극”을 관람했다고 소개, 이 행사에는 특히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가 당 중앙위 부장 자격으로 수행했으며 이외에 김기남 당 비서, 당 중앙위 부장들인 장성택, 최익규도 수행했다고 통신은 보도
 - 통신은 이날 또 김 위원장이 강원도 고산군에 있는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해 새로 조성한 과수원을 비롯한 농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과수원 현대화 추진 상황과 과일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전언, 농장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당 비서와 당 중앙위 부장들인 장성택 박남기, 북한군 대장들인 현철해, 리명수가 수행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정일, 함남도 협동농장 현지지도(6/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함주군의 동봉협동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김 위원장은 모내기를 마친 논과 감자밭을 둘러 보고 “동해안에 위치한 동봉협동농장에서 높고 안전한 알곡 소출을 내기 위해서는 냉해가 심하고 해비침(채광)률이 낮은 동해안의 불리한 기상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해 그에 맞는 경작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언급
 - 이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 군인가족 예술공연 관람(6/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제2기 제2차 군인가족 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제264군부대와 제604군부대의 군인가족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 공연은 북한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 대장, 북한군 대장들인 김원홍, 현철해와 한동근 상장(우리의 중장)을 비롯한 군대의 지휘간부와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노동당 중앙위 부장들인 장성택, 박남기 등 당 중앙위 책임간부들이 함께 관람

● 김정남, 아버지가 정운 좋아해(6/7, 니혼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은 7일 방영된 일본 니혼TV와의 인터뷰에서 막내동생 김정운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그러나 자신의 망명설은 전면 부인
- 김정남은 “정운씨가 후계자가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나는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언급, 그는 이어 “정운씨가 후계자라는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노(no)’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변
- 그는 “정운씨가 아버지를 닮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버지가 동생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다. 아버지는 동생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한다”고 답변
- 니혼TV는 또 김정남이 후계자 문제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결정 사항을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며, 자신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北, 김정일 삼남 후계자 지명 중국에 통보(6/3, 아사히 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후계자로 삼남인 김정운(25)을 지명했음을 북한 노동당 간부가 중국 공산당 간부에게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3일 보도
- 신문은 노동당 간부와 관계가 깊은 북·중 관계 소식통과 양국을 왕래하며 김 위원장과 가까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김정운이 올해 처음으로 당과 군의 인사권을 쥐 당조직지도부장에 취임했다고 밝힘. 신문에 따르면 이 노동당 간부는 금년 초 베이징(北京)을 방문했을 때 중국 공산당 간부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구두로 전달

● 국정원, 北 김정운 후계구도 공식 확인(6/2, 연합)

-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2차 핵실험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인 김정운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공식 확인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 국정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북한 당국이 김정운의 후계 선정 사실을 담은 외교전문을 해외 주재공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
- 북한은 지난 1월 8일 25회 생일을 맞은 김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교시를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비밀리에 하달한데 이어 5월 25일 2차 핵실험 직후 노동당, 인민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부처, 해외 공관 등에 통보함으로써 ‘후계자 김정운’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 핵실험직후 당·군·정에 ‘후계자 김정운’ 통보(6/1, 연합)

- 북한이 제2차 핵실험(5.25) 직후인 5월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김정운(25)이 후계자로 선정된 사실을 노동당과 인민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부처들에 통보함으로써 김정운의 후계자 선정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수의 대북소식통은 1일 “북한 당국이 그동안 노동당과 군부 고위층을 통해 김정운의 후계자 선정 사실을 중간급 단위에 비밀리에 전파해 왔으나 핵실험 직후 노동당과 인민군에는 물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등 행정기관들에도 공식 통보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
- 김위원장은 지난 1월 8일 김정운의 25회 생일에 그를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교시를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비밀리에 하달했으며, 이후 와병중인 김 위원장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및 국방위원을 중심으로 국방위원회가 후계구도 구축을 은밀하게 추진
- 북한 당국은 또 해외 주재공관들에도 김정운의 후계 선정 사실을 공식 통보했으나 외부에 누설하지는 말 것을 강력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최근 북한을 다녀온 한 외국 단체 관계자는 “북한측 인사들로부터 김정운이 지난 3월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 216호 선거구에서 ‘김정’이라는 이름으로 대의원에 선출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는 등 김정운이 대의원직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

나. 정치 관련

● 北단체, 서해 군사도발설은 궤변(6/6,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 북한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6일 이명박 정부가 남북간 무력충돌의 책임을 사전에 북측에 전가하기 위해 서해상에서의 북의 ‘군사적 도발설’을 유포하고 있다며 “도발자들”에 대해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
- 대변인은 담화에서 남측은 “북이 서해상에서 무력도발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망발”에 이어 “전투함정들을 연일 우리측 영해에 불법 침입시키고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강행해 나섰다”며 이로 인해 “서해상에서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언급
- 대변인은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도발설은 저들의 전쟁책동을 정당화하고 있을 수 있는 무력충돌의 책임을 우리에게 미리 전가하며 현 정권에 대한 분노로 끓어번지는 남조선 인민들의 이목을 판데로 돌려보려는 어리석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난

● 노동신문, 南 PSI참가로 무력충돌 시간문제(6/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전면전쟁을 불러오는 망둥’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남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가 “무력충돌과 전면전쟁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거듭 위협

● 北, 당선전간부들 백두산서 결의 모임 개최(6/5, 조선중앙통신)

- 노동당 선전일꾼(간부)들이 4일 백두산에서 결의모임을 갖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당 선전사업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 통신에 따르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답사중인 이들은 또 김정일 위원장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할” 것을 강조하고, “당원과 근로자들이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역사와 업적을 깊이 체득하

고 백두의 뉘으로 살며 일하도록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과 혁명전통 교양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

● 김정일, 군사를 알아야 진짜 정치가(6/5,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5일 '정치를 하려면 군사를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치가는 문무를 겸비해야 한다고, 이 말의 참뜻은 정치가가 군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가르쳐줬다며 김 위원장의 말을 소개
- 이 사이트는 후계자로 내정되기 이전인 김일성종합대학 재학 시절 친구들과 야영생활을 한 일화를 소개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동료들과 대화에서 "현대 정치가의 권위와 역할, 그의 실력은 비상한 군사적 지략과 담력, 뛰어난 영군술에 있다"며 "나는 군사제일주의를 주장한다. 나는 무엇보다 총대를 중시하고 언제나 총대를 제일시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설명, 김 위원장은 또 "나는 결코 평화주의자가 아니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무모한 칼부림에 끝까지 총대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사이트는 소개

● 北매체들, 연일 핵억제력 강화(6/2, 노동신문; 민주조선)

- 북한 매체들은 최근 미국이 국제문제에서 '이중기준'을 적용, 북한과 이란의 핵에 대해서만 문제삼고 있다며 "미국이 천만부당한 이중기준을 내들고 대조선 핵선제 공격, 압살책동에 광분하는 조건에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
- 노동신문은 2일 '부당한 이중 행동기준의 발로'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미국은 두개의 자 막대기를 가지고 국제문제들을 저들의 구미에 맞게 처리하는 데 이골이 난 나라"라며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문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만 문제삼는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이날 '자위적 국방력 강화는 자주권 수호의 근본 담보'라는 다른 논설을 통해선 북한에서 "자위적 국방력은 곧 자주권이고 생존권이며 사회주의 수호의 근본 담보"라며 "우리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고립압살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데 대처하여 자위적 국방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민주조선도 이날 논평에서 미국이 “낡은 시대의 군사적 대결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

● **김정일 요즘 최대 화두, 상승(上昇) 또 상승하자(6/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상승하자!’는 제목의 정론(긴 사설)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5월 1일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불꽃놀이 때 “우리 조국은 자주의 강국으로 높이 올라섰다. 세계를 굽어보는 우리에게는 내려갈 길이란 있을 수 없다. 상승해야 한다. 상승 또 상승만이 우리 혁명의 최후의 승리를 담보한다. 상승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의 말을 받아 “광명성 2호가 날아오르고 (중략) 지하 핵실험의 뇌성이 메아리쳐 간 장엄한 현실 (중략) 강성대국의 영마루(산꼭대기)를 향해 기수를 쳐든 영웅 조선의 상승의 기상이다”라며 “상승 또 상승하자”고 언급

● **北, 핵실험 자축 군중대회 잇따라 개최(6/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삼남 김정운을 선정한 사실을 제2차 핵실험(5.25) 직후 당과 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전역에서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군중대회가 잇따라 개최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은 2일 송림시와 희천시, 단천시, 구성시, 덕천시, 회령시, 김정숙군, 삼지연군, 보천군, 북창군, 전천군, 어랑군, 화대군, 은물군, 숙천군, 곡산군, 재령군, 함주군, 영광군, 연변군 등에서 군중대회가 열렸다고 보도, 이들 군중대회에는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등의 책임간부들과 군인, 근로자, 청년학생들이 참가.
- 북한은 5월 26일 평양시 군중대회에 이어 30일에는 평안남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등 도단위에서 핵실험 성공 축하 군중대회를 개최

● **北, 美대북방송 강화도 핵억제력 강화 구실(6/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발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방송에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으며 그

에 따라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통신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국회에 제출한 2010회계년도 예산안에서 대외 방송지출을 훨씬 늘렸고 그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반공화국 선전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들에 돌렸다”며 “이것은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출현했으나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통신은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거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을 대상으로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 부르주아 생활양식에 대한 선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방송 내용을 비난하고, 이들 방송에 대한 자금지원과 방송시간을 늘려 “우리를 어찌보려는 미국의 그릇된 책동은 그 무엇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

● **조선신보, 정전협정으로 자제했던 것 검토(5/3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0일 ‘제재와 포위환(環), 미국 주도의 선전포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국제 제재는 북한으로 하여금 정전협정 체결 이래 수십년간 자제해 왔던 행동초치들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
-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지 정전협정 때문이 아니다’고 주장한다”며 신문은 특히 5월 25일 북한의 핵심협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거나 선전용으로 써먹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향후 사태발전에 대비해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수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

다. 경제 관련

● **춘궁기 영양실조 어린이 증가(6/3, 연합)**

- 보릿고개를 맞은 북한의 탁아소와 병원에서 영양실조를 앓는 어린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고태관 발라고팔 유니세프 평양사무소 대표가 밝힘.
- 평양에 있는 발라고팔 대표는 3일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춘궁기

에 처한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정도가 중증부터 경증까지 임상적으로 다양하다”며 “현재 악화된 식량 사정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에서 영양실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유엔 기관들의 진단”이라고 언급

- 그는 유니세프가 오는 10월 북한 전역에서 주민 영양실태조사를 벌이기 위해 “곧 북한 정부와 주민영양실태를 포함하여 종합지표 조사 실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언급

● **北군부, 경제 장악 확대, 무연탄 수출 주도(6/3, 연합뉴스)**

- 북한 군부가 석탄 수출권을 내각으로부터 넘겨받는 등 북한 내 알짜 경제 부문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짐. 3일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내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 수출권이 올 들어 내각 소속 무역회사에서 군부 소속 무역회사로 이관
- 북한의 무연탄은 연간 수출 물량이 200만~300만t 규모로 연간 2억 달러 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대표적 수출 품목으로 그동안 군과 노동당, 내각이 고르게 무연탄 수출 쿼터를 나눠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 또 북한 최대 화력발전소인 북창 화력발전소의 통제, 관리권도 올들어 군부로 넘어갔음.
- 1968년 소련의 원조로 건설돼 시설용량 200만kW 규모인 이 발전소는 내각 소속의 전력공업성이 직할 관리해왔으나 올 초 전력공업성 간부가 ‘뒷돈을 받고 국가기관에 공급될 전력을 빼돌려 외자기업 등에 공급했다’는 이유로 숙청된 이후 실질적인 관리, 통제권을 군부가 장악했다고 함.

● **모내기 질높이기 총력(5/27,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5월 27일 ‘모내기의 질 보장에 힘을 넣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모내기의 속도와 함께 질을 높이는 것은 논벼 생산을 늘리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강조
- 신문은 “모내기의 선행공정”이 중요하다며 “수평이 잘 보장된 논, 흙양금이 다 가라앉은 논에 모를 낼 수 있게” 씨레치기(씨레질)를 잘 할 것을 주문하고, 튼튼한 벼모를 내기 위해 모판장에 자주 들르고 모판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

● 北무역특구 나선 장마당, 2천명 운집(6/2, 연합)

-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북한의 나선 선봉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대북 지원 단체 관계자는 2일 “현지에서 영접 나온 당국자들에게 ‘밖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난리인데 어려운 가운데 왔다’고 말을 건네자 이들은 웃으면서 덤덤히 대하더라”고 전언
- 5월 27~29일 방북한 이 단체 관계자는 “16만명 인구의 나선 시내 장마당은 1천500명~2천명정도 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며 “건축자재, 식료품, 야채, 과일, 옷, 이불, 신발 등이 죽 늘어난 매대들에 진열돼 있고 나도 속옷 같은 것을 사느라 흥정하며 1시간 반을 시장에서 돌아 다녔는데 정말 바글바글 했다”고 현지의 ‘일상적인’ 분위기를 설명
- 중국에서 40~50위안하는 이불은 나선에서 30위안으로 더 싼고 싱싱한 털게 3.3kg에 150위안으로 kg당 우리돈 6,7천원 밖에 안돼 180위안어치를 사 7, 8명이 실컷 먹었다는 것
- 그는 “나진 시장은 평양에서 가장 큰 통일거리 장마당보다 커 보였다”며 “주로 중국돈과 북한돈으로 거래가 이뤄졌으며 달러로도 조심스레 거래하기는 하는 것 같기는 했다”고 언급
- 장마당이 열리는 시간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로, “신의주에서 만든 가방도 팔리고 있었는데 품질이 괜찮았고 올해는 특히 명태가 풍어”라고 현지인들이 말했다고 전하고 “시장 상품들은 대부분 중국산이지만 중국을 통해 반입된 한국산도 라벨을 떼 채 거래된다고 한다”고 소개
- 또 나선 지역은 무역특별구이기 때문인지 미주 또는 호주 교포들이 영주권에 해당하는 ‘거주증’을 받아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으며, 최근 러시아의 나선 지역 부두 투자를 반영한 듯 “나선시 남산호텔에서 두서너 그룹의 러시아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오래전부터 현지에서 장사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고 이 단체 관계자는 설명
- 또 중국 현지에서 밀가루와 쌀을 사서 북한에 들어가려 했으나 밀가루는 관세가 30~40%나 붙고 쌀은 아예 반출 금지 품목이어서 결국 강냉이 곡수 400박스만 사서 들어갔다면서 “비료도 110%의 관세가 붙어 있어 구매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라고 소개, 2007년 11월 시작된 중국의 대북 곡물반출 금지는 옥수수의 경우 2008년 연말부터 풀렸고 밀가루는 지난 2월말부터 풀렸으나 쌀은 여전히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

- 그는 “이같은 대북 곡물반출 규제 탓에 이전에는 중국에서 북한의 회령같은 곳으로 물품을 싣고 들어가는 차량이 한번 통관시 10여대였는데 이제는 1, 2대 수준”이라며 “관세가 많이 붙어 이윤도 안 남고 북·중 양쪽 세관이 검사를 까다롭게 하는 데다 북한과 거래하면서 돈도 자주 떼이고 해서 지금은 조선족 장사꾼들도 북한을 많이 드나들지 않는다”고 전언

● 北, 中 브라운관TV 수입 중단(6/1, 연합뉴스)

- 1일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5월부터 중국에서 반입되는 브라운관 TV와 컴퓨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뒤 LCD TV와 컴퓨터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 그동안 북한은 중국을 통해 중고품을 포함, 연간 2만~3만대의 TV를 수입했으며 최근에는 컴퓨터 수입도 증가 추세를 보여왔음.
- 한 대북 무역상은 “핵 실험을 전후해 북한의 보위부가 중심이 돼 외부 문물 유입을 적극 통제하고 있다”며 “고위층들만 구입할 수 있는 LCD는 허용하면서 브라운관 TV와 컴퓨터 수입을 중단시킨 것은 중산층 이하 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 의도로 보인다”고 추측
- 브라운관 생산 업체인 대동강 TV가 최근 중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이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북한 내 독점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라. 군사 관련

● 北, 해군절 맞아 연평해전 거론(6/5, 조선중앙방송)

-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에서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선중앙방송은 5일 ‘무적필승의 해군무력으로 키워 주시어’라는 제목의 방송물에서 북한의 ‘해군절’을 맞아 “우리 해군력은 불패”라고 강조
- 방송은 특히 연평해전을 거론, “서해 해상전투는 우리 영해를 단 0.001밀리미터라도 침범하는 원수들에게 어떤 무자비한 징벌이 가해지는가를 똑똑히 보여준 단호한 선언이었다”고 주장

- 북한군 고위간부, NLL북방 해안초소 순시(6/5, 연합)
 - 북한 인민무력부 고위간부로 추정되는 한 인사가 5월 말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등산곶에 있는 북한군 해안초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짐. 정부의 한 소식통은 5일 “인민무력부 고위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이 5월 말 NLL 북방에 있는 북한 해안 관측소(초소)를 방문한 것으로 안다”면서 “군 당국은 이 간부의 방문 이후 북한의 해안초소와 경비정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 北경비정, 51분간 서해 NLL 침범(6/4, 연합)
 - 북한 경비정 1척이 4일 오후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우리 해군 고속정의 경고통신에 따라 퇴각했다고 합참이 밝힘. 합참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 1척이 4일 오후 2시47분께 연평도 서방 7.5마일 근해 NLL을 0.9마일(1.6km) 가량 침범했고 우리 해군 고속정의 두 차례에 걸친 경고통신에 따라 51분 만인 오후 3시38분께 북상, 올해 들어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은 지난 2~3월에 이어 3번째며 지난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처음임.

- 北, ICBM급 미사일 3~4기 제작(6/2, 연합)
 - 북한이 2009년 말까지 3~4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또는 로켓을 제작한 것으로 1일 알려짐. 이에 따라 북한은 5월 발사된 장거리 로켓과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시험장으로 옮겨진 미사일을 제외하고도 1~2기의 장거리 미사일을 더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은 최근 서해 일대 해군에 실탄 및 포탄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비축할 것을 지시하고 이례적인 기습 상륙훈련까지 실시하는 등 다양한 도발 준비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北, 서해 중북부 7월까지 '항해금지령'(6/1, 연합)
 - 북한이 오는 7월 말까지 서해안 중·북부 해역에 광범위한 항해금지구역 설정한 것으로 5월 31일 알려짐.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황해도와 평안도 앞바다 등 서해 중·북부의 광범위한 해역을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

-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島)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의 숫자가 5월 28일 이후 280여 척에서 120여 척으로 갑자기 줄어든 것도 북한의 이런 조치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

마. 사회·문화 관련

- 북TV, 축구 이란전 생중계(6/6, 조선중앙TV)
- 北, AI예방 철새 이동경로도 작성(6/6,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생물분원 동물학연구소 과학자들이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도를 새로 작성해 전산화까지 마쳤다고 우리민족끼리가 6일 밝힘. 매체는 북한이 “지형학적으로 동아시아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주요 경로중 하나”라며 “전염성 병원체를 나르는 중요한 매개물의 하나인 철새들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나라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언급
- 北, 아이들에게도 적과 싸울 각오 촉구(6/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조선소년단 창립 63돌을 맞아 ‘소년단원들은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이다’라는 제목의 창립 기념사설에서 소년단 조직들에서 “학생들의 심리와 준비 정도”에 맞게 ‘선군사상’과 애국심 교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
 - 신문은 소년단원들에게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고, 항일아동단원들의 투쟁이야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소년빨치산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 원수들이 덤벼든다면 언제든지 맞서 싸울 굳은 각오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광명성2호’ 발사 등 “조국의 미래와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년단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품성은 “장군님(김정일)을 굳게 믿고 따르는 것”이며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 아래 “누구나 컴퓨터의 능수가 되고 20, 30대에 과학자, 박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언급

- 北, 지구환경보호 사업 적극 추진(6/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단합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직면한 가장 큰 난문제들 중의 하나가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라며 "조선은 '세계환경의 날'을 맞으며 기후변화, 환경보호와 관련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국가적, 사회적 관심 속에서 적극 벌이고" 있고 "국제적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

- 北, 처음으로 장기 환경정책계획 수립(6/4, 조선신보)
 - 북한 환경보호연구소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장기적인 환경정책 전망계획을 내년까지 작성할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4일 보도, 연구소는 계획 작성을 위해 환경영향의 평가방법과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렇게 새로 완성한 환경영향 평가방법에 준하여 전반적인 환경실태를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안보리 대북 결의안 내주 초 채택될 듯(6/6, 연합)
 -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의 결의안 협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음. 당초 5일 회의에서 결의안에 최종 합의를 본 뒤 빠르면 주말께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던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이날 중국측이 본국과의 협의를 이유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회의 자체를 갖지 못했음. 이에 따라 대북 결의안은 주말 주요국 접촉을 통해 가닥을 잡은 뒤 내주 초께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나. 북·미 관계

● 클린턴, 北에 여기자 석방촉구 서한 발송(6/8, ABC방송)

- 클린턴 장관은 ABC방송의 대담프로그램인 '디스 위크'에 출연,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서한을 보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을 취해왔다"며 서한전달 사실을 시인, 클린턴 장관은 서한에서 여기자 2명이 국경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간 것을 대신 사과하며, 석방을 호소했다고 ABC방송은 보도
- 클린턴 장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우리는 이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며 이를 위한 절차가 있다"면서 "분명히 우리는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그들의 최근 지원 증거들을 찾아보려고 할 것"이라고 답변

● 오바마, 北 매우 도발적, 강경대응 시사(6/7, 연합)

- 프랑스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보상으로 답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 그는 "두 나라(북한과 이란)를 구별하고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지난 수개월간 행동은 엄청나게 도발적"이라고 언급
- 그는 "그들(북한)은 핵무기를 실험하고 대륙간(발사) 능력이 있는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정말 우리는 도발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

● 美, 北 여기자 재판 계속 진행 중(6/5,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5일 북한이 억류한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 진행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없는 상태라고 밝힘. 크롤리 차관보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이 여기자들에게 북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재판 진행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언급, 그는 여기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스웨덴 대사가 월요일(1일)에 그들을 만났는데 억류 상태를 감안하면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

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언

- 엘 고어 전 부통령이 미국 정부를 대신해 이들 여기자 석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크롤리 차관보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답변
- 크롤리 차관보는 또 “과거 은행 분야에서 취한 조치가 북한의 관심을 분명히 끈 적이 있다”면서 “북한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임. 하지만 그는 북한에 적절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금융제재 방안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그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며 금융 제재 방안은 북한의 회담복귀를 위한 수단이 될 것임을 강조

● 北, 도발대신 협상 복귀해야(6/3, 연합)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권종락 외교차관과의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더 위험한 추가 도발을 하는 대신 비핵화를 향한 협상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 또 대북 제재와 관련, “우리는 여러 옵션을 논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한 뒤 “장기적인 전략이나 향후 어떻게 나아갈 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고 언급

● 보즈워스, 北, 대화 유용성 깨달아야(6/3,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3일 “북한이 (대화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북한이 먼저 대화의 유용성을 깨닫는 것이 대화가 효과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
- 보즈워스 대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처음부터 북한과 대화를 하려 했다”며 북한의 도발행위를 은연중 비판

● 美, 北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중단해야(6/1, 미국무부 대변인)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떠한 탄도미사일 발사실험도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지역 긴장만 가열시킬 뿐”이라며 “북한은 도발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 우드 부대변인은 또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강력한 조치의 하나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분명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호전적 발언과 도발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

- 또 북한에 억류된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을 석방하는 문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선적인 관심사라면서 북한주재 스웨덴 대사가 이날 이들을 개별 접견했다고 밝힘.

● 백악관, 北 핵확산이 최대우려(6/1, 백악관 대변인)

- 미국 백악관은 1일 북한의 최근 도발행위와 관련, 북한이 핵무기를 다른 국가들에 인도하는 확산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기브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핵확산 문제에 대해 항상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답변
- 그는 북한의 최근 행위와 관련, “그들은 준수하기로 합의한 책임에 대해 전적으로 중대한 위반을 하고 있다”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고 싶지 않다”고 언급

다. 북·중 관계

● 中, 대북정책 대폭 조정 불가(6/6, 평향(鳳凰)TV)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대북정책을 대폭 조정할 수 없다는 중국의 입장을 미국에 밝혔음. 홍콩 위성방송인 평향(鳳凰)TV는 6일 양제츠 부장이 5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
- 이에 앞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중국의 대북정책은 명확하며 모두가 알고 있다”고 답변 친 대변인은 북한을 겨냥해 “중국은 각방이 대국적 견지에서 냉정과 자제심을 유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언행을 방지하기를 호소한다”고 언급

● 中, 북한 ‘배은망덕’, 반감 확산(6/3, 환구시보)

- 북한의 지하 핵실험 이후, 중국과 북한이 서로 강한 어조로 비난, 특히, 북한 외무성이 5월 29일 담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에 참여하는 중

국과 러시아를 “미국에 아부, 추종한 세력들”이라고 싸잡아 비판한 이후 양상은 더 격화

- 환구시보는 3일 자 사설에서 ‘배은망덕’이라는 말까지 거론하며 북한을 비판, 사설은 “중국의 수십만 지원군이 피를 흘리며 함께 싸운 덕분에 오늘의 북한이 있는 것”이라며 “국제적인 협의를 무시해가며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도 ‘피로 뭉친 우의(友誼)’를 언급할 수 있느냐” “핵실험은 양국 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난
- 또한 시진핑 국가 부주석과 양광례 국방부장까지 북핵에 대한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냈으며 5월 1일에는 천즈리 전인대 부위원장(국회 부의장·부총리급)의 방북도 취소

● 中, 對北교류 잠정 중단(6/1, 연합)

- 중국이 북한의 2차핵실험과 강경일변도 정책에 썩기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잠정 중단키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짐.
- 베이징 당국은 당초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왕자루이(王家瑞)공산당대외연락부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백지화했다고 소식통들이 전언

라. 북·러 관계

● 메드베데프, 對北 경제제재 지지 시사(6/3, CNBC 방송)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3일 크렘린궁이 발표한 미국 경제전문 CNBC 방송과의 인터뷰 전문에서 “우리는 경제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한 메커니즘을 도입하거나 현 사태를 비난하는 새롭고 진지한 결의를 수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기된 제안들을 지지한다”고 언급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지만 최근 사태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주장, 그는 이어 “핵실험과 이후 로켓 발사는 국제안보를 저해하는 조치들”이라면서 “핵클럽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

● 유엔주재 러 대사, 북한 고립 안돼(6/2, 연합)

-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마련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강력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북한을 고립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되풀이,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2일 러시아 정부 기관지인 로시스카야 가제타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안보리) 결정은 강력해야 한다”고 언급, 그러나 그는 “강력히 대응하더라도 장래 한반도와 역내 안정을 공고히 하려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

3 대남정세

● 남북 개성실무회담 합의(6/5, 연합)

- 남북이 11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공단 관련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2차 회동을 갖기로 합의, 이번 2차 회동은 5일 오전 북측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보내온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제의한 것에 정부가 동의함에 따라 성사

〈남북 당국간 개성실무회담 추진 관련 주요일지〉

- ▲4.16 = 북, 개성공단 사업 관련 중대조치 전달 이유로 당국간 접촉 제의
- ▲4.21 = 남북, 개성공단 사업 관련 당국간 접촉
- ▲4.24 = 玄통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
- ▲5.4 = 북, 남측에 6일 개성 남북경협협회사무소 접촉 제의
- ▲5.5 = 정부, 북에 ‘6일 접촉’ 불가 통보
- ▲5.8 = 정부, 북에 15일 오전 10시 개성실무회담 개최 역제
- ▲5.9 = 北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로 남북대화 거부 시사
북, 남측에 12일 회담 개최 수정 제의
- ▲5.11 = 정부, 북에 15일 회담 개최. 유씨 문제 의제 포함 의사 전달
- ▲5.12 = 오전 남측 관계자 3명 개성공단 방문
남북, 개성공단서 사전 실무접촉. 북,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간부 호출

- ▲5.13 = 남측 관계자, 북에 실무접촉 제의-북 거부
- ▲5.14 = 정부, 북에 회담 대표자 명단 전달-북 접수 거부
- ▲5.15 = 정부, 북에 18일 오전 10시 개성실무회담 개최 제의
북, 남측에 '개성공단 관련 법규, 계약 무효' 통보, 남측 제의 사실상 거부
- ▲5.19 = 정부, 북에 조속한 회담 개최 제의
- ▲6.5 = 북, 남측에 11일 개성 남북경협협회사무소 접촉 제의
정부, 오후 북측 제의에 동의 의사 전달

● 北, 억류직원 평양 압송 가능성(6/2, 연합)

- 북한 당국이 개성에 억류 중이었던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가 평양으로 압송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정보 당국 핵심관계자는 2일 “일부 언론에 유 씨의 평양 압송설이 보도됐는데 개성에서 어디인가로 옮긴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밝힘. 그는 “이 직원이 어디로 갔는지가 문제인데, 평양으로 갔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설명
- 이와 관련,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씨 신변과 관련해서는 직접 확인을 못하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나 개성 기업을 통해 간접 확인을 하고 있다”면서 “유씨 신변에는 이상이 없고 개성 인근 지역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까지는 간접적으로 확인됐지만 최근 (평양으로) 압송됐다는 것은 현재 확인된 바 없다”고 답변

06.08-06.14

6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별첨 1: 北외무성 '유엔결의 반발·우라늄 농축' 성명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동부전선 보병사단 지휘부 시찰(6/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동부전선에 있는 북한군 제7보병사단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
 - 그는 시찰에서 “7사단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물리치는 조국해방전쟁(6.25전쟁)의 가열한 전투마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선인민군의 영웅적 기개를 떨친 위훈 많은 부대”라고 말하고 “전체 군인들이 혁명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 전취물을 더욱 튼튼히 지켜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
 - 이번 시찰엔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 등이 수행

나. 정치 관련

- 북한은 사회주의의 동방초소(6/14,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14일 ‘선군으로 정의와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시며’라는 제하 기사에서 “기승을 부리며 달려드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온갖 전횡을 제압하고 사회주의 동방초소를 굳건히 지켜가는 조선의 모습은 세계 평화 애호인민들의 동경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크지 않은 조선이 웬만한 나라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붕괴되었을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자기보다 몇십배나 덩치가 큰 제국주의 괴수와 그 연합세력의 압살공세를 굳력으로 단호히 제압하는 현대사의 기적을 창조한 비결”은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 “선군영도”라고 강조
- 北, 한미정상 확장억지력 명문화 비난(6/13,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13일 ‘자멸을 초래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확장억제전력 제공’을 명문화하면 “미국이 ‘핵우산’의 미명하에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남한에 더 많은 핵무기들을 서슴없이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조선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 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

● **北, 새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6/13, 북 외무성 성명)**

- 북한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874호에 강력히 반발,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와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 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
- 북한 외무성은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 배격하며 미국과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며 “위임에 의해” 3가지 대응조치를 선언
- 외무성은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한다”며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 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힘.
- 이어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며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이상이 재처리됐다”고 밝힘. 이는 10·3합의에 따라 제거하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됨.
- 외무성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히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제 아무리 고립봉쇄하려고 하여도 당당한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며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단호히 맞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대응방식”이라고 주장

● **조평통, 위조화폐설은 모략(6/12, 조선중앙통신; 조평통 서기국 보도)**

- 12일 조평통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남조선의 우익보수 언론들은 지난해 11월 부산지방경찰청이 100달러짜리 위조화폐를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유통시키려던 남조선인 4명을 적발, 체포했다느니, 조사결과 북에서 만들어진 위조화폐인 것으로 판명됐다느니 하는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고 주장
- 그는 “이전에도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우리 공화국(북)에 대한 금융제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위조 화폐설을 내들었던 바 있다”며 “납아빠진 반공화국

모략 각본을 또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조치에 대한 제재 구실을 찾지 못해 안달이 난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의 궁색한 처지를 그대로 드러낼 뿐”이라고 주장

- 12일 조평통은 또 서기국 이름으로 ‘보도’를 발표해 남한 정부가 “있지도 않은 ‘북 정보’라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내돌리고 있다”며 “우리의 그 무슨 ‘미사일발사 준비’니, ‘핵시설 재가동’이니, ‘탄약비축’이니 뭐니 하는 자료들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로 알려주는 등 여러가지 수법으로 이른바 ‘북 정보’라는 것들을 여론화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

● 조선신보, 후계결정 시사대목 소개(6/12, 조선신보)

- 조선신보가 12일 ‘제국주의와 의지전’을 강조한 6월 9일자 노동신문 논설을 소개하면서 “조선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가 빛나게 해결되었다”는 대목을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의 후계내정과 관련, 주목됨.
- 조선신보는 이날 ‘제국주의와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 제목의 장문의 노동신문 논설을 분석한 글의 제목을 ‘노동신문, “중대문제” 해결되었다고 강조, “올해는 더없이 의의 깊은” 해’라고 담았음.
- 조선신보는 또 노동신문의 논설 2부는 “대를 이어 계승되는 의지전이 참다운 의지전”이라는 데 대해 서술했다며 주요 대목들을 발췌 소개한 뒤 이례적으로 논설 전문을 함께 소개

● 北, 안보리, 미국의 힘에 아침(6/12,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민주조선은 12일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책임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게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안보리가 북한의 “자위적 핵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미국의 힘에 대한 아침”이라고 비난
- 신문은 “오늘 조선반도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에 추종하고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무책임한 처사에 있다”며 “안보리가 우리 공화국과 관련한 자기의 부당한 결의와 결정들을 철회하고 사죄하지 않는 한 조선반도의 근본문제는 절대로 풀릴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 北, 혁명무력 유일영도체계 강조(6/11,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선군정치는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체계에 의하여 담보되는 정치 방식’이라는 제목의 방송물에서 김일성방송대학 철학부 우향숙 박사의 발언을 통해 “전반적 혁명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정규무력과 민간무력 등 모든 형태의 혁명무력이 하나의 명령, 최고사령관의 명령만을 무조건 철저히 받아들이고 그 지시에 따라서만 한결같이 움직이는 규율과 질서”라고 역설
- 그리고 “일단 최고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전반적 혁명무력은 즉시 그 수행에 착수하며 한 사람같이 동원되어 철저히 관철하게 된다”고 방송은 강조, 방송은 “선군정치가 의거하고 있는 영도체계는 전반적 혁명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체계”라며 이같이 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조

● 北, 세기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누리(6/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집중적인 선전선동 공세로 모든 150일 전투장들이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대와 세대, 세기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이라는 표현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 체제를 시사
- 노동신문은 당 조직들이 당원과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해 “150일 전투에서 세대와 세대, 세기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수령 결사옹위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통전부, 對南 반정부 선동 강화(6/10,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대변인 담화)

-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대변인은 10일 남한의 6·10 항쟁 22주년을 맞아 남한 주민들의 반(反)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담화를 발표
- 조국전선은 담화에서 “리명박 패당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아 독재 체제를 부활시킴으로써 남조선은 인민들의 자주적 권리와 존엄이 무참히 짓밟히는 자주와 민주주의 폐허지대로, 최악의 인권불모지가 됐다”고 언급

- 답화는 “오늘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는 6월 항쟁의 정신으로 각 계층이 총 쫓기하여 결사 항전을 끝장을 볼 때까지 과감히 벌려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제2의 6월 항쟁의 폭풍으로 민족적 재난을 몰아 오는 리명박 패당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

● 北 김정일 20대 때 첫 집무 강조(6/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운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150일 전투’의 첫 50일간 성과를 선전하는 글에서 “20대의 젊으신 우리 장군님”이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이른바 ‘당사업’을 개시한 45주년 (6.19)을 거론

- 신문은 10일 ‘승리의 시간이 흐른다’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150일 전투’를 시작한 지 50일째라며 각 부문에서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는 등 “전 전선에서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

● 北, 美, 핵군축 원하면 모범 보여라(6/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핵숨박꼭질(숨바꼭질)을 걷어치워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핵 군축과 전파 방지를 원한다면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같은 핵전쟁 게임을 놀(할) 것이 아니라 핵무기 철폐에서 실천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또 “미국이 제창하는 남조선,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은 본질에 있어서 핵선제공격론”이며 “노골적인 핵전쟁선언”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은 핵숨바꼭질로 농간을 부리려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놀음을 그만둘 때가 되고도 남았다”고 비아냥

● 北, 핵억제력, 보복타격용 공격수단(6/9, 민주조선; 노동신문)

- 민주조선은 9일 ‘우리의 핵시험은 정당한 자위적 조치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북한의 핵억제력을 “강력한 방어수단”이자 “보복타격을 가할 무자비한 공격수단”이라고 규정

- 이어서 신문은 “우리의 핵억제력은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방어수단으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할 무자비한 공격수단으로 될 것”이

라고 주장

- 노동신문도 9일 ‘위험한 군사적 광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적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선제타격에는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침략자들을 단호히 짓밟개버리는 것이 우리의 자위적 대응방식”이라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건설공사중...2012년 강성대국 목표(6/1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시장과 아파트, 공장 등의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평양에서 이뤄지는 건설에는 중국과 중동 국가들의 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전언
- 북한의 위성사진 연구자인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미국의 위성사진 업체가 지난달 촬영한 해주, 신의주 등 북한의 위성사진들을 과거 사진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북한의 건설 공사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시장과 아파트, 공장의 건설이 가장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고 RFA는 보도
- 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네덜란드의 정보기술 자문회사 GPI컨설팅사의 폴 치아 대표는 “북한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무실 빌딩과 호텔, 쇼핑몰 건설에 더 매진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과 중동 국가들에서 자본이 많이 들어가 건설 공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

● 北, 英관광객 비자발급 중단(6/11, 연합뉴스)

- 북한이 영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베이징의 북한 관광 전문업체 고려관광이 11일 밝힘. 고려관광은 이날 북한 국영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가 “영국 정부가 최근 북한 시민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조치와 관련해 우리도 당분간 어떤 영국 시민도 관광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언
- 북한을 방문하는 서방 관광객은 연간 2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영국인은 수백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

- 北, 외국인용 대동강 보트관광 상품 개발(6/1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평양 대동강에서 즐길 수 있는 수상 보트를 내놓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베이징에 있는 북한관광 전문 '고려관광'의 사이먼 카커럴 대표의 말을 인용해 보도
 - 카커럴 대표는 "북한 당국과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수상 보트를 즐길 수 있는 상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북한은 그러나 이 보트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북한 사람의 고용을 금하는 항목을 계약에 포함시켰다고 카커럴 대표는 소개

- WFP, 北주민 식량섭취량 줄어들고 있어(6/11,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이 춘궁기를 겪으면서 이미 많은 주민들이 식량부족으로 압박감을 받고 있으며 식량 섭취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세계 식량계획(WFP) 베이징사무소의 레나 사벨리 공보관이 강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
 - 사벨리 공보관은 이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또 북한의 식량난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이 줄어들어 최근 몇달 사이에 북한 현지 활동 WFP 요원 수를 올해초에 비해 약간 줄였다고 소개
 - WFP의 대북 지원국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단일 국가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 나라는 없으며, WFP는 대신 유엔 기금과 다자협력 기구에서 마련한 기금을 북한에 배정하고 있음.

- 北, 대동강 상류 영원발전소 준공(6/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대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평안남도 영원발전소를 완공해 9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영원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대동강의 풍부한 물 자원을 이용해 전력생산을 늘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어떤 큰물(홍수)이 나도 평양시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발전능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곽범기 내각 부총리, 평안남도 건설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준공식에서 노동당 중앙위는 축하문을 통해 "영원발전소가 완공된 것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를 쏘아 올린 것과 같은 쾌거"라며 "어

려운 환경 속에서 영원발전소를 일떠세운 건설자들이야말로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를 어떻게 받들고 결사옹위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영웅”이라고 주장

※ 1996년 공사에 착수해 13년 만에 완공된 영원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13만 5천여kW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대동강 상류지역에 있어 앞으로 여름철 대동강 홍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임.

● **北식당들에 식기세척기 보급, 노력절약(6/9, 조선신보)**

- 북한에서 “식당을 비롯한 봉사망(봉사시설)들에 회전식 그릇세척기(식기세척기)가 널리 도입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9일 소개
- 이 세척기는 세척솔이 회전하면서 그릇의 겉과 안을 자동으로 닦아주며 밥과 국 그릇, 접시를 비롯한 모든 식기들을 규정된 시간 내에 세척할 수 있다고 함.
- 조선신보는 또 북한의 ‘평양아명조명합영회사’가 다양한 에너지 절약형 조명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소개

라. 사회·문화 관련

● **北도 ‘녹색성장’에 관심(6월호, 조국)**

- 북한도 최근 공장, 기업소들에 환경관리체계와 환경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월간 ‘조국’ 6월호가 보도,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의 정형일 국장은 ‘조선(북한)의 환경보호 상황’이라는 제목의 이 잡지 특집기사에서 “조만간 우리나라(북한)에서도 환경 마크가 찍힌 ‘환경제품’, ‘녹색제품’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또 “환경보호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에도 더 큰 힘을 넣음으로써 에너지 절약기술, 폐기물 재자원화 기술 등 보다 능률적인 환경보호 기술을 개발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전반적으로 도입해 나가려고 한다”고 언급

● **몽골장관, 北발사축하 모임서 일부주민 의문 표시(6/1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관한 북한 언론의 보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수흐바타르 바트볼드 몽골

외교부 장관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

- RF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바트볼드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민간연구소인 국가정책연구소의 강연회에 참석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인공위성 발사를 축하하는 평양의 어느 모임에서 북한이 실제로 위성을 발사했는지에 의문을 나타낸 참석자들이 많았다”며 “이들이 과거와는 달리 북한 언론의 관련 보도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언

● 北, 신종 플루 예방사업 활발(6/10,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보건성 중앙위생방역소가 최근 각국에서 급격히 전파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A(H1N1, 신종 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예방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0일 보도
- 중앙위생방역소는 평양시를 비롯해 북한 전역의 위생방역소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장악 추진 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생선전 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

● 北, 10여년만에 야생동물 전면조사(6/9, 조선신보)

- 북한이 1990년대 후반에 이어 10여년 만에 다시 야생동물 전면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9일 보도
- 북한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와 생물분원 생물다양성 및 생태기술연구센터, 국토환경보호성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 조사는 “동물자원의 분포 상태와 자원량, 특히 특산종과 위기종, 희귀종들의 상태 확인에 주력”해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관한 자료를 종합,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신문은 설명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안보리 對北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6/13, 연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오후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대북 결의안을 공식 채택, 결의안은 전체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 합의로 채택
-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들을 확대하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이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재 이행 정도에 따라 북한은 상당한 금융압박 등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최종 합의된 결의안 초안을 수정없이 통과
 - 안보리 헌장 7장 41조에 의거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해 1718호 때 그냥 '규탄한다'고 한 것에 비해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 문구를 담음.
 - 또 무기금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도 금지
 - 금융제재도 기존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북한의 무기 개발·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포함
 - 또 제재 대상 기업과 물품, 개인의 지정을 포함해 결의 1718호의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30일 이내에 조정키로 해, 제재대상 기업이 현재 3개에서 일부 추가 될 것으로 보임.
 -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 조치와 무기금수 확대, 1718호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채택일로부터 45일 내에 보고하게 됨.

나. 북·미 관계

● 클린턴, 北의 도발행위에 깊은 유감(6/14,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맞서 우리나라 농축작업과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등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도발적 행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

- 클린턴 장관은 이어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엔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핵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와 관련, “북한이 지난 수개월 동안 해 온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 통일된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이용해 핵무기를 발사하려는 능력을 보유하려는 시도가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를 대표해 보여준 훌륭한 성명”이라고 언급

● 美국무부, 北에 도발중단-6자회담 복귀 촉구(6/13, 연합뉴스)

- 북한이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맞서 우라늄 농축 작업 등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들을 중단하고 북핵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

●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주요의제는 북한문제(6/12, 백악관 대변인)

- 로버트 기브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내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는 북한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

● 美정보당국, 김정운 후계지명 확인(6/12, 폭스뉴스)

- 미국 정보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삼남인 김정운을 지명했다는 그간의 보도와 관측을 처음으로 사실로 확인했다고 폭스뉴스가 12일 보도, 미 정보당국은 김정운 후계확정과 관련해 북한군 내부에 시달된 지시 및 북한 재외공관이 김정운의 후계지명을 축하하면서 ‘충성서약’을 한 전문을 중간에 입수한 것으로 알려짐.
- 미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군부 지도자들은 6월 3일 “북한 군대 및 주요 군사기관 내부에서 김정운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긴 6가지 말씀요지를 하급 간부들에게 시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함.
- 설득요지들 가운데는 “김정운은 군사적으로 천재이며, 장군님(김정일)의 후계자”라고 치켜세우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美정보당국, 北 3차 핵실험 정보 파악(6/11, 폭스뉴스)

-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이뤄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대응,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주요 행정부 관리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폭스뉴스가 11일 보도
- 특히 미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내 소식통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12일로 예정된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이 이뤄지게 되면 4가지 행동에 나설 계획이며, 핵실험은 이 가운데 하나라고 폭스뉴스는 보도
- 나머지 3가지 행동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긴장고조, 북한 서해안 군사기지에서 대륙간탄도 미사일 추가 발사라고 이 방송은 보도

● 보즈워스, 北 테러국 재지정 효과 미미(6/12,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1일 북한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미국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
-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후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대북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만약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오지 않고 대립국면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시아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그러나 보즈워스 대표는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음.
-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의 후계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론의 보도가 근거를 두고 이뤄졌든 아니든 관측성에 그치고 있는 것이지 공식적인 지명절차는 없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지도자가 누가되든 북한을 있는 그대로 봐야지, 북한이 장차 이럴 것이라고 예단하는 방향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언급

● 美국방장관, 北, 군사행동 준비정황 없어(6/12, 연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사 행동을 준비하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1일 밝힘.

● 보즈워스, 北 침공·정권전복 의도 없다(6/10, 연합)

- 미국은 북한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간 노력의 하나로 양자 대화와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으며, 북한을 침공하거나 무력으로 정권을 바꾸려는 의사는 전혀 없다고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
- 그는 “북한이 미국에 의한 위협 또는 적대정책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와 반대로 우리(미국)는 북한을 침공하거나 무력으로 정권을 바꿀 의도가 없고 이는 북한에도 반복적으로 명백하게 전해졌다”고 강조했다.
-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견해가 다른 국가들과 직접 대화할 의지를 표명해왔고 이는 북한에도 직접 전달됐다. 특히 6자회담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어가고 양자 대화를 지속하고 비핵화 및 정상적 관계를 위한 노력을 할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신호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북한에 대한 실망감도 표시

● 美국방, 北 미사일 요격 자신(6/9, 연합)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9일 북한이 미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을 현재 갖추고 있는 미사일방어 체제만으로도 충분히 요격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 게이츠 장관은 “현재 배치된 요격미사일 30기는 앞으로 수년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만일 그같은 위협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커진다면 요격미사일 수를 어렵지 않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美, 북한에 특사 파견 이미 제안(6/8, CNN)

- 미 정부가 북한에 앨 고어 전 부통령과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가운데 한 명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미국 CNN이 8일(현지 시각) 보도, 미 정부는 고어 전 부통령과 리처드슨 주지사 가운데 한 명을 북한 측에 특사로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북한 측으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짐.

● 백악관, 北핵·여기자 연계조짐 없어(6/8, 미백악관)

- 미국 백악관은 8일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에 대한 북한 당국의 '12년 노동교화형 선고'와 관련, 이들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즉각 석방을 촉구
-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이번 건은 인도적 문제"라면서 "이들 여성들은 결백하며, 가족들에게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 또 "정부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억류는 다른 문제들과 연계된 것이 아니며,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힘.

다. 북·중 관계

● 中, 유엔 안보리 결의안 지지(6/13,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13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지난 5월25일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지지한다고 밝힘.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핵비확산의 유효성을 침해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
- 그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적당하고 형평성에 맞는 반응을 보인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하고 "중국은 책임감을 갖고 건설적인 태도로 협상에 참여했다"고 설명, 친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북한의 핵실험을 결사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강조
- 그는 "중국은 북한이 주권 국가이자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한 행동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NPT(핵확산금지조약) 복귀 이후 누릴 수 있다"고 언급

라. 북·일 관계

- 日자위대, 북한 화물검사 정보제공 한정(6/14, 요미우리신문)
 - 일본 정부와 여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에 따라 실시하는 화물검사와 관련, 해상자위대의 활동은 수상한 선박 등의 정보 수집에 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4일 보도
 - 이는 해상자위대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경우 북한과의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짐.

- 日, 대북 추가 제재안 내주 각의 결정(6/12, 산케이 신문)
 - 일본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조치로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 등을 담은 추가 제재안을 오는 16일 각료회의에서 공식 결정할 계획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2일 소개
 -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또 신속한 대북 제재 발동을 위해 이런 추가 제재안을 각료회의 의결과 동시에 공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
 -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및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 대상으로 쇠고기, 송이, 참치 등 24개 품목의 사치품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엔 2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수출을 전면 금지키로 했음. 일본 정부는 일단 내년 4월 13일까지 수출 전면 금지 등 추가 제재를 시행하고, 추후 북한의 자세 변화 등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
 -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인적 왕래 제한 대상도 확대하는 등 대북 압박도 강화하기로 했음. 1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북 무역과 관련된 제재를 위반해 형이 확정된 재일 외국인이나 외국인 선원도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

3 대남정세

● 北, 개성은 軍요충지…값어치 환산불가(6/12, 연합)

- 북한이 11일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토지임대료로 5억달러를 요구하면서 6.15공동선언 이행 문제를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
- 12일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전날 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공단 부지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며 군사요충지를 남한에 내 준 것은 6.15 공동선언 때문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짐. 북측은 이어 “남측이 6.15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6.15의 혜택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면서 토지사용료 5억달러를 요구한 뒤 ‘남측 토지 분양가격을 감안하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는 언급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언
- 회담에서 북측은 토지임대료 외에 개성공단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로 올려 줄 것과 2015년부터 부과기로 되어있는 토지사용료를 평당 5~10달러로 책정, 내년부터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유씨 개성에 있나? 北 편한 대로 해석해라(6/12, 연합)

- 11일로 북한 억류 74일째를 맞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는 이날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접촉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함. 우리측은 회담 전부터 유씨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이날 회담 기조발언 등을 통해서도 유씨를 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전해짐. 그러나 북측은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임금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강조하면서도 유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함.
- 정부 대표단장을 맡은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는 이날 개성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유씨를 접견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는 “유씨가 개성에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고 묻자 북측은 ‘편한 대로 해석해도 좋다’고 답했다”고 답변, 정부 당국자는 “아직 개성에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다시 언급

〈첨부1〉 北외무성 ‘유엔결의 반발·우라늄 농축’ 성명

- 북 외무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 1874호가 채택된 것과 관련, 13일 성명을 내고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하고,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외무성 성명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6월12일 미국의 사측 하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끝내 우리의 2차 핵시험을 결코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채택했다. 이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 주도하의 국제적 압박공세의 또 하나의 추악한 산물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 결의로도 모자라 위조화폐요 마약밀매요 하는 허구들을 조작해내 각기 우리나라에 대한 단독 제재를 더 가하기 위한 비열한 음모까지 꾸미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더욱 깊숙이 끌어들임으로써 조선반도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첨예한 대결국면을 조성했다.

이 대결은 한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부정해 나선 미국과 그에 추종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불법무도한 강권행위에 의해 발단됐다.

미국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4월14일부 의장성명에는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으며, 오직 제도를 달리하는 나라에 대한 적의와 거부감,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순종해야 한다는 오만과 전횡만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는 작지만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이다. 미국의 강권행위가 용납된다면 우리 공화국은 남들이 다 하는 위성발사를 다시는 할 수 없게 되며 우주 이용 권리를 영원히 빼앗기게 된다.

우리의 2차 핵 시험은 이러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해 단행된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 조치다. 오늘의 이 대결은 본질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며 조-미 대결이다.

자주와 평등을 떠나서 진정한 평화란 있을 수 없다. 누구든 우리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핵보유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으로 인한 불가피한 길이었음을 알고도 남을 것이다.

이제 와서 핵 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의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 배격하며 미국과의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의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첫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한다. 현재 폐연료봉은 총량의 1/3 이상이 재처리됐다.

둘째,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한다.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 보장을 위한 우라늄 농축기술 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

셋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제 아무리 고립 봉쇄하려고 하여도 당당한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단호히 맞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대응방식이다.

주체 98(2009)년 6월 13일 평양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6.15-06.21

6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가극 관람, 당간부 대거 동행(6/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 고위간부들을 대거 동행하고 함흥대극장에서 가극 '홍루몽'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김 위원장은 피바다 가극단에서 '북·중 친선의 해'를 맞아 제작한 '홍루몽'을 관람한 뒤 공연내용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우리의 문학예술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
- 특히 이날 공연관람에는 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을 비롯해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최익규 선전선동부장, 박남기 당 부장, 김양건 통일선전부장 등 노동당 고위간부들이 동행, 또 이날 관람에는 현철해, 리명수 군 대장도 동행

● 김정운, 北국방위원장 대행 집무(6/20, 마이니치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부상한 삼남 김정운이 국방위원회에서 '위원장 대행'으로 집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0일 보도, 신문은 북한 지도부와 가까운 복수의 관계자가 증언했다고 보도, 신문에 따르면 '위원장 대행'은 정식 직책이 아니지만, 북한 내 최고 지위인 국방위원장을 보좌하는 자리로 보여 김정운이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굳혔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
- 마이니치는 북한군 중추기관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이 올해 초 김정운이 후계자로 선출됐다는 내부 통지를 보낸 바 있다며 그 후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중심으로 후계 체제 정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
- 또 인민무력성과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김정운 영도체계의 아래"라는 용어가 문서에 사용되고 있다고 소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5월 25일 이후에는 복수의 재외 공관에 후계자 결정 전문이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이달 초순에는 조선노동당 지도부가 전국 당 조직에 김정운의 후계 내정을 전달했으며 당시 "지금(김 위원장이 김정일 국가주석의 후계로 결정될 당시와는)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후계자가 누군가에 대해 숨길 필요가 없

다”는 김 위원장의 ‘말씀’도 첨부했다고 마이니치는 전언

- 북한 지도부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정운씨는 명확히 장군님(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후계지명을 받은 것 같다”며 “정운씨는 당에도 인민무력부에도 적이 없고, 국방위원장 대행·대리의 입장으로 전념하고 있다. 장군님에게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그대로 위원장에 취임한다는 의미다”라고 설명

● **北주재 외교관, 김정일 건강 악화(6/18, 환구시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최근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평양시내 는 별다른 이상없이 평온하다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8일 북한주재 한 국가 대사의 말을 인용, 보도
- 익명을 요구한 이 대사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 크게 악화돼 국내정세가 복잡해졌고 김 위원장은 이 때문에 삼남인 김정운을 일찌감치 후계자로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이 외교관은 이어 평양은 16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규탄하는 10만 군중집회를 개최한 후 평온을 되찾았다고 전언, 평양 거리는 안전하고 계엄의 조짐도 없으며 시민들은 출입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어떤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 외교관은 소개
- 북한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에 찬성한 것은 어쩔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을 크게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중국을 친구로 여기고 있다고 이 대사는 소개

● **北, 주중대사관에 정운 후계 시사 전문 발송(6/18, 도쿄신문)**

- 북한이 5월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삼남 김정운을 내정하고 후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전문을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 보낸 것이 확인됐다고 북한 관계자 및 북한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쿄(東京)신문이 18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전문 내용은 5월 30일 베이징 주재 최진수(崔鎭洙) 북한대사가 관원들에게 전달

● **김정일 딸도 베른서 유학(6/16, 마이니치신문)**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딸이 1990년대 후반부터 스위스 베른의 공립 초등학교에 유학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6일 보도, 신문은 딸의 이름

이 예정(イェジョン)이라고 전하면서 딸의 이름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는 영순(英順)이라는 설도 있으며, 김 위원장의 전속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藤本建二)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여정(ヨジョン)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소개, 예정씨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중인 2000년말께 학교를 그만두고 귀국했음을 언급

- 예정씨는 차남 정철, 삼남 정운씨와 마찬가지로 고영희씨가 생모이며, 1987년에 태어났으며, 후지모토씨는 김정일 위원장의 딸이 9월 26일에 태어났다고 밝혔음.

나. 정치 관련

● 北, 확장억지력은 핵전쟁론 비난(6/20, 통일신보)

- 통일신보 20일 ‘외세 공조로 동족을 해치려는 무모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를 통한 안보공약’에 대해 “뒤집어 놓은 핵전쟁론”이라고 비난
- 신문은 이 대통령이 최근 미국을 방문, “미국의 현 당국자를 비롯하여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고위 인물들을 만나 그 무슨 ‘핵문제에서의 공조’니,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를 통한 안보공약’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 댔다”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제공론은 뒤집어 놓은 ‘핵전쟁론’”이라고 주장
- 신문은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언급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대해서도 “오직 외세를 등에 업고 핵전쟁을 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승공통일’을 이루어보려는 어리석은 야망만이 가득차 있다”고 남한 정부를 비난

● 北, 핵실험으로 ‘우리민족끼리 통일’ 담보(6/20, 통일신보)

- 북한은 2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실시한 결과 “조선민족의 힘은 열백배로 더욱 강해졌으며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을 힘있게 추동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통일신보가 주장
- 신문은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전후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6.15선

언에 대해 “망각 속에 사라진 합의”라고 말하는 등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패거리들”이 6.15선언을 폄하한 것을 “온 겨레의 통일지향과 염원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행위”라고 비난, 또 “북남공동선언을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 강화 조치와 억지로 연결시켜 시비중상하고 있는 것”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핵실험은 “그 누구의 도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자력갱생의 산물”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전고투하면서 기어이 해낸 것”이라고 주장

● 北, 제재에 눈썹하나 까딱 안해(6/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조선 사람의 본때’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우리에 대하여 제재와 봉쇄의 도수를 높여야 한다고 벽적 고아대는 적대 세력들이 어리석고 가소롭다”며 “자립의 토대 위에서 제 땅의 것을 가지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인민이 눈썹 하나 까딱할 것 같은가”라고 주장
- 노동신문은 “설명도 권고도 논리도 통하지 않는 제국주의 강도배들에게 총대가 말을 하게 해야 한다고 우리 군대가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 어떤 적당한 담보나 보잘 것 없는 양보따위나 받아내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갖 희생도 무릅쓰며 무적의 국방력을 다져온 것이 아니다”고 소개

● 김영남, 우리 혁명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6/18,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당사업 시작’ 45주년을 맞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창창한 미래가 펼쳐진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며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상임위원장은 “오늘 우리 혁명은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고 머지 않아 조국땅에는 김정일 시대의 강성대국 기념비가 높이 솟아 오를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모시고 혁명의 수뇌부 두리(주위)에 굳게 일심단결”하자고 호소
- 또 “무적의 군력에 의거해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강화하며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며 “최고사령관의 명령일하에 하나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영군체계와 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로로 준비”시키는 동시에 “국방공업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 보고대회에는 오극렬, 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 전병호, 김기남, 최태복, 김중린 당비서, 김영일 총리, 로두철 부총리,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겸 국방위원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대거 참석했으나, 현재 중국을 비공식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음.

● 北, 對北제재 반대 평양시 10만 군중대회 개최(6/16,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은 1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10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1874호)을 규탄하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16일 보도
- 인민무력부 박재경 부부장은 이 대회에서 “우리 인민군은 그것(안보리 제재)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 그는 “우리 손에 쥔 핵무기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방어 수단인 동시에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는 공격 수단”이라고 강조
-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의 전량을 무기화하며 우라늄 농축 작업을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과학원 박길남 실장도 “우리 과학자들은 외무성 성명대로 우라늄 농축 작업에 본격 착수하는 것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할 것”이라고 주장

● 北통신 美 화폐위조설, 공여지책(6/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가소로운 공여지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행정부 내에서 최근 북한의 위조화폐 제작·유통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이 통하지 않는데 대한 좌절감의 반영”이라고 비난
- 통신은 “우리가 평화적 위성발사에 성공하고 저들의 오만부당한 적대행위에 초강경 대응하자 미 행정부가 황황히 화폐위조설을 꺼내든 것은 우리를 모독하고 압력을 가해 굽어들게 해보려는 것으로서 세계에 대한 파렴치한 기만”이라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美지원 식량 감시없이 임의 배분(6/2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에서 식량배분 활동을 중단하면서 남겨둔 미국 정부의 지원식량 2만2천t을 북한 당국이 멋대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 익명의 미 국무부 관리는 “미국의 비정부단체들이 북한 당국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지난 3월말 북한에서 모두 철수한 후, 이 단체들이 배분을 끝내지 못한 식량 2만2천t을 북한 당국이 예정된 수혜자들에게 배분했다고 통보해왔다”며 “구호요원의 감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합의사항대로 배분했다는 북한측의 주장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를 표시

- 美·유엔, 對北 제재에도 인도지원은 계속(6/20, 미국의소리방송; 자유아시아 방송)
 - 미국 주도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섰으나 미국과 유엔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은 지속될 전망, 유엔개발계획(UNDP)의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2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대북 지원사업을 재개할 것”이라며 “북한내 7개 사업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사회의 농업분야로 제한돼 있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1명의 UNDP 국제요원이 평양 임시사무소에서 정식사무소 개설을 준비중이나 UNDP의 대북 지원사업이 완전하게 재개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또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가 미국의 민간단체들과 손잡고 벌여오던 대북 의료지원 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 국무부 관리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주민의 복지에 관해 염려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 4개 민간단체는 400만달러를 들여 북한 병원에 전력과 의료장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그는 “미국 정부는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북한 의료환경의 변화를 추구한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은 미국과 북한간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라고 설명

● WFP, 北에 아사자 발생 우려(6/19, 자유아시아방송)

- WFP의 폴 리슬리 대변인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아사자 발생에 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식량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숨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
- 그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이렇다 보니 북한 주민 사이에서 미국의 식량지원에 관한 대화와 질문이 많이 오간다”며 “미국의 식량지원이 중단된 이유를 묻거나, 언제 재개되느냐는 등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소개
- 리슬리 대변인은 “현재 북한주민 150만명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였다”며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2kg의 쌀과 1kg의 곡물을 지원하지만 요즘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끊겨 이의 절반이나 4분의 1밖에 공급할 수 없다”고 설명, “지난해 추수한 식량이 다 떨어지고 지난 몇달 동안 외부 지원도 끊겨 북한주민의 식량사정은 매우 열악하다”며 “다음 추수때까지가 걱정”이라고 소개
- 이와 관련, 미 국무부 커트 통 한국과장은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미국의 식량지원이 중단된 상태지만 지원 재개를 논의할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있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정치적 사안과 별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힘.

● 北, 국제 보험 사기로 현금 조달(6/18, 워싱턴 포스트 지)

- 북한은 그동안 국제적인 보험사기를 통해 상당액의 필요한 현금을 조달해 왔다고 워싱턴 포스트 지가 18일 보도
- 북한은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운송사고나 공장화재, 홍수피해 및 기타 자연재해 등을 내세워 외국 유명 재보험회사들로부터 수억달러를 받아냈으며 이에 따라 국제 보험시장에서 북한에 대한 재보험이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포스트지는 소개
- 북한의 ‘세련된’ 보험사기는 주로 조선국영보험공사를 거쳐 재보험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포스트 지는 보험공사의 간부를 지낸 김광진 씨의 말을 인용해 지난 2003년 2월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아 낸 2천만 달러가 싱가포르로부터 베이징을 거쳐 평양의 지도자 김정일에게 직접 보내졌다고 보도

- 2008년 독일의 알리안츠와 영국의 로이드를 비롯한 일부 재보험사들이 북한이 주장한 2005년 헬리콥터 추락사고 보상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험 사기의 일단이 드러나기 시작, 보험사들은 추락사고가 연출됐으며 이에 대한 북한 법원의 결정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런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면서 북한 측과 합의. 보험사들은 북한에 대한 사기 주장을 철회하고 북한이 요구한 금액의 95%를 지불기로 합의해 사실상 북한 측이 승리

라. 군사 관련

● 北경비정, 동해NLL 접근하다 퇴각(6/18, 연합)

- 북한 경비정 1척이 지난 6월 16일 오후 1시30분께 동해 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방송과 대응기동으로 퇴각했다고 합참이 18일 발표, NLL북방 장전항에서 출항한 북한 경비정은 NLL 북쪽 1.8km 해상까지 접근했고 우리 해군 고속정이 즉각 출동해 북상토록 경고방송하자 곧바로 북쪽으로 되돌아갔음.

● 美항공우주정보센터, 대포동2호 수출가능성 전망(6/18, 연합)

- 미국 국방부 산하 국립우주항공정보센터(NASIC)는 최근 업데이트한 '탄도·크루즈미사일 위협 보고서'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대포동 2호 미사일 개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능력을 보유하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언급
- 보고서는 지난 4월 대포동 2호 발사가 비록 실패했지만 2006년 발사 때보다 더 완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대포동 2호가 ICBM으로 개발될 경우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고체추진체를 사용하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 개발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
- 이와 관련,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과 파키스탄을 포함한 국가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했으며, 중거리미사일도 다른 국가에 수출될 수 있다고 예상

- 北 3년내 장거리미사일 기술적 결함 극복(6/17, LA타임스)
 -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군 합참 부의장이 미국이 최소 3년 내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사정권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
 - 1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카트라이트 의장은 16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앞으로 3~5년 사이에 기술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미국의 태평양 연안(West Coast)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그러나 그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탄두 개발에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발언이 단지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강조

- 北 미사일공장-발사기시간 빈 열차만 왕래(6/17, 연합)
 - 북한 평양의 산음동 병기연기소 인근에서 출발한 화물열차가 텅 빈채로 평북 동창리 기지와 함북 무수단리 기지를 각각 왕래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정보당국이 그 의도를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 당국의 한 소식통은 17일 “평양에서 출발한 화물열차가 동창리 기지와 무수단리 기지를 각각 왕래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화물열차에서는 아무 것도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힘. 특히 북한이 지난 5월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창리 기지로 이송한 이후 동창리나 무수단리 어디에서도 미사일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소개

- 北 ICBM 2발 발사 준비 진행(6/17, 산케이 신문)
 - 북한이 북서부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와 북동부인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7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대륙간탄도미사일 2발은 모두 대포동 2호 또는 그 개량형으로 보이며 동시에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

- 北, 미얀마에 ‘땅굴 기술’ 수출 의심(6/9, 예일글로벌)
 - 북한이 미얀마 군부에 ‘땅굴 기술’을 수출했고,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에도 간접적으로 관련 기술을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

미안마를 전문적으로 취재해온 스웨덴 출신 버틸 린트너 기자는 지난 9일 예일대 세계화연구센터의 온라인 저널 '예일글로벌'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기술자들은 나라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미안마 군부를 위해 현지 지하시설 건설에 도움을 줬다”고 밝힘.

● 北풍계리 핵실험장 방사능 미검출(6/15, 연합)

-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입증할 방사능 물질이 아직 검출되지 않아 지하 핵실험장의 밀봉상태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정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북한이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단행한 2차 핵실험을 입증할 단서인 방사능 물질이 아직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풍계리에 건설된 지하 핵실험장의 밀봉상태가 상당히 견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당국자는 “현재 방사능 물질인 크립톤과 제논을 검출하기 위한 우리의 과학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장소가 남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지하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

마. 사회·문화 관련

● 北내각, 월드컵진출 대표팀 환영 연회 개최(6/21, 평양방송)

- 북한 내각은 1966년 잉글랜드 대회 이후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낸 북한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위해 20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평양방송이 21일 보도
- 광범기 내각 부총리는 평양시 옥류관에서 열린 연회에서 “공화국(북한) 정부의 이름으로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2010년 월드컵 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선군조선의 기상과 존엄, 날로 발전하는 주체체육의 위력을 떨친 미더운 남자축구 선수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방송은 전언
- 북한 축구팀은 20일 평양에 귀환, 체육인들과 각계 시민, 청소년 학생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음. 또 김종린 당 중앙위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내각 부총리,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 북한 축구협회장인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대리, 리종무 중장 등 당·군·정 고위간부들이 총출동해 공항에서 환영식을 가짐.

● 평양 거리에 냉차 매대 등장(6/1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8일 “평양시 중구역 영광거리에 홍차를 봉사하는 매대가 나왔다”며 “호텔과 일부 식당에서 각종 차를 봉사하기는 했으나 거리에 전개되는 매대에서는 (그동안) 차를 봉사하지 않았다”고 소개, 영광거리의 냉차 판매대에서는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재배한 차잎으로 만든 ‘강령홍차’와 녹차를 판매

● 김정운시대 평양제1중 출신들이 주도(6/19, 연합)

-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운과 평양제1중학교 출신 영재들이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주도하며 강성대국의 과업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한에 386세대가 있다면 북한에는 평양제1중학교(중고등학교) 출신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김정운 시대를 이끌어갈 북한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라고 언급

- 익명을 요구한 이들은 “현재 김정운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세력이 바로 평양제1중학교를 졸업한 북한의 신흥 엘리트들”이라며 “이들은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고 경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

- 이와 관련, 베이징에 주재하는 북한인들은 “평양제1중학교를 졸업한 30, 40대 수재들이 지난 22년 동안 군과 당, 정부는 물론 과학, 외국어, 예술계 등 각 분야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 “평양제1중학교 졸업생들은 전공 분야 외에도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하고 중국어나 러시아어 등 제2외국어에도 능통하며 농구나 수영 등 체육 실력도 뛰어나다”고 설명

- 평양제1중학교는 김정일 위원장의 교육 방침에 따라 지난 1984년9월에 설립된 북한 최고의 수재 양성 기관으로 교육 수준도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은 대학 진학 때 우선적 권리를 부여받는다”면서 “국가시험 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며 해외유학도 갈 수 있다”고 설명, “평양제1중학교 졸업생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학생 간부로 선발되며 대학 교수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으며 교육을 받는다”면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분야별로 요직에 채용된다”고 소개

※ 평양시 보통강구역 신원동 보통강 강변에 위치한 평양제1중학교는 2만

8천㎡ 부지 위에 4층짜리 소학교 건물, 10층짜리 중학교 건물과 함께 기숙사, 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학교, 전국 도와 시의 수재들이 다니는 제1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예비고사를 통과해야 평양제1중학교에서 본고사를 볼 수 있으며, 여기서 합격해야 평양제1중학교 4학년에 입학할 수 있음. 평양에 거주하는 당이나 군의 고위층 자제들에 대해서는 평양제1중학교에 특례 입학할 수 있음. 현재 재학생은 1천명 정도임.

- **美, 對北선교단체, 올해 지하교회 30개 설립(6/19,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의 대북 기독교 선교단체인 '318 파트너스'는 올해 안에 북한에 30개의 지하교회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이 단체의 스티브 김 대표는 1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중국을 방문하는 합법적인 방문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 훈련과정을 거친 뒤 북한으로 보내 지하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언급

- **北, 44년만의 월드컵 본선 진출(6/18,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TV는 18일 새벽 북한 축구대표팀이 44년만에 2번째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된 월드컵 지역예선 마지막 경기인 사우디아라비아 전을 18일 저녁 8시47분부터 약 1시간25분 정도 녹화로 중계방송, 90분 간의 열전 끝에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자 북한 아나운서와 해설자는 "얼마나 미더운 우리의 축구선수들입니까", "우리 선수들에게 조국이 보내는 열렬한 박수를 보내줍시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함.
 - 중앙TV 아나운서와 해설자는 녹화방송을 시작하면서 "이 경기에 앞서서 남조선팀과 이란팀 간의 경기가 1대1로 비겼다"고 소개한 뒤 "만일 이번 경기에서 비겨도 우리는 2등으로 본선에 진출한다"면서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경기에서 이기거나 비기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설명
 -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이날 "우리나라(북한) 축구선수들이 국제축구연맹 2010년 월드컵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했다"며 "미더운 남자축구선수들이 이룩한 자랑스런 경기 성과는 온 나라를 기쁨으로 설레게 하고 있다"고 보도

- 北사회과학원, 30년 작업 ‘한자말대사전’ 완성(6/18, 조선신보)
 -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가 29년간의 작업 끝에 전 10권으로 된 한자말대사전을 편찬했다고 조선신보가 18일 소개, 사전에는 북한 주민의 언어생활과 민족 고전에서 많이 쓰였거나 쓰이고 있는 한자와 한자어들이 수록됐으며, 수백 종의 북한 내외 고전문헌과 각종 사전, 자전에서 뽑아낸 한자의 올림자는 2만4천263자, 한자 어휘의 올림말은 28만4천300개에 이릅니다.
 - 이에 대해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북한은 나름대로 고전 분야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연구를 진행해 왔다”며 “한자말대사전 편찬은 고문헌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

- 北촬영소, 새 아동영화 제작(6/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 4.26아동영화촬영소’가 최근 아동영화 3편을 새로 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들려준 옛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었다는 ‘작은 산삼과 큰 산삼’은 “나이에 맞게 자식에게 산삼을 먹인 김 침지와 욕심스럽게 큰 산삼을 자식에게 먹여 구실 못하게 만든 박 주사의 행동”을 담은 작품이라고 통신은 소개
 - 인형영화 ‘빨간 별’ 제4부 ‘고운 마음’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친구를 놀리는 아이와 친구의 부족한 점을 고쳐주는 아이를 통해 “항상 동무(친구)를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으며, ‘날개를 단 개미’는 개미가 산골짜기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 독거미들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아는 것이 힘이고 그래야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주제를 다룸.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유엔, 제재명단에 北기업 추가 검토(6/20, 연합)
 - 유엔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기업들을 추가로 제재명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바키 일킨 유엔주재 터키 대사는 19일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블랙리스트에 포함할 북한 기업과 관련 인물들의 명단을 이미 제출받았다고 언급

- 그는 “(블랙리스트에 포함할) 목록이 좀 있고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어떤 나라가 이 명단을 제출했는지는 밝히지 않음.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유엔 주재 외교관들은 미국과 일본, 영국이 이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언, 일킨 대사는 다음 주 말께 제재위원회가 다시 소집될 것이라고 밝힘.

● EU, 對北제재, 조속히 시행 촉구(6/19, 연합)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성토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對) 북한 제재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로 결의, 19일 EU 소식통들에 따르면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채택할 '의장국 결론'에 동북아시아 정세에 불안을 야기하는 북한을 겨냥해 메시지를 담은 예정
- 소식통들은 의장국 결론 초안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 나아가 국제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고 전언
- 의장국 결론 초안은 이와 함께 대량파괴무기(WMD)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선주의 동의 아래 공해에서 검문할 수 있도록 하는 최근의 유엔 대북 제재를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나. 북·미 관계

● 美함정, 北강남호 수송차단 준비(6/19, 폭스뉴스)

- 미국 해군 함정이 미사일과 핵관련 물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북한 선박 '강남 호'의 수송을 차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19일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강남호가 중국 연안을 벗어나는 즉시 미 해군 구축함 '존 매케인'호가 항해 수송 차

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는 보도, 하지만 차단 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임. 한편 현재 강남호는 중국 연안 주변을 항해하고 있으며 24시간 공중에서 감시를 받고 있음.

● 美, 하와이서 北미사일 요격체계 가동(6/20, 연합)

-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18일 북한이 미사일을 태평양을 향해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요격 미사일과 레이더망을 하와이로 이동해 둔 상태라고 밝힘. 게이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고(高)고도 지역방위시스템(THAAD) 미사일을 하와이로 다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해상배치 X밴드 레이더(SBX)도 하와이 인근에 배치됐다”고 밝힘.
- 그는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미국의 서쪽으로 발사할 경우 하와이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는 점을 정말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영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

● 백악관, 北 도발 지속으로 고립자초(6/17,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

-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탄도 미사일 추가발사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그 행위가 무엇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들의 조치와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언급
- 하지만 기브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위한 다른 길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들이 한반도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길로 복귀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포기하고 협상에 복귀하라고 거듭 촉구

● 美, 北인신매매 최악, 감시대상국 유지(6/17, 연합)

- 미국은 16일 북한을 인신매매피해방지법에 의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최악의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으로 또 다시 지정, 미 국무부는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이란, 미얀마, 쿠바 등 17개국을 인신매매 상황이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 북한은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을 계속 유지
-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 또 정치적 억압 수단의 한 부분으로 강제노동을 계속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 남성들에게 북한 여성을 파는 것과 같은 인신매매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

다. 북·중 관계

- 北·中 해양기술협조 조인식 보도(6/19,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 북한 기상수문국과 중국 국가해양국 사이에 해양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회담록이 19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류봉철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상수문국 대표단이, 중국측에서 천렌정(陳連增)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해양국 대표단이 참가, 평양방송은 19일 중국 국가해양국 대표단이 귀국했다고 소개

- 北·中 청소년교류 진행(6/18, 신화통신)

- 관영 신화통신은 17일 북한 평양의 동평양 제1중학교에서 '마오쩌둥(毛澤東)반' 명명 50주년 기념행사가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 대사와 자매학교인 중국 베이징 제5중학교 '김일성반' 대표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8일 보도, 양국은 1950년대에 대표적 지도자인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이름을 딴 학급을 각각 설치해 지금까지 운영

- 中, 김정운 방중보도 사실무근 공식 확인(6/18,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삼남 김정운이 극비리에 방중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잇따른 보도는 "007 소설과 같은 얘기"라며 사실무근임을 공식 확인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극비리에 방중했던 김정운이 장남인 김정남과 함께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했다는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보도내용과 같은 상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
- 그는 "이틀전 브리핑 당시 보도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측은 이같은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것은 동양식의 함축적 표현이

있다”고 말하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해주겠다”고 재차 강조

- 아사히신문은 16일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김정운이 10일째 중국을 극비리에 방문, 후 주석과 처음으로 회담했다고 보도한 뒤 18일에는 이 자리에 장남인 김정남이 동석했고 김정운은 17일 귀국했다고 후속 보도를 했었음.

● 北 인민무력부장, 극비리 北京 방문(6/16, 연합)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핵심 측근이자 국방위 부위원장인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지난 6월 13일 극비리에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한 대북 소식통이 16일 전언, 주중 한국대사관 외교관들도 “북한의 거물급 인사가 평양발 고려항공 편으로 지난 13일 오전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 귀빈실을 통해 중국에 입국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힘.
- 이와 관련, 대북 소식통은 “베이징에 온 인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라며 “그는 북한의 권력을 승계받을 김정운의 생모인 고영희 라인”이라고 설명, 그는 김 부장의 방중 목적과 관련,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부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소개

라. 북-러 관계

● 러시아, 北위협 곧이곧대로 해석 안해(6/18, 연합)

-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8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있는 곧이곧대로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수사(rhetoric)가 실제 북한의 의도보다 더 위협적일 수도 있음을 시사
-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그러나 “유엔 회원국(북한)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구속력 있는 안보리 결의 이행 거부를 선언하는 것은 깊은 유감을 불러일으킨다”며 북한이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안보리 결의가 “균형 있고 깊이 숙고된 것”이라면서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이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막기 위해 안보리 회원국들과 협상을 벌였음을 시사

마. 북·일 관계

- 日, 北선박내 미사일 부품 압수·처분(6/19, 니혼게이자이 신문)
 - 일본 정부가 북한 선박에 적재된 미사일 부품을 압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선박 화물 검사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골격을 만들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9일 보도
 - 일본 정부는 법안에서 미사일 부품 등을 발견했을 경우 압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주체는 해상보안청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항만이나 공항에서는 세관 등과 공조해 화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활동 가능 영역도 일본 영해는 물론 공해상으로 확대

바. 기타 외교 관계

- 駐北 쿠바대사 연회 개최(6/1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당사업 개시 45돌을 맞아 호세 몬타노 주북 쿠바 대사가 16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연회에는 김태중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등이 초대되었음.

3 대남정세

- 北매체, 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 보도(6/19,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북한은 19일 열린 남북 당국간 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겨냥, “우리민족끼리 하는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 문제를 바깥에 들고다니 다 못해, 외세와 정상회담 탁자위에까지 올려놓고 시비하며 무리한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느니 뭐니 한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조선중앙TV는 보도
 - 북측은 “남측의 제재 소동이 문제시 되는 것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더 큰 위기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는데 있다”며 “남측의 처사는 북남 사이

의 협력공간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업지구 사업마저 부정하고 실무접촉 앞에 난관을 조성하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비난

- 북측은 자신들이 이미 제시한 개성공단 토지 임대료와 임금·세금 등 개정안과 관련, “다른 나라와 남측 경제특구들의 경우를 충분히 참작하고 특히는 개성공업지구가 가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 특수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남측이 진정으로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 유지를 바란다면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과 혁신적인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호응해 나올 것”을 요구
- 북측은 특히 “토지값 문제만 보더라도 개성공업지구는 그 지리적 위치로 보나, 임대기한으로 보나 안보상 가치로 보나, 남측지역과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그런 노른 자위같은 땅을 통째로 내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우리가 제시한 기준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며 남측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남측 대표단의 발언과 요구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음.

● 北, 개성공단 통행제한 풀 용의있어(6/19, 연합)

- 북한은 19일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육로 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 용의가 있다고 밝힘. 그러나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역류 근로자 석방,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다음 달 2일 회담을 속개하기로 합의,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회사무소에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약 2시간 40분간 회담을 진행, 양측 수석대표로는 김영탁 통일부 상근 회담대표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각각 주재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은 입주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작년 12월 1일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힘. 그러나 북측이 언제부터 풀어줄 것인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는지 등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음.
- 또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개성공단을 ‘국제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조성하는 비전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제3국 공단을 남북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의, 이와 함께 우리 측은 남북간 합의·계약·법규 및 제도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규범 확립,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경제 베이스(기

- 초) 아래 공단 발전 추진, 국제경쟁력있는 공단을 만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 추구 등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
- 그러나 양측은 이날로 82일째 억류된 현대아산 주재원 유모씨 문제와 북이 제기한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안 등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임. 우선 유씨 문제와 관련, 우리 대표단이 기초발언을 통해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기 석방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유씨의 구체적 상태와 소재, 처분 방침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언
 - 또 북측은 근로자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이미 완납된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려 달라는 기존 요구를 고수했으며 우리 측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남북간 기존 합의·계약·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 **北아동·산모용 의약품 3억원어치 북송(6/17, 연합)**

-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사장 임종철, 이하 지원본부)는 오는 20일 북한 어린이와 산모 등에 필요한 의약품 3억여원 어치를 북한에 보냄. 지원본부는 17일 "지난 4월말 준공된 평양 만경대구역 칠골동의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에 어린이 환자의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장비까지 보낼 예정이었으나 현재 대북 지원품 중 의약품만 반출 승인이 나기 때문에 우선 의약품부터 인천항을 통해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6.22-06.28

6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나. 경제 관련
- 다. 군사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비핵·개방·3000’은 흡수통일 목적(6/28,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28일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망발을 논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발언으로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기초에 무엇이 놓여있고 그 종착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하며 “흡수통일이 그 기초이고 종착점이라는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론은 극도의 반공화국 대결론”이라며 “통일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통해서 이뤄지고 서로가 상대방의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데 “이것이 없이는 화합도, 통일도 불가능하고 전쟁 밖에 초래될 것이 없다”고 주장
- 北 리광호 당 과학교육부장 사망(6/27, 조선중앙통신)
 - 1998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래 가장 젊은 고위관료로 각광받았던 리광호 노동당 과학교육부장이 6월 26일 50세의 일기로 사망,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전 부장이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12기)인 리광호가 불치의 병(간암)으로 26일 50살을 일기로 서거하였다”며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공동 명의로 부고를 발표했다고 보도
 - 리 부장은 1997년 불과 38세의 나이에 북한의 과학기술을 책임진 국가과학원 원장의 중책을 맡았고 이미 30대 초반부터 과학원 부원장으로 활동해 온 관료로, 김 위원장 체제를 대표하는 신진 관료,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역점을 둔 정보기술(IT)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을 총괄하면서 능력을 발휘한 그는 특히 45세이던 2004년부터는 노동당 과학교육부장으로 전격 승진, 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보좌, 그는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 선출됐으며 11기에 이어 지난 3월 제12기 선거에서도 대의원 자리를 지킴.
 - 60~70대 일색인 노동당 부장 가운데 유일하게 40대인 그는 암기식에 매

몰된 종전의 낡은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 일련의 ‘교육혁명’을 과감하게 추진, 북한이 소학교(초등학교) 3학년부터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일반화하고, 암기보다 창의력 중시와 실용교육을 중시, 그는 지난 2월 24~28일 노동당 대표단을 인솔하고 중국을 방문해 자칭린(賈慶林)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면담한 것을 끝으로 언론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중앙통신이 리 부장의 직책과 관련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전 부장”이라고 지칭한 점으로 미뤄 그는 중국 방문 이후 지병 치료를 위해 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추정

● **北조평통, 무분별한 도발에 단호한 보복(6/25, 조평통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5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남한 정부가 6.25전쟁일을 계기로 반복 대결을 고취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무분별한 도발에는 단호한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담화는 남한이 최근 외국 6.25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전쟁기념관과 판문점 참관, 기념식, 위료연 등의 행사를 갖고,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가 24~25일 ‘6.25 상기 작전계획 시행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반공화국 대결 도수를 전례 없이 높이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북)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고 주장
- 담화는 6.25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도발한 침략전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남한을 겨냥해 “이 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극악한 동족대결 책동이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되는가를 몸서리치게 통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김정일, 주체의 혈통계승으로 혁명승리(6/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연면수여, 위대한 그 업적 길이 전하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령님(김일성)께서 항일 혁명투쟁 시기에 창조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라며 “이 주체의 혈통이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되고 있기에 우리 혁명은 승승장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

- 신문은 “위대한 역사는 계승하면 빛난다”라며 “사회주의 위업의 계승은 혁명을 개척한 수령에 의해 창시되고 이룩된 불멸의 사상과 영도, 업적의 위대한 계승”이라고 강조
- 신문은 또 “위대한 역사의 위대한 계승!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신성한 전통과 계승으로 전진하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위업, 김정일 동지의 위업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역사와 더불어 무궁토록 번영할 것”이라고 설명
- 함북 연사지구는 김 위원장의 어머니인 김정숙이 항일투쟁을 벌인 곳으로 북한에서 선전되고 있으며 최근 새로 정비됐다고 북한 언론에 보도

● 김정일 1호통역원 이집트대사에 임명(6/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어통역을 전담하는 ‘1호 통역원’인 리혁철씨가 북한의 이집트주재 대사에 임명,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인용, “이집트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로 리혁철이 임명됐다”고 짚막하게 보도
- 리 대사는 지난 2000년 방북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과 김정일 위원장간 면담 등에서 김 위원장의 통역으로 등장했으며, 노동당 국제부의 지도원 직함을 갖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짐. 현재 50대 중반으로 알려진 그는 국제관계대학 재학 중이던 1978년 남미 가이아나 유학생으로 선발돼 1982년까지 이 나라의 대학에서 영어를 배웠고 귀국 후에는 국제관계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평양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동시통역원으로 활동
- 그는 평범한 노동자 가정 출신이지만 뛰어난 영어실력을 인정받아 1991년 김 위원장의 영어 통역원으로 뽑혀 노동당 국제부로 자리를 옮겼음. 통역원들은 근무 연한, 나이 등에 따라 국제부 지도원, 과장 등의 직함을 갖고 있으나 평소 독자적인 대외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외국어 공부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려짐. 또 이들은 해외에 근무할 외교관 선발시 외국어 테스트를 담당함

● 北, 제재에 “정신력 강화” 연일 강조(6/22, 6/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필승의 신념과 낙관을 안고 오늘의 총공격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

국(북한) 책동은 극도에 이르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낙관을 ‘남김없이 과시’할 것을 주문

- 신문은 “미제의 강권과 지배주의 책동”으로 인해 “조국과 민족의 안전과 최고 이익이 심히 위협당하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자기의 사상과 위업, 자기의 제도와 생활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며 결사수호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신념이 어떤 것인가를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할 때”이자 “필승의 신념과 낙관에 넘쳐 제국주의와 견결히 맞서 싸워나갈 때”라고 주장
- 앞서 20일자에서도 노동신문은 ‘조선 사람의 본때’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조선 사람들은 시련과 곤란은 얼마든지 견디어낼 수 있지만 침략과 강권, 불의에는 용서를 모른다”며 “제재에는 보복으로,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본때”라면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상대로 “일심단결의 본때”를 보일 것을 주장
- 신문은 지난 9일엔 ‘제국주의와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논설에서 현재의 북미 대결구도를 “반제투쟁의 의지전”이라고 규정하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시련이 겹쌓인다고 하여 의지전에서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신력 강화를 통한 “대미 의지전”을 강조

● 北, 한미정상 ‘핵우산’ 명문화 비난(6/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전쟁도발자들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덤비라’라는 제목의 개인논평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공이 명문화된 것에 “수수방관할 수 없는 사태”라며 “그 이면에는 조선반도에서 합법적인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범죄적 기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겨냥해 “미국 집권자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제창하면서도 남조선에 확장 억제력 제공을 언약한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떠들면서 핵선제 공격론을 제창하는 미국이 우리더러 핵을 폐기하라고 하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고 비난
- 신문은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북위협’론도 거론, “우리의 있지도 않은 ‘군사적 위협’을 걸고”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라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껏 할 수 있는 노력을 성의껏 다 기울여온 우리 공화국이 미국을 ‘위협’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북위협’론을 부인

● 北, 군사분야 첨단기술 개발 통보(6/22, 마이니치 신문)

- 북한 조선노동당 지도부가 핵, 미사일 실험에 앞서 지난 2월 하순에 전 당원에게 군사분야에서 “선진국만이 독점하는 최첨단 기술을 우리식으로 개발한다”고 통지하는 내부 문서를 배포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2일 보도.
- 신문은 당 중앙위원회가 2월 26일 자로 보낸 ‘전 당원에게 보내는 비밀 편지’라는 제목의 비밀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 문서는 지난 4월 5일의 로켓 발사 실험 이전에 북한이 “위성을 로켓으로 발사할 것”이라는 담화(2월 24일)를 발표한 직후에 작성됐다. 문서는 모두에 “우리의 위대한 조국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가 왔다”, “드디어 강성대국의 입구에 발을 내디뎠다”고 선언했다고 신문은 소개
- 신문에 따르면 문서는 “세계가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밝히지 않은, 우리 인민도 본 적이 없는 실로 뛰어난 경제력이 우리에게 있다”며 “우리 국가경제력의 핵심인 국방공업은 첨단기술 혁명의 입구에 우뚝 섰다”고 핵과 미사일 기술력 향상을 암시

나. 경제 관련

● 北접경 지린지역, 中 최대 마약 밀매시장 부상(6/28, 연합)

- 북한 접경지역인 지린(吉林)성이 중국 최대 마약 밀매시장으로 떠올랐음. 28일 중광망(中廣網)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린성 공안 당국에 검거된 마약 밀매 혐의자는 모두 367명이며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이 6천139t에 이룸. 지린에서 거래되는 마약은 북한에서 제조돼 유통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과 엑스터시가 주종,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약은 접경지역인 함경북도 회령 등을 거쳐 중국으로 유입
- 얼음처럼 생겨 ‘아이스’ 혹은 ‘얼음’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은 이미 북한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만큼 급속히 확산, 2006년 9월 회령에서 당 간부 등을 포함한 200여명이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적발돼 처벌되기도 했음. 북한에서 마약이 급속히 확산된 이유는 국가에서 독점해오던 마약 제조기술이 민간으로 유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북한에서 제조되는 마약의 주원료인 염산에페트린은 중국 지린성 일대에

서 밀반입, 신장(新疆)지역에 기반을 둔 마약 밀매조직이 강화된 당국의 단속을 피해 지린성으로 근거지를 옮겨 농민들에게 종자를 제공, 대마를 재배하게 하고 있으며 이 대마에서 추출된 염산에페트린이 북한으로 건너가 마약으로 제조돼 재차 반입

● 北, 철갑상어 양식(6/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신창양어사업소에서 철갑상어의 양식에 성공해 본격적인 양어사업에 들어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특히 사업소에서는 자체로 먹이 가공방법을 개발하고 최신 양어기술을 도입해 철갑상어를 식용과 종자확보용으로 구분해 양식사업을 벌이고 있음.

● 긴장고조속 中보따리상, 對北무역 활기(6/23, 연합뉴스)

-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 실험 등 북한의 잇단 강경 조치로 북·중 간 긴장감이 고조됐음에도 중국의 대북 보따리상들의 무역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 접경지역인 연변(延邊)자치주 지안(集安)세관의 수출 통계에 따르면 물건을 휴대해 북한에 들어가서 판매하는 대북 소규모 무역상들의 무역량 집계를 시작한 4월부터 2개월간 이들 무역상을 통한 북한 수출액은 31만4천달러로 이 기간 전체 수출 총액의 10.7%를 차지, 지안세관은 대북 보따리상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 지역 수출 감소 추세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

- 통화(通化)시 하이관(海關)촌 통상구와 북한 함경북도 위원군를 자동차로 오가며 무역하는 대북 보따리상들이 주로 취급하는 물품은 대부분 저가의 생활용품들이다. 플라스틱 제품과 유리 제품이 각각 44.7%와 25.4%를 차지했으며 공책과 우산, 과일 등도 포함. 반면 알루미늄 창틀을 비롯한 고가 상품 거래량은 1천500 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쳤음.

● 北, 소형무기와 탄약 520만 달러어치 수출(6/22,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

-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CRS)은 22일 공개한 ‘북한:경제적 수단과 정책 분석’ 제목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01년 이후 7년간 소형 무기와 탄약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는 최소 525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힘.

- 의회조사국이 국제연합 무역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제 소형 무기를 수입해간 나라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중남미의 멕시코, 그리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등 최소 16개국에 이르며, 북한이 수출한 소형 무기와 탄약은 탄창 회전식 연발 권총인 리볼버에서 장총, 탄약, 폭탄, 수류탄 그리고 총검 등이라고 보고서는 밝힘.
-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연합이 2005년 80만 달러어치의 북한제 총검류를 수입하고 나서 이듬해 2006년 306만 달러어치를 추가 구매해 이 기간 가장 많은 북한제 소형 무기를 수입한 나라로 나타났음.
- 의회조사국은 북한과 해당 국가 간 소형 무기의 거래 규모가 “공식 통계에서 실제보다 줄여져 집계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 실제 거래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다. 군사 관련

● 북한, 깃대령 북동쪽 해상 항해금지(6/25, 연합)

- 북한이 강원도 깃대령에서 북동쪽 해상으로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해 스커드 미사일 또는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정부의 한 소식통은 24일 “북한이 깃대령에서 북동쪽 해안선을 따라 직선거리 450여km의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면서 “내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선포된 항해금지기간에 스커드 미사일 또는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그러나 깃대령에서 당장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언
-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 신상리 앞 북동쪽 해상에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한 바 있음.

● 北, 원산 연해서 사격훈련 경고(6/22, 일본해상보안청)

- 북한이 원산시 인근 해안에서 사격훈련 실행을 경고,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22일 밝힘. 해상보안청의 스키 신야 대변인은 북한이 이메일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10일 사이에 원산에서

110km 내에서 훈련이 이뤄질 것이라고 알려 왔다고 전언, 해상보안청은 이미 6월 들어 두 차례 북한으로부터 동해 연안 선박 항해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

라. 사회·문화 관련

● 백두산에 군민식물원 건설(6/28, 노동신문)

- 북한 백두산 지역에 군민식물원이 새로 건립됐다고 노동신문이 28일 보도, 허항령 기슭에 있는 이 식물원에는 30여만 그루의 다양한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소개

● 北, 7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가(6/27, 자유아시아방송)

- 전 세계 고등학생들이 수학 실력을 겨루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 북한이 6번째로 참가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 7월 14~21일 독일 베르멘에서 열리는 제50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운영위원회의 에바 바흐엔 공보담당관은 북한에서 대회에 참가할 학생 6명과 인솔자 등 8명이 이미 참가 신청을 마쳤다고 RFA에 밝힘. 올해 참가하는 북한 학생은 지난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운송 군을 제외하고는 김정철, 이용현, 전호근 군 등 5명이 새로운 학생들로 구성

※ 북한은 1990년 중국 대회에 처음 참가한 이후 지금까지 5번 출전해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2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으며, 2008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97개국 가운데 7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음.

● 北 최고 '춤꾼' 홍정화 70세에 무용발표회(6/23, 조선중앙통신)

- 올해 나이 일흔의 북한 최고의 춤꾼 홍정화가 22일 평양 국립연극극장에서 무용발표회를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이번 발표회는 홍정화의 일흔번째 생일을 기념해 열렸으며 그의 네번째 개인발표회이기도 했음.

-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홍정화는 15살 때 무용에 입문, 실력을 인정받아 북한의 대표적인 예술단체인 만수대예술단에 들어갔으며 '행복의 실오리', '환희', '북춤', '목동과 처녀' 등 100여편의 무용

작품에 출연했고 ‘나의 초소’, ‘사관장과 전사들’, ‘전차병과 처녀’ 등을 창작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유엔, 대북 직접대화 책임자 선임 검토(6/27, 미국의소리방송)
 - 유엔은 사무국 내에 북한 정부와의 직접대화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
 - 유엔 사무총장실의 최성아 부대변인은 2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모리스 스트롱 전 대북 특사가 물러난 뒤 유엔 사무국과 북한 간 직접대화가 중단돼 이를 복원할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현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최 부대변인은 “북한과 대화를 담당할 책임자는 ‘특사’ 직책을 갖고 활동하지는 않을 것”이며 “유엔 정치국에서 한 명이 선임될 것”이라고 말하고, 유엔이 대북 직접대화에 나설 경우 인도주의적 문제 외에 정치 문제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나. 북·미 관계

- 美, 달러위조 명분 새 대북 금융제재 가능(6/27, 미국의소리방송)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달러화 위조를 명분으로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미국 화폐 위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가 “유엔이나 다른 나라들과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힘.
- 美, 對北제재 전담 범정부조직 구성(6/27, 연합)
 -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

해 관련부처로 구성된 전담 협의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26일 전해짐. 이 조직은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 주재 미국대사가 이끌고 있으며, 조만간 중국측과 대북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가 전언

- 이와 관련, 필립 크롤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1718호의 이행을 위한 범정부간 노력을 이끌도록 임명됐다”고 밝힘.

● **北억류 美 여기자들 건강 악화(6/27, 연합)**

- 북한이 100일 넘게 억류 중인 미국 커런트 TV 소속 유나 리(Lee·36), 로라 링(Ling·32) 기자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계 링 기자의 남편인 이언 클레이튼(Clayton)은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두 기자 석방 촉구 집회에서 링 기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유나 리 기자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
- 클레이튼은 6월 21일 북한에서 걸려온 링 기자의 전화를 받았는데, 링 기자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으나 “견딜만 하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

● **美, 강남호 이외에도 다수의 北선박 주시(6/24, 미국방부 대변인)**

- 미 국방부의 제프 모렐(Morrell)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선박(강남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북한에서 나오는 다른 선박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 그는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선박들에 대해 수년간 주시해왔다”며 “이 선박(강남호)은 더욱 더 관심이 가는 이력이 있지만, 다른 많은 선박들에도 그런 이력들이 있다”고 언급
- 모렐 대변인은 강남호에 대한 검색 여부와 관련,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만이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답변, 그는 또 “이 선박에 대해 동맹국 및 지역 내 관련국가와 공동으로 검색할지,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할지를 곧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

● **오바마, 對北 경제제재 1년 연장(6/25,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한반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일련의 경제제재를 1년 간 연장한

다고 24일 밝힘.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성명에서 “한반도의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위험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이례적이고 예사롭지 않은 위협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

● 스웨덴대사, 北역류 美여기자 면담(6/24, 연합)

-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23일 북한에 역류중인 미국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사를 면담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스웨덴 대사가 오늘 (여)기자들과 만났다”면서 “면담은 이제 막, 불과 수시간 전에 이뤄졌다”고 전언

● 美, 항모타격단 北인근 배치(6/22, 터너라디오네트워크(TRN))

- 미국이 하와이로 향할지 모르는 북한의 예상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위시한 항모타격단을 북한 인근으로 배치했다고 미국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인 터너라디오네트워크(TRN)가 22일 보도
- 조지 워싱턴호는 일본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하는 항모로, 면적이 1만8천 211㎡로 축구장 3배 크기인 비행갑판에는 슈퍼호넷(F/A-18E/F)과 호넷(F/A-18A/C) 전투기, 조기경보기인 E-2C(호크아이 2000) 등 항공기 60~70대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오바마, 美, 北미사일발사 만반 대비(6/22, CBS 방송)

-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내달 4일께 하와이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정부와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도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이어 이러한 대비가 군사적인 경고냐는 물음에 오바마 대통령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어떠한 비상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변
- 그는 또 “나는 가정의 상황들에 대해 추측하길 원치 않는다”면서 “그러나 나는 미국 국민들에게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주고 싶다”고 말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미국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함.

다. 북·중 관계

- **中외교부, 김정은 중국 방문 부인(6/27, 요미우리 신문)**
 -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25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유력한 삼남 김정운의 중국 방문설에 대해 “김정은 씨가 한번도 중국에 온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7일 보도

- **中, 北지원 계속, 美 제재 요청 거부(6/26, 연합)**
 - 중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석유와 식량 등 대북(對北) 물자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제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함.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제사회의 조치가 북한의 민생과 정상적인 경제·무역 활동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답변
 - 친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문에는 제재가 북한의 민생과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 인도주의적 원조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관련 국가들이 이 1874호 결의에 찬성한 만큼 이 점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

- **中, 선박검색은 충분한 증거·이유 있어야(6/23, 연합)**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유관 결의(1874호)에 명시된 선박 검색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 그는 “선박 검색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유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안보리의 결의를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답변

- **中, 북핵 5자협약에 반대 시사(6/23, 연합)**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지지 의사를 밝힌 5자협약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라. 북·러 관계

● 러시아, 북핵 '5자 협의' 지지(6/22, 리아 노보스티 통신)

- 러시아 정부가 22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이 제의한 '5자 협의'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는 현재 위기를 다루는 데 있어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북핵 5자 협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 성명은 이어 "러시아는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해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북한의 위협은 국제사회에 대한 공개적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

마. 북·일 관계

● 日, 北 화물검사 불응 시 처벌 조항 마련(6/26, 요미우리 신문)

- 일본 정부와 여당은 북한과 관계가 있는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와 관련, 수출금지 물자를 적재할 가능성이 있는 선박의 선장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현재 마련중인 '화물검사특별조치법'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6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또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실제 화물검사는 해상보안청이 실시하고 자위대는 정보수집 및 발견된 화물의 감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 정부는 내달 초순 법안을 확정,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소개
- 화물검사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결의 1874호에 따른 것임.

● 아소, 北 핵보유국 인정 불가 방침(6/23, NHK방송)

- 23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는 오는 28일 한국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연대를 강화할 것
- 아소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잇단 도발적 행위를 중지시키

기 위해 한일 양국이 연대해 대응하는 한편,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방송은 보도

3 대남정세

● 북한산 담배, '백산' 내달부터 시판(6/25, 연합뉴스)

- 7월부터 북한 업체가 생산한 담배가 시판될 예정, (주)엠투씨백산은 북한 업체가 평양 공장에서 생산한 담배인 '백산' 17만5천갑을 인천항을 통해 들여와 7월 6일께부터 시중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 KT&G가 2000년에 북측과 임가공 계약을 맺고 평양에서 '한마음', '잎스' 등을 생산해 들여온 적이 있지만, 북한 회사가 만든 담배가 수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국내 수입사인 '엠투씨백산'은 중국과 북한이 공동 설립한 담배제조업체인 평양백산합영회사와 8개월간의 협상 끝에 이번에 첫 물량을 들여오게 됐다.

● 北, 유씨문제 '인차' 해결(6/23, 연합뉴스)

- 북한은 19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3차 남북 접촉에서 장기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44)씨 문제에 대해 "인차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23일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 내에서 '인차'의 뜻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며 "인차가 '이내(곧)'의 뜻이라면 조만간 유씨 문제가 풀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라는 뜻이라면 상황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5월 01일	5·1절 경축 축포야회(평양 보통강반) 개최	중통(5/1)
05월 02일	김정일 위원장, 공훈국가합창단 경축공연 관람	중통(5/2)
	인민군 정치일꾼 대표단(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베트남 방문 후 귀국	중방(5/2)
05월 03일	재미조선인 의학자 대표단(단장: 박문재 부회장)·재일조선인 의학자 대표단(단장: 이대국 회장), 제11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참가차 방북	중통(5/2)
	김정일 위원장,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관람	중통(5/3)
05월 04일	제11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인민문화궁전, 5.4-5) 개최	중통(5/6)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비난 회견	중통(5/4)
05월 05일	노동신문 사설, '150일 전투' 축구	노동신문(5/4)
	국제축구연맹 실내축구감독 강습(청춘거리 탁구경기장, 5.5-9)	중통(5/12)
05월 06일	제4차 건축미학토론회(평양) 개최	중통(5/5)
05월 06일	김정일 위원장, 제10215군부대 대학 시찰	중통(5/6)
05월 07일	조선신보, PSI 전면참여시 남북관계 파국	조선신보(5/7)
05월 08일	박의춘 외무상, 페루대통령 예방	중방(5/8)
	북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 담화, 이산가족초청위로행사 비난	중통(5/8)
05월 09일	평북 초장리 석굴암 유적(고려말-조선초) 발굴	조선신보(5/9)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측의 인권문제제기 '남북대화는 논의여지가 없다'고 비난	중통(5/9)
05월 10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자코브 게들레이홀레키사 주마)과 회담	중통(5/11)
	北, 2009년도 보내기 시작	노동신문(5/12)
05월 11일	제12차 평양봉철국제상품전람회(3대혁명전시관, 5.11-14) 개막	중통(5/11)
	北,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폐 및 유엔 안보리의 사죄 촉구	조선신보(5/11)
	북 정부대표단(박의춘 외무상), 브라질 외무상과 회담진행	중통(5/13)
	북·중 우호협회 대표단과 중 지방정부 대표단, 만경대·당창건기념탑·국제친선전람회 등 참관	중통(5/11)
05월 12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짐바브웨 대통령과 회담	중방(5/12)
	주북중국대사, 제12차 평양봉철국제상품전람회 '중국관의 날' 즈음 연회 개최(고려호텔)	중방(5/12)
05월 13일	낙원기계연합기업소, 대형산소분리기 생산장비 제작 완료	노동신문(5/12)
05월 13일	박의춘 외무상 일행, 브라질 출발	중방(5/13)
05월 14일	북-이란 친선주간 기념집회·영화감상회(대동강외교단회관), 정영수 노동상 참석	중통(5/14)
	중앙재판소, 억류 미국기자들 6월 4일 재판 결정 '보도' 발표	중통(5/14)
05월 15일	중국 국제우호연락회 친선대표단(단장: 송은루 부비서장) 방북	평방(5/15)
	北, 개성공단 관련 법규·계약 무효 선언	중통(5/15)
05월 15일	개성 송도피복공장, 하루계획 150% 수준에서 정상화	중통(5/15)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5월 16일	김정일 위원장, 중국 후진타오 주석 등에 국방위원장 추대관련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	중방(5/16)
05월 17일	北, 옥수수 파종 완료	중통(5/18)
05월 18일		
05월 19일	박의춘 외무상 일행, 쿠바·페루·브라질 방문 후 귀국	평방(5/19)
	北, H1N1형 신종플루 방역사업 진행	중통(5/19)
05월 20일	최고인민회의의 대표단(단장: 최태복 의장), 인도네시아 국회대표단과 회담(만수대의사당)	중통(5/20)
05월 21일	김정일 위원장, 조선인민군 공군 제814군부대 시찰	중통(5/21)
	브라질 노동당대표단, 김중린 당비서를 통해 김정일 선물 전달	중통(5/21)
	조선노동당, 브라질 노동당대표단과 회담(평양)	중통(5/21)
05월 22일		
05월 23일		
05월 24일	조선중앙통신,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소식 보도	중통(5/24)
05월 25일	조선중앙통신, 추가 “지하 핵시험 성과적 진행” 발표	중통(5/25)
	김정일 위원장,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소식에 유가족들에게 애도 표명	중통(5/25)
05월 26일	김정일 위원장, 조선인민군 감나무중대 군인들의 예술소품 공연 관람	중통(5/26)
	北, 남측이 ‘개성공단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	노동신문, 조선신보(5/26)
	국립교향악단 공연(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5/26-27)	중방(5/27)
	조선신보, ‘충격적인 서거’ 題下 故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대한 애도 글 게재	조선신보(5/26)
05월 27일	北 판문점 대표부,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 관련 성명 발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 주장	중통(5/27)
05월 28일	김정일 위원장,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방(5/28)
05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안보리 대북제재 철회 요구 및 안보리 도발시 추가 자위적 조치 취할 것” 경고 담화 발표	노동신문(5/29)
05월 30일		
05월 31일		
06월 01일	2차 핵실험 성공 경축 군중대회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방(6/1)
	국제아동절(6.1) 관련 ‘친선연합모임’ (평양시)	중방(6/1)
06월 02일	김정일 위원장, 군 제529군부대와 해군사령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관람	중통(6/2)
06월 03일		
06월 04일	김정일 위원장, 조선인민군 제264군부대·제604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중통(6/4)
	조선중앙통신사, 역류 미기자 2명 ‘오후 15시부터 재판시작’ 공지	중통(6/4)
	北, 미국의 ‘2008년 인권보고서’ 비난	노동신문(6/4)
	재일본조선인총구협회 대표단(단장: 문장홍 회장),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동상 참배	중통(6/4)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6월 05일	김정일 위원장, 단천시내 공장·기업소 현지지도	중통(6/5)
	北, 일본의 '적기자공격론' 비난	노동신문, 중통(6/5)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 방중(5.30~)후 귀환	중방(6/5)
06월 06일	김정일 위원장, 조선인민군 제583군부대·조선인민경비대제3154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관람	중통(6/6)
	北축구대표팀, 2010년 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전(평양 양각도 축구경기장)에서 이란팀과 0:0 무승부	중통(6/6)
06월 07일	김정일 위원장, 김기남·장성택·박남기 등과 함께 함남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현지지도	중통(7/7)
06월 08일	중앙재판소, 여류 美기자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 선고	중통(6/8)
	김정일 위원장, '고산과수농장(강원도 고산군)' 현지지도	중통(6/8)
06월 09일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첫 공연(평양대극장)	중통(6/9)
	조선중앙통신, '영원발전소' 준공식 진행 보도	중통(6/9)
	민주조선, '우리의 핵심현은 정당한 자위적 조치'	민주조선(6/9)
06월 10일	보건성 중앙위생방역소, 신종플루 예방사업 주력	중통(6/10)
06월 11일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개성, 6.11)진행소식 간략 보도	중통(6/11)
06월 12일	'조평통' 대변인, "한·미 당국의 위조화폐설 유포는 반복 모략소동"비난 기자회견	중통(6/12)
06월 13일	외무성 성명, 유엔안보리 '결의1874호' 배경 및 3개 대응조치 선언	중통(6/13)
06월 14일	김정일 위원장, 전선동부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7보병단 지휘부 시찰	중통(6/14)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경축공연(평양대극장)	중통(6/14)
06월 15일	김정일 위원장, 가극 '홍루몽' 관람(함흥대극장)	중통(6/15)
06월 16일	대북제재 반대 평양시 10만 군중대회 개최	중방, 평방(6/16)
06월 17일		
06월 18일		
06월 19일	김정일 혁명사적비 준공식(대안친선유리공장)	중통(6/19)
	北, 개성공단 제2차 실무회담 진행 보도	중통, 중방(6/19)
06월 20일	군사대표단(단장: 백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몽골 방문	중통(6/22)
06월 21일		
06월 22일	홍정화(출판, 70세) 무용발표회(평양 국립연극극장)	중통(6/23)
	리혁철(김정일 1호 통역원), 이집트 대사로 임명	중통(6/22)
	'만국우편동맹창립' 135돌 기념우표 발행	중통(6/22)
06월 23일	北-라오스 외교관계설정 35돌 기념집회 및 영화감상회(대동강외교단회관) 개최	중통(6/23)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6월 24일	김정일 위원장, 러시아 이고리 모이쎬예브명칭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공연관람	중통(6/24)
	이란대사관 성원들, 평남 문덕군 입석협동 친선노동	중통(6/24)
	조선노동당출판사, 회상실기집 '인민들 속에서-81' 출판	중통(6/24)
06월 25일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김일성광장) 개최	중방(6/25)
	노동신문, 한·미 정상회담 '공동비전(6.16)' 비난	노동신문(6/25)
	'조평통' 대변인 담화, 南측의 '전쟁연습' 비난	중통(6/25)
	조선중앙통신, '대동강맥주' 선전	중통(6/25)
06월 26일	리광호 당 과학교육부장 사망	중통(6/27)
06월 27일	김정일 위원장,故里광호 영전에 화환 전달	
06월 28일	백두산 지역에 군민식물원 건립	노동신문(6/28)
06월 29일	조선중앙통신, '감자흰쌀' 가공기술 개발 보고	중통(6/29)
	조선노동당 출판사, 김일성전기 제3권 증보판 출판	중방(6/29)
	김영남 상임위원장·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등, 황해북도 예술극장 준공식 참석	중통(6/29)
06월 30일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